

안녕하세요 이욱조 선생님 연구실입니다.

2019학년도 EBEST 수능특강 문학 지문 분석서 PDF파일 배포 일정과

2019학년도 EBEST 수능특강 문학 지문 분석서와 실전 훈련서의 구성 내용

2019학년도 EBEST 시리즈 학습 전략을 안내합니다.

이욱조T EBEST 수능특강 지문 분석서 PDF파일 배포 일정

2월 19일 현대시

2월 22일 현대 소설, 현대 극 & 수필

2월 26일 고전 시가, 고전 소설, 고전 극 & 수필

(EBEST 수능특강 실전 훈련서는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EBEST 수능특강 문학 분석서의 PDF파일 배포는

2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니다.]

이옥조T의 EBEST 수능특강 문학 지문 분석서와 실전 훈련서 구성

EBEST 수능특강 문학 지문 분석서

Vol.1 현대문학

1부 현대시 2부 현대소설 3부 현대 극 & 수필

Vol.2 고전문학

1부 고전시가 2부 고전소설 3부 고전 극 & 수필

- EBEST 수능특강 문학 지문 분석서는 EBS연계 교재의 전 지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는 교재입니다.

EBS연계 교재의 모든 문학 작품들을 담고 있으며 각각의 작품들마다 함께 연계되어 출제 될 수 있는 연계작품들을 정리해 두어 더욱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EBEST 수능특강 문학 실전 훈련서

Vol.1 현대문학

1부 OX퀴즈 2부 기출문제 3부 정답과 해설

Vol.2 고전문학

1부 OX퀴즈 2부 기출문제 3부 정답과 해설

- EBEST 수능특강 문학 실전 훈련서는 1부 OX퀴즈, 2부 기출문제, 3부 정답과 해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부 OX퀴즈를 통해서 작품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학습하였는지, 각 작품들의 세부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2부 기출문제에서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 되는지 확인하며 실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욱조T의 EBEST 시리즈 학습 전략

1단계 EBEST 수능특강 지문 분석서를 통해 EBS 문학 전지문에 대한 상세한 지문 분석과 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들, 연계작품들을 함께 학습합니다.

2단계 EBEST 수능특강 실전 훈련서를 통해 OX퀴즈와 기출 문제를 풀어보며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고, 실제 시험 문항들을 풀어보며 실전 능력을 키웁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EBEST 수능특강 지문 분석서로 돌아가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확실히 이해합니다.

3단계 2019학년도 EBS 수능특강 모든 교재를 반영한 EBEST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확실한 수능 대비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EBEST 시리즈 안내

강좌·교재명	개강·출간일정	강좌	
EBEST 수특 문학 지문분석서	2.26	X	총 2권 (각 권 280페이지↑)
EBEST 수특 문학 실전훈련서	2.26	24강	총 2권 (각 권 100페이지↑)
EBEST 실전 모의고사	3.2	7강	총 2회 실모 +α

Ⅱ / 현대소설

01. 현진건, 「고향」
02. 최인훈, 「광장」
03.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04. 김원일, 「마당 깊은 집」
05. 염상섭, 「만세전」
06. 계용목, 「별을 헐다」
07. 최명익, 「비 오는 길」
08. 손창섭, 「비 오는 날」
09. 임철우, 「사평역」
10. 김정한, 「사하촌」
11. 은희경, 「새의 선물」
12. 박완서, 「엄마의 말뚝2」
13. 이범선, 「오발탄」
14. 황순원, 「이리도」
15. 이청준, 「줄」
16. 문순태, 「징소리」
17. 박태원, 「천변풍경」
18. 채만식, 「태평천하」
19. 양귀자, 「한계령」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오래만에 다녀온 고향 모습 - '그'의 당당한 심정 반영

▶ '그'가 '나'에게 고향 이야기를 들려줌

과거, 전지적 작가 시점 →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샷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 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굽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쳐로 유리 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 일제에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났던 '그'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 여섯 살이었다. 가 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 외부 이야기의 화자인 '나'의 생각이 개입

그: 서간도로 이주, 그 처녀: 유곽으로 팔려 감 → 고향이 더 이상 살의 터전이 아님

(동양척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지주 행세로 인한 가난 때문)

쫓겨 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 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 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밭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 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 사건의 요약적 제시

▶ 간도에서의 '그'의 비참한 생활

(중략)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 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 오랜 방황 끝에 고향에 들렀다가 떠나는 '그'



현재, [인칭 관찰자 시점] →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시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에 썩 변했겠지요.”

‘나’가 말장구치는 말(‘그’에 대한 공감의 표현)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았더마.”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던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오? 암만
최소한의 삶의 조건마저 파괴됨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오?”

‘그’의 당혹감(예전에 살던 ‘동리’의 변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서까래, 뿔뿔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마루대에서 보 또는 도리에 걸린 통나무 기둥 밑에 괴는 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 」 : 폐허가 된 고향의 모습 묘사 - 일제에 수탈당한 농촌의 현실 상징
탄식, 안타까움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뚝뚝히 본 듯싶었다.

‘그’의 얼굴을 의미함.

(매우 고생하여 원래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의 얼굴을 통해
알게 지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과 주권을 상실한 조선의 모습을 보여줌.)

▶ 황폐해진 고향의 모습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나’의 역할 - ‘그’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유도함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고향 사람과의 만남이 긍정적이지 않았음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여기서는 ‘인연’의 의미

“까닭이라니?”

‘그’와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한 ‘나’의 궁금함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 그 여자도 것처럼 고생이 많은 삶을 살아옴

피차일반(彼此一般),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댓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에는 빈 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칠너는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이 몹쓸 병이 들어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 준 것이었다. 칠너도 자기와 같이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 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 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었다.

▶ 과거 ‘그’와 혼인 말이 있었던 여자와의 만남과 그녀의 비참했던 삶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찌 그렇게 변하는지요? 『그 술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마. 눈은 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마.』”

그 여자와의 만남으로 인한 충격이 큼

‘확실’을 일컬음 「」 : 그녀의 얼굴 묘사 - 비참하고 기구한 삶을 살았던 그녀 역시 조선의 또 다른 얼굴임을 암시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얼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열 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마.”

동병상련의 정서 공유와 위로

하고, 가슴을 찢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음이다.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지요?”

알게 강경기 ‘그’와 ‘그 처녀’가 살아온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데에서 오는 슬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 물이 났다.

‘그’에게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낌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주거니 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못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었다.

과거의 삶이 더 나은 삶이었다는 인식을 담고 있음(어릴 때 ‘그’가 부르던 노래)

일제의 농토 강탈 정책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 신작로가 되고요 —

농사짓기에 좋았던 비옥한 토지 수탈한 곡식을 효과적으로 빼앗아가던 길

제시된 민요의 역할

① 당시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제시함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 감옥소로 가고요 —
 일제를 비판한 지식인, 정치인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 공동묘지로 가고요 —
 만국의 슬픔을 느끼는 노인들의 죽음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 유곽으로 가고요 —
 특정한 가난으로 창녀가 되어야 했던 조선 여인의 고단한 삶

② 일제 통치로 인해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현실에 대한 풍자
 ③ 작품에 현실감을 더해줌

▶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그'와 '나'

핵심 정리

갈래	단편소설, 액자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고발적
배경	① 시간: 일제 강점기 ② 공간: 대구발 서울행 열차 안
시점	[외부 이야기] 1인칭 관찰자 시점 [내부 이야기] 전지적 작가 시점
구성	액자식 구성
문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문체
주제	일제 강점기 우리 농민(민중)의 참혹한 생활상의 폭로
특징	① 사투리와 동정적, 영탄적 어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함 ② 대화를 통해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개함 ③ 민요를 통해 당시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보여 줌 ④ 치밀한 묘사와 대화를 통해 서술함
출전	「조선일보」(1926)에 「그의 얼굴」로 발표했으나 단편집 「조선의 얼굴」에서 「고향」으로 제목을 고쳤다.

작품 해제

1926년 <조선일보>에 「그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단편소설. 그 해 단편집 <조선의 얼굴>에 「고향」으로 개제(改題)하여 수록한,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을 비판한 작품이다. 일제의 수탈로 인해 농토를 잃은 우리 농민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낱품팔이로 전전하며 유랑의 길을 걸었다. 이 「고향」은 이러한 우리 민족의 실상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당시 일제의 검열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이런 작품이 발표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하게 하는, 치열한 작가 정신이 드러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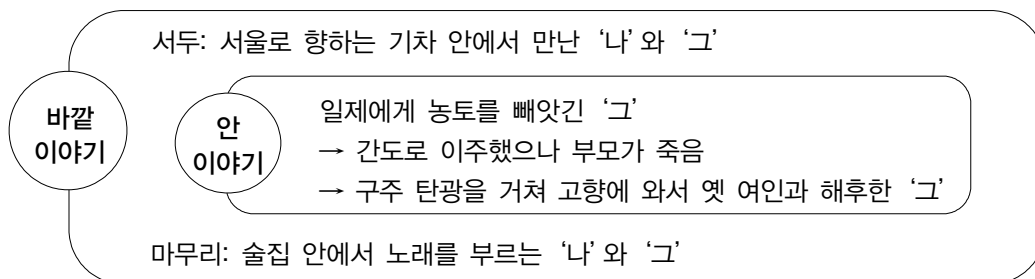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며 살아가는 '그'를 통해 식민지 시대, 수탈당한 조선 농촌의 모습과 비참한 조선 민중의 삶을 보여 준다. 사건의 내용에 신뢰감을 주는 액자식 구성으로 현실 폭로의 정신이 돋보이는 사실주의 소설이다. 결말 부분의 신민요 삽입, 상징법, 구체적인 외양 묘사, 사실적인 언어 구사 등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의 구조 -액자식 구성

이 소설은 액자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서두 부분에서 ‘나’와 ‘그’가 만나는 장면과 마지막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 사이에 주인공 ‘그’의 이야기가 내부 서사를 이루고 있다. 바깥 이야기는 안 이야기를 하기 위한 장치의 기능을 하며 실상 작가가 본격적으로 다루고자하는 이야기는 안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또한, 1인칭 관찰자 시점에 의해 서술함으로써 성격 창조의 초점은 ‘그’에게 집중되고 있고, 서술자인 ‘나’는 부수적 인물로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을 전달해 준다.



발단	서울행 기차 안에서 보게 된 ‘그’의 기이한 차림새와 호기심을 끄는 행동은 ‘나’의 주목을 끈다.
전개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의 사람됨과 대강의 사정을 듣게 된다.
위기	농토를 잃고 고향을 떠나 파란 많은 유랑 생활을 하던 ‘그’의 과거 이야기가 펼쳐진다.
절정	‘그’는 옛 연인과 해후(邂逅)하게 되지만 자신의 인생살이 못지않게 비참한 그녀의 인생 역정을 알게 된다.
결말	인생 이야기를 마친 그는 술에 취하여 노래를 흥얼거린다.

전체 줄거리

‘나’는 서울행 기차에서 기이한 옷차림과 행동을 보여 주는 ‘그’와 함께 앉지만, 못마땅하게 생각해 ‘그’를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그’에게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며 생활이 어려워지자 고향을 떠나 파란만장한 유랑 생활을 하다가 부모를 잃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또한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자신과 혼담이 있었지만, 부모에 의해 유곽에 팔려 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도 듣게 된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일제에 대한 분노와 현실에 대한 절망감으로 ‘그’는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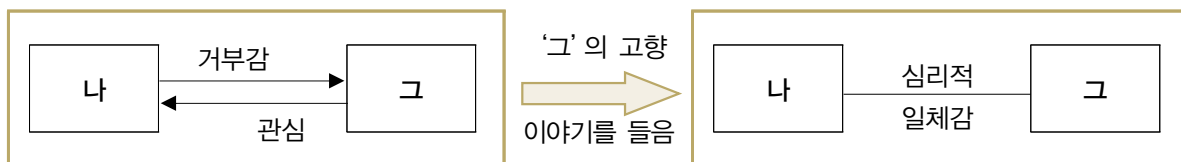
인물 분석

나 (관찰자)	‘그’와 우연히 한 열차에 동승하여 ‘그’를 관찰하고 ‘그’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	당대 지식인으로 초반에는 애써 현실을 외면하려 들지만, ‘그’의 이야기(한탄)를 듣고 조선의 현실을 재인식하고 ‘그’와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인물
그	외관상 말수가 많고 다소 천박해 보이는 인물	현실 순응적인 태도에서 현실에 대한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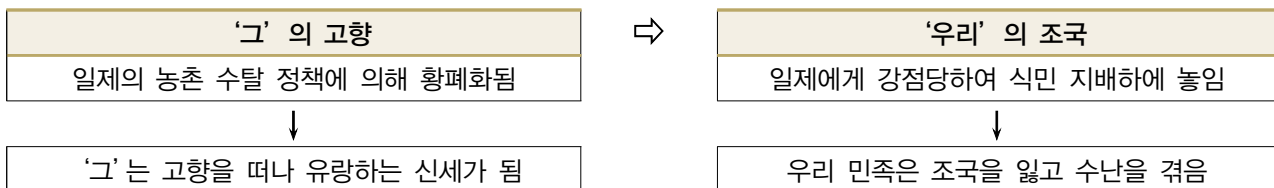
(주인공)	일제 치하에 농토를 잃고 유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인물	의식과 저항성이 나타나는 인물 (초반부에서는 현실 수용적인 나약한 인물로 그려지지만, 후반부에서는 미약하나마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저항성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 민족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그녀	농촌의 황폐화로 20원에 창녀촌(유곽)에 팔려간 여성	

소설 속 갈등 양상



‘고향’의 의미

‘고향’은 1920년대 일제의 농촌 수탈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황폐한 고향을 통해 생활 터전을 빼앗기고 유랑해야 했던 비참한 우리 민족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향’의 의미는 평화로운 농촌에서 폐허가 되어 버린 농촌으로, 단지 한국의 특정한 한 농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 후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에 의해 폐허와 같이 변모해 버린 한국의 국토 전체를 상징한다.



사실주의적 기법

「고향」은 사실주의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 폭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제의 수탈로 찌그러진 두 남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실적인 조선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마지막 결미의 노래에서 민족의 고뇌를 함축하고 있는 풍자를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 농촌을 배경으로 당대의 일반 민중, 특히 ‘하층민의 빈궁한 참상을 폭로하고 일제에의 저항’을 사실적인 표현 기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배경으로 읽어 읽기 - 일제의 농촌 수탈 정책

‘꽃나무는 심어 놓고’는 일제 강점기에 농토를 잃고 방황하는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농촌에서 소작농으로 살던 방 서방이 일제의 수탈을 이기지 못해 도시로 향하지만, 도시에서도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통해 비참한 현실을 보여 준다.

꽃나무는 심어 놓고 / 이태준

아무튼 김 의관네가 안성인가 어디로 떠나가고, 지주가 일본 사람의 회사로 갈린 다음부터는 제 땅마저
기나 따로 가진 사람 전에는 배겨 나가기가 어려웠다.
일제의 수탈로 인해 소작인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음

『텃세가 몇 갑절이나 올라가고 논에는 금비를 써라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거름, 화학 비료를 가리킴

하고, 그것을 대어 주고는 가을에 비싼 이자를 쳐서
벼는 헐값으로 따져 가고 무슨 세납 무슨 요금하고 이름도 모르던 것을 다 물리어 나중에 따지고 보면 농사
진 품값은커녕 도리어 빚을 지게 되었다.』 그들이 지는
『『』 일제가 우리 농촌을 수탈하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당시의 실상을 고발함
빛은 달리 도리가 없었다. 『소가 있으면 소를 팔고 집
이 있으면 집을 팔아 갚는 것밖에. 그래서 한 집 떠나
고 두 집 떠나고 하는 것이 삼 년 안에 오륙 호가 떠난
것이였다.』
『』 일제의 수탈 때문에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짐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사실적, 반어적, 비극적
배경	① 시간: 일제 강점기(1930년대) ② 공간: 어느 농촌 마을, 서울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일제 강점기 수탈로 인한 농촌의 해체와 민중들의 비극적 삶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일제의 수탈로 인해 해체되어 가는 방 서방네 가족의 삶을 통해 1930년대 농촌의 비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방 서방네는 농촌에서 소작농 생활마저 할 수 없게 되어 도시로 향하지만, 도시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의의와 평가

현진건은 ‘그’라는 인물을 통해 농촌의 황폐화된 모습과 수탈당하는 농민의 생활상을 고발하고 있으며, ‘그’의 옛 애인을 통해서는 식민지 여성의 수난상을 보여 주면서 일제의 식민 정책에 강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상징법과 구체적인 외양(外樣) 묘사, 어조의 변화 등에 의한 점층적인 성격 표출, 대화의 사용에 의한 효과적인 사건 서술, 노래의 제시를 통한 주제의 집약 등의 기법으로 광범위한 제재를 단편의 형식 안에 수용, 형상화하기에 성공했다. 특히, 작품 말미에 삽입된 민요는 이 소설의 주제 전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만, ‘그’에 대해 ‘나’가 지니는 동정적 태도가 너무 지나치게 영탄적 문체로 제시된 점은 서술의 미숙성과 함께 당대 사회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즉, 주관적 감정이 개입된 해설체의 문투가 가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작가 소개

현진건의 작품 경향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사실주의 계열로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전적 신변 소설, 하층민과 민족적 현실에 눈을 돌린 소설, 1930년대의 장편 소설과 역사 소설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전적 소설인 「빈처」·「술 권하는 사회」(1921)·「타락자」(1922) 등에서는 순수한 젊은이가 구체적인 생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좌절의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한 양심적 지식청년의 고민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둘째, 창작집 『조선의 얼굴』(1926)을 간행한 시기는 그의 의식이 자전적 세계를 벗어나 식민지의 민족적 현실 및 고통 받는 식민지 민중의 문제로 옮겨간다.

도시하층민의 운명을 추적한 「운수 좋은 날」(1924), 미숙한 성 의식(性意識)과 노역으로 고통 받는 농촌 여성을 그린 「불」(1925), 땅을 잃고 뜨내기 노동자로 전전하는 한 이농민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고향」(1926) 등은 1920년대 단편문학의 한 정점으로 기록된다.

셋째, 장편소설 「적도」(1933~1934)에서는 삼각관계의 연애소설 구조 속에서, 그리고 「무영탑」(1938~1939)·「흑치상지」(1939~1940, 미완)·「선화공주」(1941, 미완) 등에서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민족해방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보여주고 있다.



방 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인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다섯 명. 온 국민이 입도록 간편하고 경소하게 만든 옷(=국민복,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입음으로써 계복과 같은 기능을 하였음)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을 굳히고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 상태를 짐작할 수 있음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남한과 북한 중 한쪽을 선택하기를 강요 -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 상황 반영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뜻밖의 대답이므로

적국적인 회유의 움직임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 공산주의자들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평가

“중립국.”

명준 자신의 선택을 지켜 내려는 고집스러움 - 장교의 말에 내포된 거침을 깨닫고 보았기 때문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 『』: 명준이 받게 될 실질적 혜택을 제시하며 회유함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옴

→ 북측 설득자: 공산군 장교들은 실질적 혜택을 제시하며 인민 공화국(북한)으로 갈 것을 설득함

“중립국.”

장교의 강연이설에 동요되지 않는 명준의 모습 - 특정한 사회 체계에 대한 명준의 확멸감 양시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명준을 설득하지 못하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냄 내뱉었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 버렸다.

▶ 북측 설득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명준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중립국.” 남한과 유엔 측이 있는 곳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 보고 있었다.』 『』: 명준의 상상 장면이 이어짐.

“자넨 어디 출신인가?”

“.....”

“음, 서울이군.”

명준의 출신을 근거로 설득하려 함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기로.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국에 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이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구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를 강조하여 명준을 설득하려 함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설득자의 회유를 거절하려는 말 - 진정한 자유를 위해 중립국 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인물의 실정(결망 속에서 소극적·부정적 선택의 의미)

“허허허,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나라 내 민족의 한 사람이, 타향 만 리 이국땅에 가겠다고 나서니, 동족으로서 어찌 한 마디 참고되는 이야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남한 2천만 동포의 부탁을 받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조국의 품으로 데려오라는…….』”

「」: 민족애와 동포애를 강조하여 설득하고자 하는 모습

“중립국.”

“당신은 고등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명준과 같은 지식인이 필요함 → 남쪽 설득자: 이명준이 지식인임을 지켜서우며 조국애를 강조함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 버리겠습니까?”

“중립국.”

남한 사회에서 비파격 지식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명준의 인식을 보여줌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 버리겠습니까? 중기가 낮 지식인은 사회의 모순을 적시하는 눈이 있기 때문 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지식인이 저한 현실(조국)을 비유 현실 속에 존재하는 문제를 비유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명준이 지닌 지성을 강조함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돼 주십시오. 낯선 땅에 가서 고생하느니, 그쪽이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지 마십

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 개인적 호감을 드러내어 감정에 호소하려 함 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준은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남쪽의 설득에 대한 거절을 암시함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명준의 상상 장면임을 알 수 있게 함

“중립국.”

설득자의 회유를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말 -명준은 자신의 선택을 굳힐 의지가 있음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톡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긐하고 웃겠지.

▶명준을 설득하다가 포기하는 남쪽 설득자들에 대한 상상

나오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 위에 놓인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



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찔끔찔끔 번지고, 침이 걸려서 책책거리면서도 그의 웃음은 멎지 않았다.

양가적 감정

①자조: 허구적 이념과 분단 현실로 인해 계상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②냉소: 분단의 이데올로기와 부조리한 정치 현실

핵심 정리

갈래	장편 소설, 관념 소설, 분단 소설, 사회 소설
성격	회고적, 독백적, 관념적
배경	① 시간: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 종전까지 ② 공간: 남한과 북한, 타고르 호 안(인도양)
배경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
특징	① 남북 분단의 이념적 문제를 다룸 ② 광장과 밀실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사용함 ③ 부분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함
출전	「새벽」(1960)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전쟁 전후의 혼란 속에서 남과 북을 오가면서 진실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삶의 방향 등에 대한 모색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분단과 이념 갈등, 개인과 사회의 이상적 관계, 사랑을 통한 인간 구원의 문제 등 묵직하고 심오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독백, 철학적인 논쟁, 추상적인 사색 등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주인공은 남과 북 어디에도 진정한 인간의 삶을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제3국을 선택하지만, 끝내 바다에서 자살하고 만다. 그의 죽음은 이념 갈등 속에서 결국 좌절하고 마는 한 지식인의 비극으로, 이를 통해 작가는 이념 선택의 한계와 분단 상황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의 구조**

발단	대학에 재학 중인 이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후 월북을 결행한다.
전개	북한에 도착한 이명준은 막상 북쪽 사회를 체험하자 그들이 내세우는 이상과는 달리 왜곡된 이념과 부자유만 있음을 알게 된다.
위기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으로 종군하게 된 이명준은 사랑하는 여인 '은혜'와 극적으로 헤어하나 그녀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포로가 된다.
절정	포로 수용소에서 석방될 때 이명준은 제3국을 선택한다.
결말	제3국인 인도로 향하는 타고르 호에서 이명준은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하고 만다.

전체 줄거리

대학생 명준은 아버지의 월북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끝내 월북을 감행한다. 하지만 명준은 이념의 왜곡으로 인해 온갖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는 북한 사회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된다. 6·25 전쟁에 인민군으로 참전한 명준은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정전 협정에 따라 전쟁 포로들에게 체제 선택의 기회가 생기자 명준은 관련 인물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제삼국을 선택하여 타고르호를 타고 인도를 향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의 분단과 이념의 대립이 지닌 허구성을 깨닫고, 회의에 빠져 있던 명준은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게 된다.

인물 분석

이명준	▪ 철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 진정한 광장을 찾아 월북을 할 정도로 이상주의자이지만 결국 이념의 허상에 좌절함 ▪ 여인과의 사랑에서 돌파구를 찾는 낭만적 성격도 있음
이형도	▪ 명준의 아버지 ▪ 월북한 혁명가
윤애	▪ 명준의 남한 애인 ▪ 명준의 월북 후 명준의 친구인 태식과 결혼함
은혜	▪ 명준이 북에서 만난 여인 ▪ 북한군 간호 장교로 종군하여 명준의 아이를 뱀 채 낙동강 전투에서 죽음

소설 속 갈등 양상 - '이명준'의 모색과 절망

	현실 인식	삶의 방향 모색
남한	타락한 자본주의, 지나친 개인주의 현실에 환멸 (밀실)	광장(이상적 사회)을 찾아 월북
북한	집단적 강제성, 폐쇄된 사회에 절망(공허한 광장)	사랑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함



전쟁	▪ 은혜가 전사함 ▪ 전쟁 포로가 됨	남북 모두 실망하여 중립국에서 이상 사회를 찾 고자 함
중립국행	▪ 삶의 의미가 없음 ▪ 바다가 진정한 이상적 광장임	자살

‘중립국’의 의미

‘명준’은 북한 측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중립국을 선택한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진정한 삶을 추구할 수 없음을 깨달은 ‘명준’이 이념의 갈등이 없는 ‘중립국’을 선택함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정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중립국	▪ 이념(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없는 공간 ▪ 인간의 진정한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 아닌, 단지 이념이 배제된 공간
-----	---

‘밀실’과 ‘광장’의 의미

광장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념을 추구하면서도 바람직한 사회 건설을 위해 토론하고 실천하는 공간 ▪ 사회적 삶의 공간 ▪ 공동체의 이념 추구	밀실 개인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공간 ▪ 개인적 삶의 공간 ▪ 개인적 자유 중시
남한의 ‘광장’ 독재를 민주주의로 위장하여 사리사욕만 채우는 부패한 권력층이 권력을 쥐고 있는, 서구적 자유의 껍데기만 가득 차 있음 ▪ 타락한 자본주의 ▪ 개인적, 이기적인 삶 ▪ 광장의 부재(밀실)	북한의 ‘광장’ 혁명이라는 허울 속에서 진정한 혁명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조차 보장하지 않는 이론 속의 혁명만 가득한 광장 ▪ 폐쇄성 ▪ 집단적 강제성 ▪ 밀실의 부재(개인의 자유가 없는 공허한 광장)

주인공 이명준은 ‘광장’과 ‘밀실’이 조화를 이룬 삶을 추구하지만, 극단의 이념이 지배하는 남북에서는 그러한 바람이 성취될 수 없음을 깨달음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 ▪ 남한과 북한 모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공간 ▪ 남북의 이데올로기가 모두 허구적임을 비판
--

설득자의 말하기 방식

**1. 북한 측 설득자의 말하기 방식 [명준의 경험: 현재]**

북한의 설득자는 '명준'이 북한으로 돌아오도록 회유하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의 부정적 측면을 말하고 있다. 또한 북한으로 올 경우에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함으로써 '명준'을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설득자는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남한 측 설득자의 말하기 방식 [명준의 상상]

남한 측 설득자는 '명준'이 서울 출신임을 들어 조국애를 강조하며 회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과도기적 모순을 지니고 있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부탁하면서 남한에 오는 경우, 자신이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남한 측 설득자는 감정에 호소하여 '명준'을 설득하는데, 이는 앞의 북한 측 설득자의 말하기 방식과 대비를 이룬다.

상황으로 엮어 읽기 -선택의 기로**유예 / 오상원**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소. 출신 계급을 탓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뿐이오.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한 시간 후,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를 거요.

몽롱한 의식 속에 갇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한 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는 눈, 그리고 따발 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 서 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 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이 마음속에 삼삼히 아른거린다. 한 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의 독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심리 소설, 전후 소설
성격	독백적, 실존적, 비판적, 고발적
배경	① 시간: 한국 6·25전쟁 당시의 겨울. 한 시간이라는 삶의 유예 기간인 현재에서 출발하여 과거미래를 거쳐 총살 직전의 현재. ② 공간: 어느 산골 마을의 눈 덮인 들판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혼용됨/주인공의 자의식이 깊어질 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뀜.→독백 부분)
사상	실존주의 문학 사상
기법	의식의 흐름
문체	간결체
주제	①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뇌와 죽음.(전쟁의 비인간성.) ②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말살시키는 전쟁의 비극성(잔인성)에 대한 고발
특징	① 이야기 구조보다 내면 의식을 강조함 ②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서술함. ③ 필요에 따라 서술 시점이 교차됨 ④ 서술 위주의 짧은 현재형 문장을 사용함.

두 작품의 비교

‘유예’는 국군 소대장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나’가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어 처형되기 직전의 극한 상황을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나’는 인민군이 국군을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인민군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끝내 전향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나’는 제삼국을 선택한 ‘광장’의 ‘명준’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이 확고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광장’에서 전쟁 포로가 된 명준은 남과 북에 모두 환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제삼국을 선택하지만, ‘유예’에서 주인공 ‘나’는 전쟁의 참상과 인민군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전향을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공간: 장상태와 명종이 대화하는 공간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끝났다. 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온 장상태의 표현을 빌자면, 열리면서 끝났다는 것이다.』 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준비위원회 - 계복 제도 도입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요식적인 결과
(결정을 사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달함)

사복은 춘하와 추동 2종으로 구분하되 공히 상의에 한한다. 춘하복은 추후 결정기로 하고 우선 추동복만을 제정한다. 추동복은 본사 제조의 검정 곤색 순모 복지를 기지로 하여 사파리를 신사복에 가깝게 변형 개조한 특이한 복식을 취하되 회사 심벌마크와 회사명을 좌측 포켓 위에 황색 자수로 부착한다. 착용 대상은 직위의 고하를 막론한 전 사원이며 일제 맞춤에 한하여 경비의 반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이후부터는 각자가 전담한다. 추동복은 빠른 시일 내에 회사가 지정하는 양복점에서 지정된 일자에 출장 나와 재도록 하여 창업기념일의 일제 착용에 차질이 없도록 피차간에 긴밀히 협조한다…….

“사원들을 대표해서 준비위원들이 한 역할은 뭐지?”

명종: 준비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달리, 사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음
준비위원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음

“그렇게 추궁조로 나올 일만은 아냐. 아마 명종이 자네가 참석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야.”

장상태: 명종의 추궁에 명종이 준비위원회에 참석해도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며 변명함

『“내가 참석하는 걸 가정하는 경우하고 자네가 실제로 참석한 경우를 같은 차원에다 두고 결과를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야. 준비위원들을 통해서 사원들 의견을 알아본 다음 그걸 취합해서 원칙을 정한다는 약속이었어. 그런데 건의할 틈도 안 주고 비상을 걸 듯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일방적으로 전격 통과시키다니, 말이 다르잖아!”』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회사에서는 준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으로 사원들의 제복을 맞추지만 민도식과 우기환은 제복 맞추는 것을 거부한다. 이에 사장은 두 사람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다.

공간: 사장실

“아주 좋은 말을 했어. 하지만 그건 일이 실천에 옮겨지기 전에 했어야 할 얘기야. 대다수 사원들 지지를 얻어서 실천 단계에 들어선 지금은 사정이 달라. 그리고 기업 발전에 단결력이 중요하냐 창의력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자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야. 또 『제복을 입었다고 어제 는 있던 창의력이 오늘 짝 죽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어. 민 군, 자네는 일찍이 제복 제도를 도입한 K직물이 창의력 없이 그저 눈감땡감으로 오늘날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냐?』”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K직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잠자코 있던 우기환이가 불쑥 말했다.

“호오, 그래? 어떻게 다르지?”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할 때는 뭔가 그 이상의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계복 도입에 대한 보상 요구 - 보상도 없이 제도적 장치에 따른 희생을 강요하던 당대 현실과 시민들의 불만 반영



면에서 K직물의 기업 정신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이때 옆방이 다소 소란해졌다. 사장실 도어 저쪽에서 여비서가 누군가하고 들어가겠다느니 안 된다느니 하면서 실랑이하는 눈치였다.

그 소리를 듣더니 사장의 낯빛이 짙 달라졌다.

“자네들이 이러지 않아도 난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우군이 K직물을 동경하는 그 심정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을 동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하고 자네들도 적극 협조해야 되잖겠나. 그동안을 못 참아서 협조할 수 없다면 별 수 없지. 이런 일엔 누군가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회사 전체의 운영 방식에 사원들의 복종을 강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희생이 되죠. 피고용자한테도 권리는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 계복 입기를 거부하려면 회사를 그만두라는 의미 우기환: 계복 제도에 협조할 수 없다며 사장의 말에 반발 맘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제 맘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기환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도어를 향해 갔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사장실을 나서는 우기환이와 엇갈려 웬 사내가 쭉뚱하게 뛰어들었다. 다방에서 두 번 본 적이 있는 생산부의 잡역부 권씨였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자리를 비키라는 무언의 모습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 달라는 권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 두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어서 오게, 권 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권씨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채 닫히기 전에 사장의 꺾꺾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공간: 민도식의 집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반데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구 아침 일찍 출근했다구요.”

민도식의 아내: 장 선생 부인과의 통화 언급 - 민도식의 출근을 유도하기 위한

아내의 바가지 굵는 소리로 창엽 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계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아내: 사표를 던졌다는 총각 사원처럼 남편이 계복에 반대하며 농장을 피우다가 회사에서 쫓겨날지 모른다고 생각함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공간: 행사장**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옴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불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전지적 작가 시점 - 민도식의 내면 심리 서술

외제와 해사 등으로 의식이 통제당하는 국민들과 1970년대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때를 지음, 무리를 이룸(=작당)

민도식이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

『』: 민도식은 자신이 체육대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사원들이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체육대회 개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함

핵심 정리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배경	① 시간: 1970년대 ② 공간: 어느 중소기업
주제	① 사복 제정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 ② 국민들을 획일화하고 통제했던 1970년대 독재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
특징	① 대화를 중심으로 한 극적 구성 ② 인물들 간의 미묘한 감정 차이가 드러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동림산업에서 제복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국민들을 획일화하고 통제했던 1970년대의 국가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서술자는 사장이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제복 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가장하여 국가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현실, 제복 착용을 통해 국민들을 획일화하면서 개성을 말살하는 국가 권력의 제도적 장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편 제복 착용에 반발하던 사원들이 결국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 현실의 부당함에 대한 의식은 있으나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시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줄거리

동림산업은 제복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통해 제복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다. 민도식, 우기환 등의 직원들은 제복 제도 도입에 대해 불평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지만 준비위원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제복 제도를 통과시킨다. 결국 준비위원회의 결정대로 직원들은 제복을 맞추지만 민도식과 우기환은 제복을 맞추지 않는다. 사장은 제복 제도를 반대하는 민도식과 우기환을 불러 면담을 하고 우기환은 제복 도입에 불복하여 회사를 그만둔다. 동림산업에서는 회사 창업기념일 행사에 제복을 입기로 한다. 제복을 입기 싫은 민도식은 늑장을 피우다가 행사 장소에 뒤늦게 도착한다. 민도식은 전 사원이 제복 차림으로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는 모습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다.

인물 분석

사장	회사의 권력층으로, 사복 제정 방침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인물
민도식	사복 제정 반대 의견에 끝까지 따르다 혼자만 사복을 입지 않게 된 순진한 인물
우기환	회사의 사복 제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다 이에 불복하고 회사를 떠나는 인물
권씨	생산부 작업 인부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앞장서서 싸우는 인물

소설 속 갈등 양상

정상태	제복 제정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름	현실에 순응
민도식	제복 제정에 반대하지만 창업 기념일 행사에 참가하고, 제복을 입은 다른 직원들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함	현실과 갈등
우기환	제복 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제복이 제정되자 회사를 떠남	현실에 불응

개성과 자유의 억압을 상징하는 ‘제복’을 통해 불합리한 권력층에게 개인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옷(제복)’은 사람들의 자유투과 개성을 구속하는 상징물로 드러난다. ‘제복’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불합리한 권력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양상은 다양하다.

대부분 직원들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당연히 순종하게 되고, 우기환 같은 인물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하지만 권력의 힘에 의해 쫓겨나게 된다. 민도식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대응하려고 하지만 창업 기념일에 출근함으로써 어정쩡하게 대응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목의 의미

제목 「날개 또는 수갑」에서 ‘날개’는 자유로움을 의미하며, ‘수갑’은 구속이나 속박을 의미한다. 사복을 ‘날개’, 직원들의 제복을 ‘수갑’에 비유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복 제정은 사원에 대한 통제, 자유와 억압, 개성 말살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 현실과 불합리한 권력층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써 1970년대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사회적 배경

1970년대 국가 권력은 국가 발전의 명목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개인의 희생, 규율과 복종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하여 국민을 획일화시키면서 통제하기 위한 각종 의례나 행사의 시행, 제복의 착용, 야간 통행금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동원하였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은 물론, 국가 폭력에 의한 개인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나'의 시각으로
어머니에 대해
서술

머리 숙이고 있던 나는 눈을 조금 치켜떠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속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아직 마흔 살도 안 된 나이에 어머니는 노인티를 내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고생 때문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나서 서너 해 사이 나이를 곱절로 먹은 듯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에 물코를 풀곤 말을 이었다.

“길남아 너는 앞길이 구만 리 같은 창창한 세월이 남았잖나. 그러이 지금부터라도 악심 묵고 살아야 하는 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서 니 장래는 두 가지 길밖에 읊다. 한 가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배운 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 평양댁 정민이 학생 바라. 아버지 읊이 저거 엄마가 군복 장수 해도 공부를 열매나 잘하노. 위체 학생 둘 가르쳐서 번 돈을 가용에 보태고, 열두 시 넘이까지 호롱불 켜 놓고 자기 공부를 안 하나. 그러이 반장하고 늘 집안 살림에 드는 비용 일등이라 안 카나. 정민이 학생 가는 반드시 판검사나 대학교 교수가 될 기다. 또 한 가지, 니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 넘고 이기는 길은, 어머니가 '나'에게 신문을 받아서 팔아 보라고 권유한 이유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어 경험을 많키 쌓는 길이다. 재주 읊고 공부하기 싫으로 부지런키라도 해야제. 군명·성실해야 항을 강조 준호 아버지는 한 팔이 읊어도 묵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나. 남자는 그렇게 밥숟가락 놓자마자 밥상을 걸터 넘고 나서서 부랄이 요령 소리 나도록 뛰댕겨야 제 식구를 먹이 살린다. 그러이 내 하는 말인데, 니도 이렇게 긴 해를 집에서마 보내기 오직 심심하겠나. 그래서 내가 궁리를 짜낸 끝에 그 돈을 니한테 주는 기다.”

“이 돈으로 뭘 우째 하라고예?”

나는 어리둥절하여 손에 쥔 돈을 내려보았다.

“길남아, 그 팔십 환으로 신문을 받아서 팔아 바라. 신문 팔아 돈을 열매만큼 벌는 기 문제가 아이라, 니 힘으로 돈벌이해 보모 돈이 열매나 귀한 줄 알 수 있을 끼다. 이 세상의 쓴맛을 알라 카모 그런 갱험이 좋은 약이 될 테이께. 초년고생은 돈주고도 몬 산다는 속담도 있느니라…….”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웅이 박힌 말이였다.

'나'가 가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심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 그 말쑤은, 입학기가 지난 뒤 나를 대구로 불러올렸을 때 이미 예정해 둔 계산임이 분명했다. 시골서 내놓은 망아지로 지내며 초등학교나마 근근이 마치고 올라왔으니 한 해 동안 도시 물질이나 익히게 하며, 제가 벌어 '나'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전, 대구가 아닌 곳에서 머물며 초등학교를 마쳤음 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게 해 주자.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해 두었고, 내 '나'에게 신문팔이를 시킨 것 가 신문팔이 하라고 '나'에게 말함 대구시로 나온 지 열흘 쯤 지나자 드디어 실행의 용단을 내렸음에 틀림없었다. 나는 돈 팔십 환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어른이 된 이후의
'나'의 시각으로
어머니의 의도에
대해 서술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덩 그 돈으로 차비 해서 다시 진영으로 내려가 술집 중노미가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니 마음대로 해라.”
음식점, 여관 따위에서 러드랭일을 하는 남자

어머니의 아귀찬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끓이고, 어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을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셨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대리자 역할을 강요하는 모습에서 기인함
(중략)

“누부야는 좋겠다. 어무이하고 길중이 사이에서 누버 자이. 나는 진영에서 늦게 왔다고 젤로 추븐 바람벽 앞에다 재우이께 손해만 본다.”

내가 구시렁거렸다.

“니는 이 집안 장자 아인가. 니가 참아야제.”

가장 안쪽에 누운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도 그렇지예.”

나는 말꼬리를 감추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힘든 일은 내게 시키고 그 이유는 이 집안 떠돌이를 장자란 데 있었다. 나는 장가를 간 뒤에까지 때때로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자식이 아니면, 아버지가 다른 여자로부터 나를 낳아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매질만 해도 어머니는 내게만 유독 극악을 떨었고, 어렵고 힘든 일은 여투어 두었다 내게 맡겼다. 나 혼자 진영에 떨어뜨려 둔 것도 당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았고, 대구로 올라왔으나 학교에도 보내 주지 않고 신문팔이를 시킨 일도 따지고 보면 서럽지 않을 수 없었다.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어(여기서는 '모아 두어'의 뜻으로 쓰임)
서운함을 느낌 /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어머니가 부성적인 면을 더 보여주었기 때문임

[중략 부분의 줄거리] 주인집은 아래채와 바깥채에 세를 주고 있는데, 아래채에 살던 ‘나’의 가족은 방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갑자기 방을 비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니는 바깥채로 들어오기로 한 정 기사에게 세 들어오는 것을 봄 때까지만 미루고 ‘나’의 가족이 바깥채에 살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한다. 어머니는 정 기사에게 다달이 돈을 주기로 하고 봄 때까지 바깥채에서 살기로 한다.

“길남아, 니 아버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런 설움 당하겠나. 여자 혼자 바느질해 묵고 산다고 정 기사가 사람 깔보는 거 바라. 백 환만 깎아 달라 캐도 백도 없다 안 카나. 일주일 안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팡팡 큰소리치이, 내가 그 남정네를 우에 상대하겠노. 심지 뽑기만 해도 그렇제.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은 이 엄동에 이사 갈 처지가 몬 되이 심지 뽑기를 안 하겠다고 내가 울며불며 말했는데, 주인집 안들(여자)은 나무 딜라 놓으라 칼 때 말은 깎뵈 잇어뵈는지 들은 척도 않더라. 아니나 다를까, 반대한 내가 마 마지막 남은 쪽지를 쥐고 말았제. 길남아, 길은 오직 하나데이. 니가 크야 한다. 질대(왕대)같이 얼렁 커서 튼튼한 사내 구실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혼자 살아

아버지(가장)의 역할을 강요하는 어머니의 말씀



온 이 에미 과부 설움을 풀 수가 있다.”

어머니 말씀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이다음에 어른이 된다고 모든 경쟁 상대로부터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다. 나는 신문팔이와 신문 배달을 통해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눈치로 터득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만큼 이기적이며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 일찍 알아 버린 셈이었다. 어머니 말처럼 장차 내가 집안 의지 기둥이 되려면 남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러자면 정직과 성실만으로는 어렵고 실력·체력·노력, 거기에 탐욕·교활·언변 따위까지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도무지 어머니의 그 맺힌 한을 풀어 드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여자로 변할 수 없다면 어서 세월이 흘러 머리 허영게 센 노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 아침 어머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였다.

핵심 정리

갈래	장편 소설, 전후 소설, 성장 소설
성격	① 시간: 1950년대 중반 ② 공간: 대구 장관동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한국 전쟁 이후, 서민들의 힘겨웠던 삶의 모습
특징	① 작가의 전후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 ② 전쟁의 상처를 겪으면서 성장해 가는 14살 소년의 성장담을 서술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한국 전쟁 직후 대구의 '마당 깊은 집'에 세 들어 살면서 힘겹게 보낸 세월을 회상한 자전적 소설이다. 고향 진영에서 남의 집에 얹혀 지내다가, 대구로 와서 셋집에 있던 어머니와 누이, 두 남동생과 합류한 길남이는, 위채의 주인집 이외에 아래채에 세 들어 살던 네 가구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작가는 소년 길남의 눈을 통해, 이 사회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정밀히 묘사하여,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작용하는 일상적 삶의 파탄과 왜곡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게 드러나는 데, '어머니'는 남편이 없는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 가족을 이끌어 가는 강한 면모를 보인다.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은 '나'를 억압하면서도 '나'가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작품 속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편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마당 깊은 집'은 전후의 피폐함이 존재하는 어두운 공간이면서도, 그 속에는 서로가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결코 마멸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따뜻한 인간적 온기를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작품의 구조**

발단	가족과 멀리 떨어져 고향 장터 주막에서 불목하니 노릇을 하던 '나'가 가족들과 재회하여 대구의 '마당 깊은 집'에서 살게 된다.
전개	중학교 갈 시기를 놓친 '나'는 어머니의 요구로 신문팔이에 나서지만 배고픔을 참지 못해 위채에서 밥 도둑질을 한다.
위기	장작 패기 등 궂은일들만 도맡아 시키며 장자의 역할만 강요하는 어머니를 '나'는 원망하고 야속하게 생각하게 된다.
절정	위채의 부유한 삶을 동경하던 '나'는 그곳에서 열리는 파티를 구경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어머니에게 크게 혼난 뒤 가출을 한다.
결말	'나'의 막내 동생 길수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수막염으로 죽고, '마당 깊은 집'을 양옥으로 신축하겠다는 주인의 말에 따라 아래채에 살던 식구들은 모두 그곳을 떠나 흩어진다.

전체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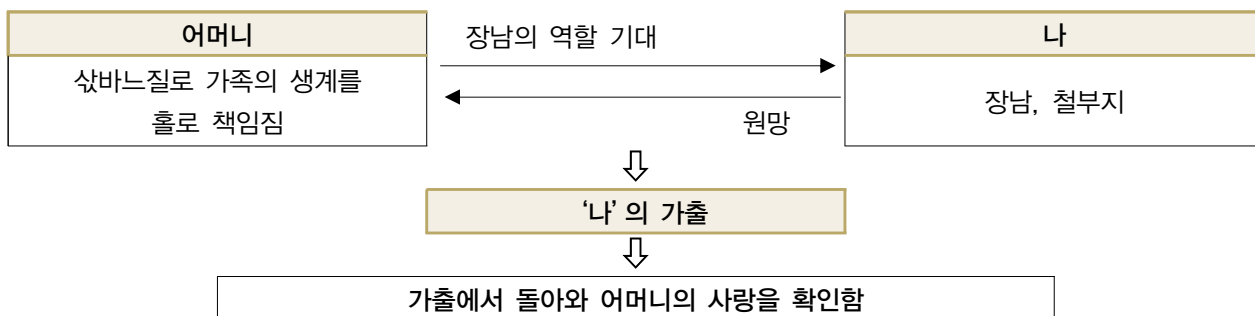
'나'는 시골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중노미로 살면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 대구 장관동의 '마당 깊은 집'에서 세 들어 살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이 집에는 '나'의 가족 외에 6·25전쟁으로 피란 온 두 가족과, 상이군인 가족이 세 들어 살고 있다. 어머니는 '나'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엄하게 기르는 한편, 중학교 입학이 미뤄진 '나'에게 신문팔이를 시킨다. 늦가을 주인집은 세를 든 가족들 중 한 가족을 내보내기로 하는데 '나'의 가족이 제비뽑기에서 뽑힌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한겨울에 이사 가기가 어려운 어머니는 새로 들어오기로 한 정 기사와의 계약으로 '마당 깊은 집'에서 계속 살게 된다. 3월 말에 집주인은 세를 주었던 곳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하여 세 들어 살던 가족들은 모두 흩어지게 된다.

인물 분석

나	▪ 고향인 진영에서 살다 전쟁 후 대구로 와 가족과 함께 마당 깊은 집에서 지냄 ▪ 홀로 고생하며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와 갈등을 빚지만 가출 사건 이후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함
어머니	▪ 남편이 전쟁 중 월북하여 샅바느질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함 ▪ 어린 길남을 장남으로 키우느라 혹독하게 대하여 갈등도 있지만 가출 사건을 계기로 아들과의 사랑을 확인함



소설 속 갈등 양상



제목의 의미

‘마당 깊은 집’에 사는 여섯 가구는 6·25 전쟁 이후 대구, 부산 등지에서 전개된 피란민의 삶을 대변한다. 거기에는 피란민의 삶의 양태가 골고루 나와 있다. 경기택의 딸 미선이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미군과 결혼하고 도미하게 되는 일, 상이군인 준호 아버지가 고무पाल에 쇠갈고리를 달고 다니며 행상을 하는 일, 평양택 아들 정태가 월북 미수로 체포된 일, 그리고 소년 길남의 어머니가 기생들 바느질 품팔이로 살아가는 일 등의 삶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삶은 모두 6·25 전쟁 이후 피란민 생활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삶은 모두 전쟁으로 인해 불구가 된 삶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마당 깊은 집’은 전후 시대의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 시대의 삶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당시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공간적 배경의 의미



이 글의 공간적 배경인 ‘마당 깊은 집’은 한국 전쟁 이후 대구의 장관동 셋집에서 피란살이를 하던 ‘나’의 유년 시절 추억의 공간이다. 그 집은 부유한 주인집 사람들이 살던 위채와 ‘나’의 가족들과 같은 피란민 네 가구가 함께 살았던 아래채로 이루어져 있다. 그 네 가구는 ‘나’의 식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연백에서 피란 온 경기택의 세 식구, 퇴역 장교 상이군인의 세 식구, 평양에서 피란 온 평양택의 네 식구 등이다. 이처럼 ‘마당 깊은 집’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의미를 넘어 출신과 구성, 직업이 서로 다른 스물두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회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어린 소년인 ‘나’의 눈에 비친 두 세계는 이질적이다. 먹을 것이 없어 토사물 닮은 걸레까지 훑아 먹어야 했던 가난한 아래채 사람들의 삶과 기름진 음식들을 즐비하게 차려 두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위채 사람들의 풍족한 삶은 두 공간의 수직적 간격만큼이나 다르다. 이 글은 바로 그 작은 사회 속에서 전쟁의 상흔과 싸워야했던 이들의 신산스러운 삶의 모습을 통해 전쟁 직후 고단하고 곤궁했던 우리 이웃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내고 있다.

갈래 이해하기 -성장 소설의 특징

‘나’는 중학교에 입학할 나이인데도 편모슬하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대신 신문 배달을 하며 집안의 살림을 돕는다. 꿈 많은 유년 시절임에도 전쟁으로 인한 가난에 허덕이다 허기를 참지 못해 주인집의 밥 도둑질까지 하고, 엄격한 어머니의 훈육 방식에 반발하여 가출을 한다. ‘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세상의 냉혹함을 배우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또한 ‘나’는 ‘마당 깊은 집’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삶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전쟁’과 ‘아버지의 부재’라는 현실적 시련들을 겪으면서 내면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러한 통과제의를 거쳐 비로소 어른들의 세계에 편입하게 된다.

배경으로 읽어 읽기 -6·25전쟁

초토의 시 1 / 구상

판자집 유리 딱지에 / 아이들 얼굴이
물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 어둡고 절망적인 이미지 ○: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창문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 → 전쟁의 비극성 부각
1연: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도 천진난만한 아이들
내리쬐이던 햇살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화자의 실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상(화자의 분신)
(참담한 현실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자괴감과 비애감)
2연: 조국의 아픔에 대한 비극적 역사 인식
어느 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갯머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망울이 생겼다
3연: 갯머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개나리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역동감(새 삶에 대한 희망)
소녀의 미소엔 앞나가 빠져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과 무관한 순진무구한 소녀의 모습
죄 하나도 없다.
4연: 순수한 소녀의 아름다움과 희망찬 미소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흥겨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개나리, 소녀의 미소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낌
(화자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현실 인식의 표현)
5연: 비극적 현실의 극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민족적
주제	전쟁의 참상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 기대
특징	① 사물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함 ②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냄 ③ 시상의 전환을 통해 주제를 부각함

두 작품의 비교

‘초토’란 ‘불에 타서 검게 그을린 땅’이란 뜻으로 전쟁으로 참화를 겪은 우리나라를 의미한다. 화자는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제목의 이중적 의미

‘초토의 시 1’은 6·25 전쟁 후의 비참한 생존의 현장을 배경으로 현재와 미래, 어른과 아이, 어둠과 밝음의 대립이 부딪히고 극복되어 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판자집’에서 보듯 비참한 생활은 ‘마당 깊은 집’의 시대적 배경과 ‘나’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 유사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킁킁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돌려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 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서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죠?”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구멍 뼈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은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 공동묘지의 필요성 - '나'의 현실주의적 관점이 드러남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 일제의 공동묘지 정책에 대한 의구심

“그리구서나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당대 사람들이 지닌 전근대적 가치관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고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서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엇에 쓴다는 말이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 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만,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 묘지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만,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 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레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무슨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 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 스는 줄은 모른다구, 깎살릴 것 다 깎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르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깨물이나 기회 따위를 놓치지 다 없앨』”



우리 민족의 낡은 인습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근대적 지식인의 모습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얼빠진 늙동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 ‘나’는 공동묘지 방문 반대하는 조선인들에 대해 현실을 돌아보지 못하고 인습에 집착한다고 생각함』

▶ ‘나’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장동백이와 공동묘지에 대해 대화를 나눔
(전근대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조선인의 모습을 깨달음)

(중략)

나는 하도 심심하기에 모자를 집어 쓰고 차에서 내려서 플랫폼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다.
그 동안에 눈이 서너 치나 쌓인 모양이다. 지금은 뜸하나 뼈에 저린 밤바람이 모가지를 자라목처럼
오그라뜨리었다.

맨 끝에 달린 찻간 앞까지 오니까 불을 환하게 켜 차장실 속에 얼굴이 해끄무레한 두 청년이 검
정 방한모에 소매통이 좁은 옥색 두루마기를 입고, 누런 양복을 입은 헌병과 마주 서서 웃으며 이
야기를 하는 것이 환히 보이었다. 얼굴 모습이 같은 것을 보면 두 청년은 형제 같고, 헌병 가슴에
권총을 단 줄이 늘어진 것을 보면 보조원이 아니요 이것이 분명하다. 나는 창 밑으로 가까이 가
보니까 세 사람은 여전히 웃으며 무어라고 속삭거린다. 그러나 그 청년들의 어설픈 웃는 낯빛과
입술이 경련적으로 위로 뒤틀린 것은 공포 그것 같았다.

헌병 앞에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두 청년(우리 민족)에 대해 ‘나’는 안타까움과 조선인으로서의 치욕감을 느낌
‘스파이는 아니군!’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는 발길을 돌이켜 목책으로 막은 입구 앞으로 가서 내 손으로 열고 나
갔다. 아무도 막지 않고 좌우편으로 눈발이 쳐들어오는 횡행그레한 속으로 한가운데에 난로탑시고
놓고 그 가에 웅기중기 사람들이 모여 섰다.

‘대합실도 없이 이런 별판에 세워 둘 지경이면 어서 찻간으로 들여보낼 일이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난로 옆을 훑듯 보려니까 결박을 지은 범인이 댕 사람이나 오르르 떨며
나무 의자에 걸터앉고, 그 옆에는 순사가 셋이서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무심코 외
편을 하였다. 그 중에는 머리를 파발을 하고 땃덩이가 된 치마저고리의 매무시까지 흘러내린 젊은
여편네도 역시 포승을 지어서 앉아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지 나를 부러워하는 듯한 눈으로 물끄러
미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자세히 보니 등 뒤에는 썩썩 자는 아이가 매달렸다. 여자의 이런
꼴을 처음 보는 나는 가슴이 선뜩하며 멀거니 얼이 빠져 섰었다. 나는 흉악한 꿈을 꾸며 가위에

눌린 것 같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한참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렸다.
정거장 문 밖으로 나서서 눈을 바삭바삭 밟으며 큰 길거리로 나가니까 칠 년 전에 일본으로 달
아날 제 오정 때 대전에 내려서 점심을 사 먹던 그 집이 어디인지 방면도 알 수 없이 시가가 변하
였다. 『길 맞은편으로 쪽 늘어선 것은 빈지를 들었으나 모두가 신축한 일본 사람 상점이다. 우동을
파는 구루마가 찢렁찢렁 흔드는 요령 소리만이 괴괴한 거리에 처량하다. 열네다섯썩에 말도 모르

정오, 낮 12시

도시의 큰 길거리, 인가(人家)나 상가가 많이 늘어선 거리

‘나’가 ‘큰길 거리’에서 처량함을 느끼는 이유①



‘나’가 ‘군길 거리’에서 처량함을 느끼는 이유②

고 단신 일본으로 공부 간다는 데에 호기심이 있었던지 친절히 대접을 해 주던 그 때의 그 주막집 주인 내외가 그림다.』

『』: 동일한 공간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인물의 심리를 부각함

다시 돌려 들어오며 보니 찻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엷은 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젖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 줄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앓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땀살맸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다. 나는 까닭

땀살스럽다(보기에 말이나 행동이 남에게 몹시 미움을 받을 만한 데가 있다)

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우리 민족의 복잡한 처지로 인해 느끼는 ‘나’의 서러움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앓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헤에’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올라 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생기가 없음

무기력함

비굴한 태도

연민과 반감이 교차함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똥져 버려라!’

‘나’의 혼잣말 - 식민지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태도

찻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일제 강점하의 어둡고 절망적인 조선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앓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 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찻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폿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 분위기 묘사를 통해 당시 일제의 억압을 암시적으로 표현

▶ ‘나’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조선인의 현실을 ‘무덤’처럼 느끼고 분노함

**핵심 정리**

갈래	중편 소설, 여로형 소설, 사실주의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비판적
배경	① 시간: 1918년 겨울, 3·1 운동 직전 ② 공간: 동경과 서울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과 나약한 모습
특징	① 전형적인 여로의 구조를 통해 당대 조선 사회의 암담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사실주의적 작품으로 주인공이 보고 듣고 겪은 사회의 실상이 제시됨 ③ 지식인의 의식 구조를 통해 무기력한 당시의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 줌
출전	「신생활(新生活)」(1922)

작품 해제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묘지’로, 3·1운동 이전의 위축된 사회 현실을 그리고 있다. ‘동경 - 고베 - 시모노세키 - 부산 - 김천 - 대전 - 서울’로 이어지는 여로형 구조를 바탕으로 ‘나’가 식민지 현실을 목격하고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작품에서 ‘나’는 귀국하는 동안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는 몰랐던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울분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나’는 중간 자적 입장에서 식민지 현실을 전달할 뿐 현실 개선의 의지가 없고 조선의 비극적인 상황을 ‘무덤’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당대의 무기력하고 회의적인 지식인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식민지 조선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 소설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작품의 구조 - 여로형 구조

발단	동경 유학 중인 ‘나’ (이인화)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을 준비한다.
전개	답답한 심정에 ‘나’는 여러 술집을 전전하다가 귀국을 위해 연락선을 탄다.
위기	‘나’는 배 안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분개한다.
절정	조선이 처한 현실을 관찰하고 체험하면서 분노가 치솟지만 ‘나’는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혀 무덤 같은 조선에서 탈출하고자 한다.
결말	‘나’는 아내가 죽자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동경으로 떠난다.

주인공이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동경으로 되돌아가는 여로형 구조를 취한 이 작품은 여행이 진행됨에 따라 주인공이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아를 각성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주인공의 여로	체험의 내용	깨달음을 얻는 과정
동경에서 출발	동경의 풍경	
하관에서 배를 탄	배 안의 체험	
부산 도착	부산항의 모습	
김천, 대전 경유	조선인의 실상 체험	
서울 도착	아내의 죽음	
동경으로 재출발	-	

인물 분석

나	- 이인화, 동경 W대학 문과 재학생으로서 자조적(自嘲的)인 인물 - 죽어 가는 아내 때문에 귀국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눈물조차 흘리지 않으며,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을 '겨우 무덤 속을 빠져 나간다.' 라고 토로함
아버지	고루한 사고 방식을 지닌 인물
김천 형님	소학교 훈도(교사)로 보수적인 성격의 인물
정자	- 카페의 여급이자 '나'의 애인 - 편지를 통해 '나'를 다시 동경으로 돌아오게 함

'구더기 끓는 무덤'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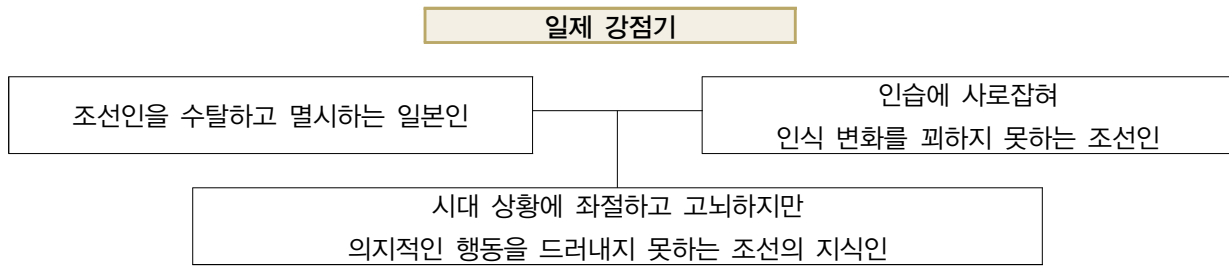
주인공 '나' (이인화)는 조선인의 실상을 보며 '이것은 무덤이다' 라고 외친다. 이 외침은 3·1운동 직전의 조선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나'는 비록 조선인이기는 하지만, 동경에서 유학 중인 상류층의 지식 청년이기에 조선 사회의 실상에 대해 어두운 인물이다. 따라서 오랜 만의 귀국길에 비친 조선의 모습이 그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나'는 젊은 사람들마저도 의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노예적인 모습을 보고, 이러한 일제 강점하의 절망적인 현실을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무덤'은 당시 조선의 참담한 시대 상황을, '구더기'는 그러한 현실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굴종하면서 살아가는 조선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원제 '묘지'는 바로 식민지 조선의 '만세(3·1운동) 전(직전)' 시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당시 조선은 일제 강점 하의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 없이 비굴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었기에 '묘지,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지식인으로서의 '나'

주인공 '나'는 일제의 감시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과 재래의 구태의연한 관습에 젖어 있는 동족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는 근대적 지식인의 모습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동족을 향한 연민의 시선과 비판의 시선이 함께 나타나는 양상에서 확인된다. 이로 인해 '나'는 끝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에 머물게 된다.

**작품에 반영된 사실주의 소설의 특징****작가 소개**

염상섭(廉相涉, 1897~1963) : 소설가, 평론가. 호는 횡보(橫步). 서울 출생. 1920년 「폐허」동인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고 1921년 「개벽」에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발표하였다. 그의 문학의 특징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 정신, 서울 중류 계급의 어휘와 문체의 완벽한 구사로 요약된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실험주의적, 자연 과학적인 방법으로 작품화 하였다. 초기의 자연주의적 경향은 점차 사실성을 띠면서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묘사하는 한편, 본격적인 전형적 인물을 창조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전화', '임종', '두 파산', '만세전', '삼대', '무화과' 등이 있다.

인물로 읽어 읽기 - 일제 강점기의 지식인**술 권하는 사회 / 현진건**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리는 듯하였다. 남편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는 이런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윽고 남편은 기막힌 듯이 웃는다.

“흥, 또 못 알아 듣는군.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 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횡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요,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다면 술이나 얻어 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 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이 어니 한다.

자조적 인식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사실주의 소설
성격	사실적, 사회 비판적
배경	① 시간: 1920년대 ② 공간: 서울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일제 강점기의 모순된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
제목의 의미	① 지식인이 자기 실현을 할 수 없는 사회 ② 사회(조직)의 부패와 무기력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좌절

작품 해제

1921년 「개벽」에 발표된 단편 소설. 일제 치하 조선의 지식인이 절망으로 인하여 술을 벗 삼게 되고 주정꾼으로 전락하는데, 그 책임을 '술 권하는 사회'에 있다고 토로한다. 더구나 아내의 이해도 얻지 못한다는 데에서 이 소설의 비극성은 심화된다.

**표본실의 청개구리 / 염상섭**

내가 중학교 이 년 시대에 박물관 실험실에서 수업 텀 석부리 선생이 청개구리를 해부하여 가지고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을 차례차례로 끌어내서 자는 아기 누이듯이 주정병(酒精瓶)에 채운 후에 웅위하고 서서 있는 생도들을 돌아다보며 대발견이나 한 듯이,

“자 여러분, 이래도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보시오.”

하고 뽀족한 바늘 끝으로 여기저기를 콕콕 찌르는 못 박힌 채 발딱발딱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팔 년이나 된 그 인상이 요사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서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아니 되었다. 새 파란 메스, 닭의 똥만한 오물오물하는 심장과 폐, 바늘 끝, 조그만 전율……. 차례차례로 생각날 때마다 머리 끝이 쭈뼛쭈뼛하고 전신에 냉수를 끼얹는 것 같았다.

남향한 유리창 밑에서 번쩍 쳐드는 메스의 강렬한 반사광이 안공을 찌르는 것 같아 컴컴한 방 속에 드러누웠어도 꼭 감은 눈썹 밑이 부시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머리맡에 놓인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둔 면도칼이 조심이 되어서 못 견디었다.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사실주의적
배경	① 시간: 1920년대 전반기 ② 공간: 서울, 평양, 남포 등지
시점	일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3·1운동 직후, 패배주의와 우울함 속에서 침체되어 있는 지식인의 고뇌

작품 해제

염상섭의 첫 단편 소설로서 3·1운동 직후의 패배주의적 경향과 지식인의 고뇌를 드러낸 작품이다. 젊은 지식인의 고뇌가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묘사된 작품으로 당시의 문단에서 새로운 경향의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제목의 의미

제목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나’의 중학 시절, 박물관 선생이 실험대 위에 올려놓고 심장과 폐를 해부해 낸 것처럼 육체적으로 파괴되고 정신적인 근거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나’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

인물로 엮어 읽기 -시대 현실에 대한 대응 태도

「만세전」의 ‘나’는 지식인으로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일본인에 대한 반감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바꿔 보려는 의지가 없기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지식인이다.

「태평천하」의 ‘윤 직원’은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다. 친일 성향의 지주로 반민족적이고, 비윤리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욕망을 강하게 드러낸다.

태평천하 / 채만식

“……그런 처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 놈이 경찰 서장 하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허다가 뎀다 경찰서에 잡혀? 오 — 사 육시를 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핵심 정리

갈래	중편소설, 사회 소설, 풍자 소설, 가족사 소설
배경	① 시간: 1930년대 ② 공간: 서울, 한 평민 출신의 대지주 집안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끊
지자 방 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 오죽이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건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오,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년 다 — 지내가고 오.....
자 — 부아라, 거리거기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
(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어?.....^{윤 직원의 왜곡된 현실 인식 ①}남은 수십만 명 동
병(動兵)을 히어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오죽
이나 고마운 세상이어?.....^{윤 직원의 왜곡된 현실 인식 ②}응응?..... 제 것 지니고 앉
어서 편안하게 살 세상, 이걸 태평 천하라구 하는 것이
여, 태평 천하!^{윤 직원의 왜곡된 현실 인식 ③}.....그런데 이런 태평 천하에 태어난 부
잣집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땅땅거리구 편안하
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패에
참섭을 헌담말이어, 응응?”

의의	1930년대 사회 현실의 격심한 퇴폐성을 비판적으로 풍자
주제	① 개화기에서 일제 시대에 이르는 윤 직원 일가의 타락한 삶과 몰락 과정. ② 경제적인 부를 가진 한 인간을 통해 도덕적인 왜곡상을 폭로
특징	① 풍자적 수법 : 부정적 인물(윤직원 영감)을 내세운 반어적 풍자. ② 판소리 사설의 문체 ③ 반어와 희화(戲畵)를 통한 풍자적, 해학적 어조. ④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말투 및 경어체의 문체

작품 해제

한말(韓末)과 개화기, 그리고 일제 강점기 세대 사이의 가치관의 변화와 현실 대응에 따른 행동 유형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윤 직원 영감과 같은 부정적이고 타락한 인물에 대한 풍자가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풍자는 반어(反語, 아이러니) 수법을 통한 부정적 인물의 희화화(戲畵化)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즉, 작가는 작중 인물을 겉으로는 추켜세우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부정적 측면을 더욱 드러내어 그 인물을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면서 추악한 일면을 폭로하고 있다.



【앞부분의 줄거리】 일제 강점기에 만주로 이주한 ‘그’의 가족은 광복이 되자 서울을 거쳐 북에 있는 고향으로 가려 했지만 삼팔선이 그어져서 서울에서 살게 된다. 가난 때문에 집에서 쫓겨날 처지인 ‘그’에게 ‘그’의 친구는 집을 마련해 주기로 마음대로 약속을 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만나러 간다.

공간: 시장

잠바 흥정이 붙었다. 친구는 양복 위에다 잠바를 입었다. 물건 주인은 값이 맞지 않는 모양으로 어서 벗으라고 잠바 앞섶을 한 손으로 붙들고 당긴다. 조금도 달라진 맛이 없는 것 같은 스물다섯이 채 되었을까 한 청년이다.

“안 팔다니! 팔백 원이면 제 시센데 시세를 다 줘두 안 팔아? 이걸 누구 히야까시루 가지구 나와서?”

친구는 눈을 매섭게 부릅뜨고 팔을 뿌리친다.

“글쎄, 그르겐 못 팔아요. 이천 원 다 줘야 돼요.”

청년의 손은 다시 잠바로 건너간다. 친구의 눈은 좀 더 매섭게 모로 빗기더니,

“받아요.”

지전 묶음을 청년의 호주머니 속에 억지로 넣어주고 돌아선다.

넣어준 돈을 청년은 다시 꺼내 부르쥘고 뒤를 쫓는다.

“여보!”

친구의 옷자락을 붙든다.

“누구야! 왜 붙들어? 바쁜 사람을…….”

“인쥬요.”

“주다니, 뭘 줘?”

“잠바 말이에요.”

“당신 정신 있소? 물건을 팔구 돈까지 지갑에 넣구 다니다가 탄 생각을 허구선…… 이걸 누구 바지저고리만 다니는 줄 알아? 맘대루 물건을 팔았다 물렀다……”

‘그’의 친구는 자신의 뜻대로 잠바를 사려고 청년에게 억지를 부리며 청년을 위협함

몸부림을 쳐 청년의 붙든 손을 떨구고 떨어진 손을 와락 붙들어 이마뼈가 맞닿으리만치 정면으로 딱 당겨 세우고 눈을 흘기며 가슴을 밀어젖힌다.

“이러단 좋지 못해, 괜히……”

밀어젖힌 대로 물러난 청년은 더 맛잡이를 할 용기를 잃는다. 멍하니 친구를 바라보고만 섰더니 어처구니없는 듯이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그대로 쥐고 있던 돈을 세어 보고 집어넣는다.

무서운 판이었다. 총소리 없는 전쟁 마당이다. 친구는 이 마당의 이러한 용사이었던가. 만나기 조차 무서워진다. 여기 모여 웅성이는 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러한 소리 없는 총들을 마음속에 깊



이들 지니고 있는 것일까. 빗맞을까 봐 곁이 바르다.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그'의 심리

“아, 여 여보!”

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어 자기를 찾는 듯이 살피는 친구를 꼭 찢러 부른다.

“지금 왔소?”

“나 좀 바빠 먼저 가알까봐. 기다리겠기에 들렀지.”

짐을 구해 주겠다고 나서는 친구의 만남을 거북하게 여김

“바쁘진 내 다 아는걸…… 글썸 그래 가지군 백만 날 돌아다녀야 집 못 얻는달밖에. 난 아직 아
‘그’와 ‘그’의 친구의 대화를 통해 ‘그’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짐을 구해야 할 처지임이 나타남
침도 못 먹구…… 우리 점심 같이 허구 잠깐 집에 들러 옷 좀 갈아입구 나가세.”

“아니, 정말 난…….”

“글썸 이리 와요.”

손목을 잡아끌어 앞세운다. 강박히 부딪칠 수가 없다.

‘그’가 ‘그의 친구’ 의견에 따름

공간: 친구의 집

점심이라기보다 술이었다. 실로 얼마 만에 쇠고기 찜을 싣었 하고 확확 다는 얼굴을 느끼며 남
산 밑을 돌아 후암동으로 따라간다. 어느 커다란 회사의 중역이 살던 숙사인 듯 빨간 기와집이다.

“이 집도 그렇게 얻었거든.”

‘그’의 친구는 거주자를 내쫓는 방법으로 집을 얻음(사회적 논란에 편승해 부당한 방법으로 집을 얻고 재산을 축적했음)

친구는 전령의 단추를 누른다.

꼭 같은 알몸으로 보통이 한 개씩을 등에 걸머진 채 인천에 내려서 헤어진 지 일 년, 친구의 살
‘그’와 ‘그’의 친구는 고국으로 돌아왔을 당시 비슷하게 가난한 처지였음
림은 벌써 틀이 잡혔다. 가구의 준비까지도 완비가 된 듯 장롱이니 의걸이니 놓아야 할 건 제대로
다 들여놓았는데 놀랐다.

“팔백 원 참 싸구나! 이진.”

억지로 정한 가격을 물건을 구매한 것, 구입한 가격에 비해서 물건이 좋은 것에 대한 ‘그’의 친구의 만족감

들고 온 잠바를 친구는 다다미 위에 내던진다.

『“거긴 하루 한때만 들러두 밥벌인 되거든. 일자린 없겠다, 쌀값은 비싸겠다, 그대로 댕그라니들
『』: 전재민의 구평한 삶

앉아서 배겨날 장사가 있나. 전재민이 가지구 나오는 물건이 여간 많은 게 아니야. 능지에서 자라
전쟁으로 재난을 입은 사람

난 풀대 모양으루 희멀썩한 얼굴이 물건을 제대루 내놓지두 못허구 옆에다 끼구선 비실비실 주변
으로만 도는 걸 붙들기만 하면 그건 그저 얻는 폭이지. 저 잠바도 만주 건 가봐. 가죽이니 좀 좋
아? 작자가 어리송해 가지구 그래두 첫마디엔 안 놓아 주구 제법 쫓아오던데? 글썸 외투루부터

저구리, 바지 차례루 다들 팔아 자시군 쪽 발가벗고들 눈이 멀뚱멀뚱하여 누워서 천정에 파리똥만
만주에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구평한 삶의 모습
세구 있는 사람두 있대나?』 하하……. 자네도 이런 데 눈 뜨지 않으면 파리똥 세계 되네, 괜히……”

“파리똥두 집이 있어야 헤지, 난 별만 헤네.”

자신의 집이 없는 신세를 나타냄 - 집이 있으면 천장에 붙은 파리똥이라고 셀 수 있지만, ‘그’는 집이 없으므로 하늘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별만 센다는 뜻

농으로 받기는 하였으나 친구의 상식과는 대재비가 되지 않는다. 기만 막히는 소리뿐이다.

친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 자신과 매우 다르다고 여김



“난 가겠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 집을 마련해 주려는 친구의 의사를 거절함

“아, 이 사람아! 같이 나가! 내 정말 한 놈 내쫓구 집 들게 해 준달밖에.”

‘그’의 친구가 집을 얻은 방식으로 ‘그’의 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음

“우리 단 두 식구 살 집 그리 커선 뭘 허나. 난 방이나 한 칸 얻을까 봐.”

‘그’는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집을 구하려고 함

“방은 그래 얻을 듯싶어? 보증금이 만 원두 넘는다네.”

“방두 못 얻으면 이북으로 가지.”

‘그’는 이남에서 살 집을 구하지 못하면 두고 온 고향인 이북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음

“저런! 이북선 누가 거저 집 주나? 다 저 험 나름이라구. 여기서 못살면 거기 가두 못살아.”

자기 하기 나름이라며 친구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의미를 지님

【중략 부분의 줄거리】 친구와 헤어진 ‘그’는 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북으로 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간다. 그곳에서 ‘그’와 어머니는 고향 사람을 만난다.

공간: 서울역

“이북으루요? 아이구, 갈럼 마르우. 잘사는 사람은 잘살아두 못사는 사람은 거기 가두 못살아 요. 돈 있는 사람 텐답과 집들을 다 떼슴 멀 허갸소. 없던 사람들이 당사들을 해서 그만침은 또 다 잡아 났는데…… 우리두 그런 당살 했음 돈 잡았디요. 우리 옥순이 아바진 그런 당사엔 눈두 안 뜨구 피익픽 웃기만 허디요. 그러니 살긴 어려워만 가구 좀 허면 그르케 힘든 국경(국경)을 넘어 오갸소?”

“아이구 우리 아와 신통히두 같구나 만주서 같이 나온 사람들은 야미 당사들을 해서 돈 모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아가 그런 진 피익픽 웃디 밥을 굶으멘서두. 거기두 고름 그르쿠나 거저. 살기가 어머니의 걱정 - 뒹거래로 돈을 버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와 그로 인한 가난한 삶 같을 바에야 멀 허레 그 끔죽헌 국경을 넘어가잔.”

“그러믄요. 아이, 여기두 고름 살기가 그르케 말썽우다레 잉이? 머 광다부〔廣木〕한자에 삼십 길이의 단위(약 30.3cm) 원 현다, 사십 원 현다 허더니.”

광목(무명실로 서양목처럼 너비가 넓게 짠 베)

“우리 가제 와선 그르케두 했단다. 어즈께레 옛날인데 멀 그르네. 거기 집은 어드르니 그르네 얻진 쉬우니?”

“쉽다니요! 발라요. 거저 집이라구 우명헌 건 내만 놓문 훌떡훌떡 허디요. 그르기 어디 빈간이 있게 그르우? 만주서 나와 집 찾는 사람두 있디요? 제 집 쪼께 나서 어디 빈간이나 있을까 허구 돌아가는 사람두 있디요? 머 촌이나 골이나 딱 같습두다. 난이에요, 난.”

남리

“여기두 그르탄다. 우린 집을 못 얻구 한디에서 내내 살았단다. 밥이라군 밀가루 떡만 먹구.”

“여기두 고름 그르케 집이 없어요! 것두 같수다레 고름?”

“글쎄 네 말을 들으니께니 집 없는 것까지 신통두 허게 같구나 참.”

『 : ‘그’의 어머니와 북에서 온 고향 사람의 대화를 통해 두 가족 모두 가난한 처지임이 드러남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사실적
배경	① 시간: 광복 직후 ② 공간: 남한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광복 직후의 혼란한 사회상과 전재민들의 고달픈 삶
출전	「동아일보」(1946년)

작품 해제

이 작품은 광복 직후 남한의 사회 현실과 만주에서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시장에서 느끼는 ‘그’의 심리, ‘그’의 친구가 재산을 형성한 모습,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남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그’의 모습과 ‘그’의 친구 말에서 전재민들이 고국에 와서도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전체 줄거리

일제의 수탈과 억압으로 만주로 이민을 갔던 ‘그’의 가족은 독립이 되자 만주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고향에 묻고자 고국으로 돌아온다. 안전한 귀국을 위해 뱃길로 인천에 도착하여 서울로 오지만 삼팔선 때문에 고향이 있는 북쪽으로 가지 못한 채 서울에서 살게 된다. ‘그’의 가족은 1년이 넘도록 방 한 칸 구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고 있던 초막마저 비워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된다. 마침 만주에서 나올 때 같은 배를 타고 오면서 알게 된 친구가 일본인의 집에 수속 없이 들어 있는 사람을 내쫓고 대신 살게 해 준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한다. 결국 ‘그’는 집을 구하지 못하여 고향인 이북으로 가려고 서울역에 가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고향 사람으로부터 이북도 먹고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남으로 넘어온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시대적 배경

1945년 광복을 맞이한 후 우리나라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대립 및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정치적 상황, 윤리적 가치관 등에서 여러 가지 혼란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각박하고 냉혹한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회적 혼란에 편승해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한편, 일제 강점기에 고국을 떠나 해외로 갔던 동포들이 귀국하고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월북하거나 월남하는 일들이 발생했지만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남북 분단은 남북 간 민족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다.

의의와 평가

이 작품은 광복 후 월남한 사람들의 애환이나 인정의 기미 등을 잘 보여주는 계몽묵의 후기 단편 중 대표작이다. 단편 소설이지만 광복 직후의 현실을 치밀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며, 특히 주인공이 의분이나 정의감 또는 고발정신을 발동시키는 인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작자가 유지해오던 관조적 자세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밀착하여 시대적 혼란상을 표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현실의 총체적인 인식에는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계몽묵 문학의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문학사적 특징 :1946년~1950년대(광복 직후~6·25전쟁 전후)

특징	-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양분화 - 해방의 참된 의미 모색 및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 반영 - 보편적인 삶을 다룬 순수 소설과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역사 소설 창작 - 전쟁 체험과 전후의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 표현 - 부조리한 현실의 고발 및 참여
대표작	논 이야기(채만식, 1946), 두 파산(염상섭, 1949), 카인의 후예(황순원, 1954), 모반(오상원, 1957)

배경으로 읽어 읽기 -해방 직후의 혼란기

두 파산 / 염상섭

어린애 코 묻은 돈푼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았는 나두 불쌍한 신세이지마는, 난 옥임이가 가엾어서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이나 파산 지경이지, 옥임이는 성격 파산인가 보다군요…….”

제목 '두 파산'의 의미 - 정례 모친(경제적 파산), 옥임(정신적 파산)

정례 어머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 버리려는 듯이 웃으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 나두 듣기에 좀 괴란쩍습니다만 『자기 합리화』 부끄럽습시다마는 『모두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죠, 별수 있나요.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있는 돈을 어엿이 받아 먹는 것은 아직도 양심이 있는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속여 먹고, 등쳐 먹고, 알로 먹고, 꺾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는 밥알이 울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 아닙니까……

허허허.”

『자기 합리화』 광복 직후 사회적 혼란기의 모습을 드러냄

하고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옥임이 역성인지를 하는 것이었다.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성격	사실적, 세태 비판적
배경	① 시간: 해방 직후 ② 공간: 서울 황토현 부근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해방 직후 혼란기에 물질적·정신적으로 파산한 인간의 모습 풍자
특징	① 작가의 사실주의적 태도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함 ② 사건의 빠른 진행보다는 현실의 느린 전개를 택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광복 직후의 혼란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된 상황을 사실적으로 드러낸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정례 어머니는 경제적 무능력에 빠진 소시민이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몰락해 가는 과정(‘경제적 파산’)을, 그리고 김옥임은 윤리나 도덕과 무관하게 오로지 돈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 생각하면서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 가는 과정(‘정신적 파산’)을 각각 보여 준다. 이 작품은 광복 직후의 혼란기를 대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 여인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이 두 인물은 당 시대의 보편적인 인물상을 대변하며, 해방 후 한국 사회의 현실과 당대인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제목의 의미

‘두 파산’이라는 제목은 옥임의 정신적 파탄과 정례 모친의 물질적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옥임 (정신적 파산자)		정례 모친 (물질적 파산자)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부유층을 대변	↔ 대립·갈등 (갈등의 원인 : 돈)	성실하게 살려고 하지만 돈에 나약하게 무너지고 마는 소시민의 모습을 대변



비 오는 길 / 최명익



〔앞부분의 줄거리〕 공장의 장부 정리 업무를 맡고 있는 병일은 어느 여름날 사진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다 사진관 주인인 이철성과 말을 트게 되고, 그 이후 사진관을 찾아가는 병일이 사진사와 늦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다 돌아온다.

밤 12시가 거진 되어서 하숙으로 돌아가는 병일이는 비를 맞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였다.

‘이것이 무슨 집이야!’하는 반성은 갈라진 검은 구름 밖으로 보이는 별 밑에 한층 더하므로 ‘이 생 자신의 삶을 반성함(스스로의 삶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활은 일시적이다. 장마의 탓이다’하는 생각을 오는 비에 핑계하기가 편하였던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위안하면서 내적 번민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애쓸 자신을 위안하기 위한 핑계거리
책상 앞에 돌아온 병일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모두 없어진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이른 아침 시간을 위하여 자야 할 병일이는 벌써 깊이 잠들었을 사진사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병일이 사진사와의 과거 일을 회상」
「요즘 사진사는 술을 사양하는 때가 있었다. 손이 떨려서 사진 수정에 실수가 많으므로 얼마 동안 술을 끊어 볼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장마에 손님이 없어서 그이 역시 우울하게 지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병일이가 술을 사서 권하면 서너 잔 후에는 이내 유쾌해지는 것이었다.

사진사가 우울하게 지내는 이유
오늘도 유쾌해진 사진사가 병일에게 잔을 건네며,

“긴 상, 밤에는 무엇으로 소일하시우.”

사진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주로 하다가 최근 들어 병일의 생활에 대해 물을
하고 물었다.

전에는 사진사가 주위섬기는 화제는 대부분이 사진사 자신의 내력과 생활에 관한 이야기요 자랑이었다. 혹시 도를 지나치는 그의 살림 내정 이야기에 간혹 미안히 생각되는 때가 있었으나 마음 놓고 들으며 웃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던 것이 이 며칠은 병일의 술을 마시는 탓인지 사진사는 병일의 생활을 화제로 삼으려는 것이 현저하였다.

병일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고 물은 것이 벌써 그저께였다.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사진사
「어젯밤에는 하숙비는 얼마나 내느냐고 물은 다음에, 호지부지 허튼돈을 안 쓰는 긴상이라 용처로 한 달에 기껏 6원을 쓴다 치더라도 한 달에 7, 8원을 저금하였을 터이니 이태 동안에 소불하 2백 원은 앞세웠으리라고 계산하였다.」 그 말에 병일이는 웃으며, 글썽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 아직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었겠다는 사진사의 말 요약 제시」
병일의 경연적응
한 푼도 저축한 것이 없다고 하였더니, 내가 긴상에게 돈 꾸라고 할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할 필요는 없다고 서두르다가, 정말 돈을 앞세우지 못하였다면 그 돈을 무엇에다 다 썼을까고 대단히 궁금해하는 모양이었다.

사진사가 오늘 이렇게 묻는 것도 그러한 궁금증에서 나오는 말인 것을 짐작하는 병일이는 하기



싫은 대답을 간신히.

세속적 생활에 대해 묻는 사진사의 질문에 달가워하지 않음
“갑갑하니까 그저 책이나 보지요.”

병일에게 독서는 무기력한 일상에서의 탈출구

하고 담배 연기를 핑계로 찡그린 얼굴을 돌렸다. 사진사는 서슴지 않고 여전히 병일을 바라보며,

“책? 법률 공부하시우? 책이나 보시기야 무슨 돈을 그렇게…… 나를 속이시는 말인지는 모르지

만 혼자서 적지 않은 돈을 지금도 안 하고 다 쓴다니 말이 되요?”

돈을 다 써버리다며 병일을 질타하는 사진사의 말 -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실에 순응하는 사진사의 태도

이렇게 말하며 충혈된 눈을 더욱 크게 뜨고 병일을 마주보는 것이었다.

사진사는 병일의 말에 흥분한 어조로 물음

술이 반쯤 취할 때마다 “사람이란 것은…….” 하고 흥분한 어조로 자기의 신념을 말하거나 설교

를 하려드는 것이 사진사의 버릇임을 이미 아는 바이요, 또한 그 설교 무심중 귀를 기울이고 들은

적도 있었지만 오늘같이 병일의 생활을 들추어서 설교하려드는 것은 대단히 불쾌한 것이다.

사진사는 ‘돈’이 아닌 ‘독서’에만 관심을 두는 병일의 생활을 못마땅해 함 - 구체적인 삶의 조건을 중시하는 생활인의 모습

술에 흥분된 병일이는 ‘그래 다행이 무슨 상관이요.’ 하는 말이 생각나기는 하였으나 이런 경우에

잘 맞지 않는 남의 말을 빌리는 것 같아서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고 ‘돈을 아껴서 책까지 안 산다면 내 생활은 무엇이 됩니까? 지금 나에게는 도서관에 갈 시간도 없지 않소? 그러면 그렇게 책은 읽어서 무엇 하느냐고 물겠지만 나 역시 무슨 목적이 있어

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일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즉 사람에

게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적도 있었지

만 지금은 고학도 할 수 없이 된 병약한 몸과 2년래로 주인에게 모욕을 받고 있는 나의 인격의 울

분한 반향이 —말하자면 모두 자기네 일에 분망한 세상에서 나도 내 생활을 위하여 몰두하는 시간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로 빠져드는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냄 - 병일이 자신만의 영역을 지켜 내려는 의지

을 가져 보겠다는 것이 나의 독서요.’ 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말하는 자기의 음성이 떨릴 것이요,

그 말을 듣는 사진사는 반드시 하품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병일이는 하염없는 웃음을 웃고 나서,

사진사가 자신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병일의 인식 - 병일의 내적 방황의 지속

“그럼 나도 책 사는 돈으로 저금이나 할까? 책 대신에 매달 조금씩 늘어가는 저금통장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낙을 삼구…….”

사진사는 자신의 말에 병일이 동의하는 것으로 여겨 자락스러워 함

“아무렴, 그것이 재미지. 적소성대라니.”

작거나 적은 것도 쌓이면 크게 되거나 많아짐

이렇게 하는 사진사의 말을 가로채어서,

“하하, 시간을 거꾸루 보아서 10년 후의 천 원을 미리 기뻐하며, 하하.”

하고 웃고 난 병일이는 아까부터 놓여 있는 술잔을 꿀꺽 마시고 사진사의 말을 막으려는 듯이

병일은 사진사의 말이 섣뚱 내키지 않음

곧 술을 따라 건네었다.

술잔을 받아 든 사진사는 치가 있는 듯한 병일의 말에 찢린 마음이 병일의 공소한 웃음소리에

벌의 독바늘

사진사의 말에 섣뚱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

중화되려는 쓸개 빠진 얼굴로 병일을 바라보다가 체신을 차리려고 호기 있게 눈을 굴리며,

사진사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음

“십 년도 잠깐이요. 돈을 모으며 살아도 10년, 허투루 살아도 10년인데, 같은 값이면 우리두 돈



모아서 남과 같이 살아야지…….”

하는 사진사의 말을 받아서,

앞의 사진사의 말을 가로채거나 막으려는 의도

“누구와 같이? 어떻게?”

사진사의 충고가 다소 주저넛은 것이라 생각해, 섣뜻 동의하지 않고 있음

하고 대들 듯이 묻는 병일의 눈은 한순간 빛났었다.

들어야 그 말이지 하고 생각하여 온 병일은 이때에 발작적으로 사진사가 꿈꾸는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듣고 싶었던 것이었다. 사진사의 말뜻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아니, 누구같이라니! 자, 진상 내 말 들어보소. 자, 다른 말할 것 있소. 셋집이나 아니구 자그마하게나 자기 집에다 장사면 장사를 벌이고 앉아서 먹고 남는 것을 착착 모아가는 살림이 세상에 상 재미란 말이요.”

(중략)

“진상은 도무지 남의 말을 끝이 안 듣는 것이 병이거든. 그러구 내가 보기엔 진상은 돈 모으고 세상살이 할 생각은 앓는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진사는 자기의 말을 스스로 긍정하는 태도로 병일을 건너다보며 머리를 건드렸다.

병일도 사진사의 말을 긍정할밖에 없었다.

돈을 모으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의 중요성과, 이를 따르지 않는 병일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은 부정적이라는 말

사진사의 설교가 아니라도 이러한 희망과 목표는 이러한 사회층(물론 병일 자신도 운명적으로 예측된 사회층)에 관념화한 행복의 목표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이러한 사회층의 일평생의 노력은 이러한 행복을 잡기 위한 것임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늘 보고 듣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일은 이러한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병일 스스로 별다른 목표를 찾을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사진사가 부추기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 렇다고 나의 희망과 목표는 무엇인가고 생각할 때에는 병일의 뇌장(腦漿)은 얼어붙은 듯이 대답이 없었다. 뇌척수액 이와 같이 별다른 희망과 목표를 찾을 수 없으면서도 자기가 처하여 있는 사회층의 누구나 희망하는 행복을 행복이라고 믿지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희망과 목표를 향하여 분투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물결 가운데서 오직 병일이 자기만이 지향 없이 주저하는 고독감을 느낄 뿐이었다. 다만 일생의 목표를 그리 소홀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사회층의 보편적인 생각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세속적 욕망을 가진 생활인들을 비유한 표현) 보편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목표를 구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 사진사의 충고를 쉽게 따라서는 안 되며 자신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스림

간신히 자기에게 꺾속말을 해 보는 것이었다.

사진사의 충고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병일의 본래 가치관을 지키고자 하는 자신에게 말(자신만의 가치관을 지키겠다는 다짐)

이러한 꺾속말에 비하여 사진사의 자신 있는 말은 얼마나 사진사 자신을 힘 있게 격려할 것인가? 더욱이 누구에게나 자기의 희망과 포부는 말로나 글로나 자라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빈약해 보이는 것이요, 대개는 정열과 매력을 잃고 마는 것인데, 이 사진사는 그 반대로 자기 말에 더욱



더욱 신념과 행복감을 갖는 것을 볼 때 그는 참으로 행복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밖에 없었다.

'사진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

=현실적 삶의 조건을 중시하는 사진사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냄

이렇게 사진사를 행복자라고 생각하는 「병일」은 그러한 행복 관념 앞에 여지없이 굴복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 행복 관념에 복종할 수 없었다.』 그러면 자기는 반역하는 노예와 같이

사진사의 세속적 욕망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 병일의 이중적인 태도

운명이 내리든가 고역과 매가 자기에게는 한층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사진사의 세속적 욕망을 따를 경우 병일 자신이 겪게 될 정신적 고뇌

핵심 정리

갈래	모더니즘 소설, 심리주의 소설
성격	사실적, 사색적, 심리적
배경	1930년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현실적 삶과 독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식인의 모습
특징	① 주인공의 내적 방황을 중심으로 전개함 ②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뛰어남 ③ 삶의 가치관을 대조적으로 드러냄
출전	「조광」(1935년 5월)

작품 해제

이 작품은 독서와 사색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 한 지식인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진사와의 만남을 통해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사가 내세우는 삶의 태도를 한편으로는 인정하면서도, 내면적으로 완전히 동의할 수 없어 고민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사진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예전처럼 독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안일을 추구하는 생활인의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세계 속에만 빠져 사는 지식인의 양상을 보여 주기도 한다.



전체 줄거리

소사와 급사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 병일은 남을 믿지 못하는 공장 주인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일이 끝난 후 독서와 사색에 몰두하면서 이를 견뎌 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는다. 비 오는 어느 여름날 사진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중 병일은 사진관 주인 이철성을 알게 되고 만남을 자주 갖는다. 병일은 부지런히 돈을 모으려 하는 사진사의 삶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면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사진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병일은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가 독서에만 매진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인물 분석

사진사 '이철성'	주인공 '병일'
▪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 인물 ▪ 현실적 삶의 조건을 중시함 ▪ 당대 사회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일반적 인 가치관	▪ 자의식의 과다와 내면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는 지식인 ▪ '돈' 보다는 '독서'에 매진하고자 함 ▪ 생활인으로서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삶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독서에 몰두하는 주인공과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는 일상의 생활인의 만남을 다루고 있다.

소설 속 갈등 양상

▪ 사진사의 충고에 잠시 갈등을 겪게 됨 ▪ 현실적 삶의 조건을 중시하는 사진사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병일'의 내적 갈등	▪ 자신만의 뚜렷한 가치관을 세운 것은 아님 ▪ 세속적 욕망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	---

'병일'은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일생을 살 수 있는가' 혹은 '사람에게는 사람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본질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답을 찾을 요량으로 독서를 통해 '내 생활을 위하여 몰두하는 시간'을 구한다. 그러나 그런 말을 이철성에게 뚝뚝하게 이야기할 만큼의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의 자신 없는 태도는 자기의 희망과 포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철성이라는 생활인의 태도에 비할 때 병약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비 오는 길」의 결말은 병일의 불안을 갑작스럽게 종결한다. 신열이 나서 며칠을 앓더니 병일은 그 동안 이철성을 찾지 못한 데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오랜만에 비 갠 아침에 신문을 보던 병일은 기사의 사망자 명단에서 이철성의 이름을 발견한다.

자신의 생활이 옳은 것이었나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장마 탓으로 돌리던 병일은 공교롭게도 장마가 끝남과 동시에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집 처마에서 비를 곳지 않도록, 노방의 타인은 그대로 노방의 타인으로 남도록 하겠다고 결심하며 독서에 강행군하겠다고 다짐한다. 즉, 다시는 이철성 같은 생활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회피일 것이다. 병일의 고민과 불안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중도에 중단되었을 뿐이다.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 경향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은 식민지 상황 아래에서 기형적으로 성장한 현대 도시가 그 배경을 이룬다. 근대화한 도시의 확대와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 가정과 가족의 해체,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팽배, 소외된 개인과 반복되는 일상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대 도시의 삶은 다양한 현대 소설 기법에 의해 포착되어 심리소설, 세태 소설 등의 분화를 낳았다.

최명익 소설의 심리주의적 수법

최명익은 도시의 일상 공간 속에 놓여 있는 지식인 계급의 불안 의식을 표현하여, 자식인의 분열된 내면 혹은 자의식을 섬세한 심리 묘사로 그리고 있다.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자의식의 과다와 무기력증에 함몰되어 있다. 특히 그들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는 괴리된 자의식을 가짐으로써 내적 갈등과 방황에 빠져들게 되고, 바람직한 삶의 방식과 올바른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은 개인이 가진 관념 세계의 언저리에 머물 뿐 실질적인 탈출구가 없다. 최명익의 소설 속 주인공들은 당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즉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삶, 또는 구체적인 삶의 조건을 중시하는 생활인으로서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비판 의식

병일은 사진관 주인과의 대화를 통해 잠시 갈등을 겪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본래 신념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야기가 종결된다. 작가는 이를 통해 주인공의 관념 편향이 생활인의 이기주의적 편향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과 괴리된 상태에서 지식인이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로 윤회되어 버리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비 오는 날 / 손창섭



: '~것이었다'의 종결 어미 반복 - 원구의 시선을 통해 서술

빗물 떨어지는 자리에는 양동이와 놓여 있었다. 출렁출렁 쪼르륵 출렁, 빗물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을 남기며 양동이 안에 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청각적 상상 「자마절 녹녹한 밤 안의 느낌」 시각적 상상 「무덤 속 같은 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씩 인물의 형체를 저지를 비유적으로 표현」

라도 구해주는 것은 그래도 빗물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 빗물 소리마저, 양동이에 차츰 물이 늘어 갈수록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물이 차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등락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J」 빗물 소리에 대한 원구의 인식 변화가 나타남. 원구가 우울한 분위기에 동화되어 감
동옥(東旭)은 별로 원구(元求)와 동옥(東玉)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동옥은 젖

은 옷을 벗어서 걸고, 러닝과 팬티 바람으로 식사 준비를 할 터이니 잠깐만 앉아 있으라고 하고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부엌이래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옆방이었다. 다다미는 걸어서 벽 한구석에 기대어 놓아, 판장뿐인 실내에는 여기저기 빗물이 오줌발처럼 쏟아졌다. 거기에는 취사도구가 너저분하니 널려 있는 것이었다. 연기가 들어간다고 사잇문을 닫아 버리고 나

비가 새고 있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서, 동옥은 풍로에 불을 피우노라고 부채질을 하며 야단이였다. 열 시가 조금 지난 회중시계를 사

화로의 일종

잇문 틈으로 꺼내 보이며, 도대체 조반이나 점심이냐는 원구의 질문에, 동옥은 닝글닝글하며 자기들에게는 삼시의 구별이 없다고 했다. 언제든 배고프면 밥을 끓여 먹고, 밥 생각이 없는 날은 중

자조적 웃음

아침, 점심, 저녁의 세 끼니

일이라도 굶고 지낸다는 것이었다. 동옥이가 부엌에서 혼자 바빠 돌아가는 동안 동옥은 역시 한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옥은 가끔 하품을 하며 외국에서 온 낯은 화보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한 동옥이와 마주앉아 자기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포즈를 지속해

동옥과 마주 앉아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낌

「동옥과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원구의 당당한 심정」

야 하는가? 원구는, 이런 무의미한 대좌(對座)를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부엌에 나가 풍로에 부채질이나마 거들어 줄까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만한 행동도 이 상태로는 일종의 비약이라 적지 아니한 용기가 필요했다.

다른 사람과 마주 대하여 앉음

알이나 생각 따위가 일정한 단계나 순서를 따르지 않고 건너뛰

동옥의 일을 거들어 주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만큼 자연스럽지 않음

그러는 동안 원구는 별안간 엉덩이가 척척해 들어움을 의식하였다. 양동이의 빗물이 넘어서 옆에 앉아 있는 원구의 자리로 흘러내린 것이었다. 원구는 젖은 양복바지의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섰다. 그제야 동옥도 양동이의 물이 넘는 줄을 안 모양이다. 그러나 동옥은 직접 일어나서 제 손으로 동옥은 신체적 장애(다리의 불편함)를 느끼지 않으려고 앉아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는 원구는 짐작함으로써 빗물이 넘치는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옥을 이상하게 생각함으로 치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앉은 채 부엌 쪽을 향해, 오빠 물 넘어, 했을 뿐이었다. 동옥은 사잇문을 반쯤 열고 들여다보며 이년아, 네가 좀 치우지 못해?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러자 자기가 나서기에 절호한 기회라고 생각한 원구는, 내가 내다 버리지 하고 한 손으로 양동이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한 걸음도 미처 발을 옮겨 놓을 사이도 없이 양동이는 철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옆이 떨어지며 물이 좌르르 쏟아졌다. 손잡이의 한쪽 끝 갈고리가 고리 구멍에서 벗겨진 것이었다.

동옥의 신체적 불구 상태를 알게 되는 계기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여태껏 꼼짝 않고 앉아 있던 동옥도 그제만은 냉큼 일



어나 한 걸음 비켜서는 **것이였다**. 그 순간 동옥의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원구에게 또 하나
^{동옥의 신체적 이상을 발견하면서 느낀 원구의 슬픔}
우울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였다.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동옥의 왼쪽 다리가 어린애의 손목같이 가
^{동옥의 불편한 다리를 보게 되었기 때문}
 늘고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옥의 전신은 한쪽으로 쓰러질 듯이 기
 울어지는 **것이였다**. 동옥은 다시 한 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 놓는 일 없이, 젖지 않은 구
 석 자리에 재빨리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희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 독이 오른 눈
초리로 원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것이였다. 동옥의 시선을 피하여 탁류의 대하 가운데 떠
^{동옥이 자신의 장애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 분노로 인해 원구를 향해 공격적 반응을 보임} ^{동옥의 공격적인 눈빛을 피하고 싶은 불편한 마음}
^(타인을 경계하는 전후 세대의 불행한 상황)
 있는 것 같은 공포에 몸을 떨며, 원구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허우적거리듯, 두 발로 물 고인 방
바닥을 절벽거려 보는 것이였다.
^{동옥에 대한 미안함과 미안함으로 인해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함}

(중략)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 장마로 늘고 보니, 자연 시
 원치 않은 장사 밀천을 그럭저럭 축내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 있는 방도 지루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음속에까지 곰팡이가
^{습기로 눅눅해진 방에서 형겨운 삶을 살아가는 원구의 자기 연민}
스는 것 같았다.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옥과 동옥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
 하게 떠오르는 **것이였다**. 점심때가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동
 옥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슨 속을 씻어 내리며, 동옥이도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구는 술
과 통조림을 사 들고 찾아갔다.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이 빗속에 서
^{같은 처지에 있는 소외 계층을 향한 원구의 연민의 태도}
 있었다.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적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동옥이, 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 나오는 사나이는 동옥이가 아니었다.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
 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는 생겼으되 멧힌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사십 전후
 의 그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정(丁) 뭐라는 사람이냐고 하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하
 는 **것이였다**.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노라 하고 나서, 동옥은 외출
 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 뒤 동옥 역시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
^{죽인 사나이의 말, 소외된 사람들이 더욱 큰 불행에 노출되고 있는 전후 현실의 문제}
다. 동옥이가 안 돌아오는 지는 열흘이나 되었고, 동옥은 바로 이삼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원
 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다.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멧하니 바라보는 **것이였다**.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짖 물건을 끌러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이거 원, 이거 원, 하며 주
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헤 벌어졌다. 그리고는 자기 여편네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주인 사나이의 속물적인 성격이 드러남}
 한 그릇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원하는 **것이였다**. 무슨 재미로



쉬어 가겠느냐고 하며 원구가 돌아서러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 세우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옥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 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말을 않고 멍청히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안한 눈길로 바라보며 동옥은 아마 십중팔구 군대에 끌려 나갔을 거라고 하고, 동옥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에,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그 다음 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죽지나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다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려 가지고 간 모양이니 자살을 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고만큼 뻐뻐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지껄이는 것이었다. 얼굴이 고만큼 뻐뻐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팔쩍 들어,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 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 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켰다.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원구는 호박 덩굴 우거진 밭두둑 길을 밟고 난 사람 모양 허전거리리는 다리로 걸어 나가는 것이었다.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성격	허무적, 실존적, 사실적
배경	① 시간: 6·25 전쟁기 1·4 후퇴 이후 장마철 ② 공간: 피란지 부산의 변두리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가져다 준 인간의 무기력한 삶
특징	① ‘~것이(었)다’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사용함 ② 사건의 요약적 제시와 배경 묘사가 주를 이룸 ③ 서술자가 등장인물과 거리를 두고 냉소적 태도를 취함 ④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분위기를 형성함
출전	『문예』(1953)



작품 해제

1953년 「문예」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울한 내면 심리를 다룬 전후 소설이다.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내려와 미군을 상대로 초상화를 주문 받아 소개하며 살아가는 무기력한 인물(동욱)과 그의 동생인 동옥, 그들에게 동정적이며 항상 걱정하는 서술자(원구)가 주요 등장 인물이다. 특히 동욱은 소아마비가 있는 신체 불구자인데, 오빠가 주선해 오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 생계를 꾸려나간다.

작가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남매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이들이 살아가는 당대의 배경인 전후의 상황, 기후적인 조건 등과 결합하여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개인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가, 사회적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작품이다.

작품의 구조

발단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에게는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회상된다. 원구는 우연히 동욱을 피란지에서 만나게 되었고 동욱으로부터 동욱이가 힘드니 위로해 주라는 부탁을 받기도 한다.
전개	원구는 황폐한 동욱의 집을 방문하여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옥을 만난다.
위기	원구에 대한 동욱의 적대적 태도는 점차 누그러지지만 동욱·동욱 남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초상화 작업을 못하게 된다.
절정	동욱이 같은 집에 사는 노파에게 돈을 떼이고, 세 들어 살던 집마저 떠나게 된다.
결말	원구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미 동욱 남매는 떠났고 원구는 자신을 탓할 따름이다.

전체 줄거리

원구는 피란지 부산에서 어릴 적 친구인 동욱을 만난다. 동욱은 누이인 동옥이 미군들에게 초상화를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동욱의 집을 방문한 원구는 자신을 외면하는 동욱이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후 원구는 비 오는 날이면 동욱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된다. 그러던 중 한 달여 만에 동욱의 집을 찾아간 원구는 집주인으로부터 동욱은 소식이 없고, 동욱 역시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는다. 원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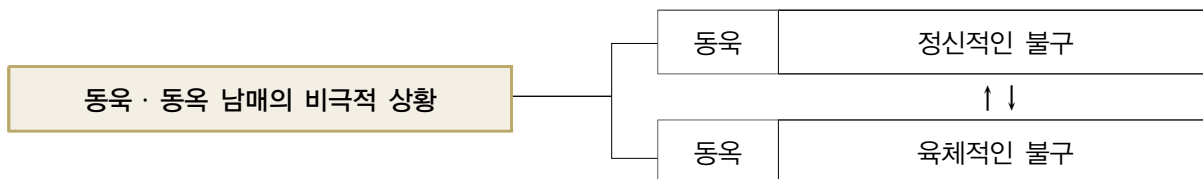


인물 분석

동욱	- 전쟁으로 인해 월남하여, 대학을 나왔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동생이 그린 초상화를 미군 부대에 팔아 생활함(정신적 불구) - 동생 동욱이를 박대하고 험한 말을 내뱉는 것 같음
동욱	- 동욱의 동생 - 어릴 적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신체적 불구) - 불편한 몸으로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지내는 신세이며,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감으로 낮은 사람에 대한 경계와 적대적 태도를 보임 - 동욱을 따라 월남하여 그림을 그리며 살고 있음
원구	- 동욱의 친구 - 동욱과 동욱 남매에 대해 관심과 연민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의 극단적 상황에서의 불행에 대해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 채 우울해 함

소설 속 갈등 양상

동욱은 어렸을 적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모멸감과 적대감을 갖고 있다. 그의 오빠 동욱은 사소한 일에도 동욱에게 신경질을 부리며 악에 받친 말을 쏟아 내는데, 이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서 정신적인 불구와 신체적인 불구를 모두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제목의 의미

소설의 제목은 작품 전체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며, 작품의 구조, 양식, 목적을 표현함과 동시에, 독자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소설의 제목은 주인공, 분위기, 이미지, 상황과 사건, 장소, 사물, 의미 등에 의해 결정된다.

비 오는 날	소설 전체의 상황을 드러내면서도, 주제를 함축하는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음
비	인물이 느끼는 운명적 중압감, 적극적인 행위 대신에 안으로만 움츠러드는 내향성이나, 우울하고 궁핍한 삶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함



배경의 효과

	특징	주제 형성에의 기능
시간적 배경 (장마)	- 지루하게 계속됨 - 안개비로 모든 곳을 젖게 만들	상황에 압도되어 행위를 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공간적 배경 (폐가)	- 어둡고, 고립되어 있음 - 쓰러져 가고 있음	전쟁 후의 황폐하고, 불구적이며 고립된 삶의 상징

이 소설은 첫머리부터 비 오는 날의 음울한 분위기로 시작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비 내리는 날,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 곧 ‘동욱’과 ‘동옥’을 떠올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소설이 6·25 전쟁 직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쟁 이후 암울한 삶의 양상을 비 오는 음울한 배경을 통해 드러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무기력하고 폐쇄적인 인물들의 태도, 전쟁통의 피란지인 부산을 배경으로 설정한 점 등은 ‘장마’나 ‘비’와 결합함으로써 작품 전체 분위기를 더욱 침울하게 한다. 이는 ‘비’를 배경으로 만남과 헤어짐이 이루어지며 방 안에 넘친 빗물로 인해 원구가 동욱의 불편한 다리를 발견하고 그간의 동욱의 태도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점, 등장인물의 한없는 무기력, 절망, 우울 등이 비 오는 날의 구질구질함과 끊임없이 결부되고 있는 점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표현상의 특징

종결 어미의 반복	‘~것이다’라는 종결 어미의 반복적 사용은 사건을 무기력한 원구의 눈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함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여 사건 자체보다는 사건에 의해 환기된 비극적인 정서에 주목하게 함
흐름이 긴 만연체의 문장	사람을 압도하는 우울하고 황폐한 상황적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묘사와 서사의 비율	사건의 흐름에 의한 서사보다는 사건의 요약적 제시, 배경이나 인물의 묘사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서정적이고 시적인 묘사와는 다름 음산함과 우울함을 정조로 하는 시대 상황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
거리 두기	전쟁의 비극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작중 사건이나 대상에 거리를 두어 냉소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
어휘의 사용	이 작품에 사용된 어휘는 가난한 생활을 묘사하기 위한 어휘(‘거적’, ‘바게스’), 비 정상적인 인간들과 그들의 상호 관계(‘병신’, ‘욕설’)등이 쓰이고 있음



손창섭 소설의 인물 유형

첫째, 실업자군. 손창섭 소설에서 작중 인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물군이다. ‘생활적’의 동주, ‘혈서’의 준모, 당수, ‘미해결의 장’의 너, ‘유실몽’의 나, ‘잉여 인간’의 익준, 봉우 등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감을 보장받지 못한 인간군이다. 이들은 사회적 성원도 아니며 고립되고 격리된 인간일 뿐이라는 데에 비극적 삶의 조건에 놓인다.

둘째, 무능력 집단. ‘피해자’의 변준, ‘광야’의 동옥, ‘잉여 인간’의 봉우 등은 아내에게 기생하며, 살아있어도 살지 않아도 흔적이 남지 않는, 인간으로서 삶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철저한 인간 모멸의 핵심적 형상이 되고 있다. 현실에 대응해 나간다가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 속에 묻혀서 모든 이상적 관념을 하나의 꿈으로 변형시키고, 그 꿈의 노예가 되어 자기를 방치한다.

셋째, 병자들. ‘혈서’의 창애, ‘생활적’의 순이, ‘비 오는 날’의 동옥, ‘광야’의 춘희 등 병자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타격을 입은 상처받은 집단이다. 이러한 사회의 영향이 그들의 질병에서 근원적인 것임이 부각될 수 있으나, 손창섭은 오히려 삶에 대한 철저한 좌절의 숙명성을 부각하기 위해 소설에 이러한 인간상을 등장시킨다.

전후 소설 (戰後小說)

한국의 전후 문학은 6·25 전쟁 이후에 발생한 문학을 가리킨다. 이 중 전후 소설은 6·25 전쟁이 가져다 준 피해상을 그린 소설을 일컫는다. 특히 이러한 소설은 6·25 전쟁 체험은 인간 그 자체를 신뢰하는 휴머니즘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문학의 한 경향을 이루게 된다. 손창섭의 ‘잉여 인간’, 선우휘의 ‘불꽃’, 오상원의 ‘모반’,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이범선의 ‘오발탄’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삶의 뿌리가 흔들린 채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암울한 현실을 그려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그 스스로 이 사회의 주변인에 불과하지만 자신과 자기 주변의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인물의 시선을 빌려 삶의 진실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이런 삶의 진실은 소외 계층 간에 유대감이 형성되지 어려웠던 전후의 불행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배경으로 엮어 읽기 -6·25전쟁

「오발탄」의 주인공 ‘철호’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가족들의 사건과 그가 혼란에 빠지는 과정을 통해, 전후 한국 사회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상실한 채 파멸해 가는 인간의 모습이 제시된다.

오발탄 / 이범선

“그렇게나 살자면 이 정도 벌써 잘살 수 있었다.”

철호: 현실이 궁핍하더라도 양심을 중시함

철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나라니요?”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홍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죽 뻗치고 앉은 자기의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성격	비판적, 현실 고발적
배경	① 시간: 6·25 전쟁 직후 ② 공간: 서울 해방촌 일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혼용



발끝으로 떨어졌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야요. 용기가 없는 거지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한 만치, 그만큼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양심이란 가시?”

“네,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십니다. 빼어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요. 윤리요? 윤리. 그런 나 일론 뻘쓰 같은 것이죠. 입으나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매한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본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대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 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짝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하층민을 비유함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권력적인 상위 계층을 비유함 아 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 일 없거든요. 흥.”

영호는 코웃음을 쳤다. 전쟁 후 혼란해진 사회상을 드러냄

(중략)

“가자!”

어머니의 그 소리가 또 들렸다. 어머니는 분명히 잠이 들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간간이 저렇게 가자 가자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에게는 호홉처럼 생리화해 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전쟁 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무의식적으로 표출함

어린것 옆에 앉은 철호의 아내는 왼쪽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손을 펴 깔고 턱을 괴었다. 아까부터 철호와 영호, 형제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는 그네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쪽 손끝으로, 거기 방바닥에 가지런히 놓인 빨간 어린애의 신발만 몇 번이고 쓸어 보고 있었다.

주제	전쟁 후 비참한 현실에서 양심을 지키며 산 인물의 몰락과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비판
특징	전쟁 직후 몰락해 가는 인물을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연관하여 드러냄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전후 사회의 경제적 궁핍과 구조적 모순을 ‘철호’와 그의 가족들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 보여 준다. 형 ‘철호’는 양심적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가난한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동생 ‘영호’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은행에서 권총을 들고 강도 행각을 벌이지만 결국 좌절하고 만다. 이와 같은 갈등은 철호 일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950년대 방향성을 상실한 채 혼란에 빠져 있었던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인물들의 다양한 대응 방식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당대 현실의 비극성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있다.

인물의 현실 대응 방식

철호	영호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함.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현실 순응적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	폭력에 의지함. 양심, 도덕, 법은 오직 가진 자들만의 논리라고 생각하여 현실을 부정하고 권총 강도 행각까지 벌이는 반항적 인물
공통점: 전후 사회의 모순과 궁핍 속에서 갈등을 일으킴	

‘오발탄’의 의미

사전적 의미	상징적 의미
잘못 쏜 탄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양심적인 인간(철호)



『**앞부분의 줄거리**』는 오는 겨울밤, 사람들이 간이역에서 기차를 기다린다. 부친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농민, 감옥에서 최근 출소한 사내, 시위 문제로 제적된 대학생, 빗 받으며 산골 마을을 다녀가는 서울 여자, 행상하는 아낙네들, 술집 아가씨, 갈 곳 없는 미친 여인 등이 그들이다.

짧은 순간, 사람들은 모두 바깥의 어둠에 귀를 모은다. 분명히 기적 소리다.

야아, 오는구나.

기다리던 기차의 도착을 맞이하는 승객들의 설레는 마음

저마다 눈빛을 빛내며 그들은 서둘러 짐 꾸러미를 찾아 들고 플랫폼을 향해 중중걸음을 친다.

그러나 맨 앞장선 서울 여자가 유리문에 미쳐 다다르기도 전에 문이 드르륵 열리며 역장이 나타났다.

“그대들들 계십시오. 저건 특급 열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역장은 문을 다시 닫더니 플랫폼으로 바빠 사라진다.

『』: 예정되어 있던 열차의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인한 고통과 불만을 보여줌

참, 그리고 보니 저건 하행선이구나. 대합실 안의 사람들은 일시에 맥이 빠진다. 『이번에도 특급이야? 똥똥이는 짜증스레 내뱉었고 아낙네들은 욕지거리를 섞어 가며 툄툄대었으며, 노인은 더 심하게 기침을 콜록거렸고, 농부는 이번엔 늙은이의 가슴을 쓸어 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년 사내와 청년도 말없이 난롯가로 되돌아갔고 맨 뒤로 몇 발짝 따라 나왔던 미친 여자는 쭈뼛쭈뼛 눈치를 살피며 도로 의자 위에 엉덩이를 주저앉힌다.』

그사이, 열차는 쿵쾅거리며 플랫폼을 통과하고 있다. 차 내부의 불빛과 승객들의 미라 같은 형상들이 꿈속에서 보듯 현란한 흔적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사위는 아까처럼 다시금 고요해졌고, 창밖으로 철축의 어둠이 잽싸게 제자리를 찾아 들어온다. 열차가 사라진 어둠 저편에서 늙은 역장의 손전등 불빛이 휘적휘적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인다. 그 모든 것이 아까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완행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특급 열차가 반복해서 지나감

▶ 여러 번 특급 열차를 보내며, 지연된 완행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대학생은 방금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열차의 불빛이 아직 자신의 망막에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것은 어느 찰나에 피어올랐다가 소리 없이 스러져 버린 눈물겨운 아름다움 같은 거였다고 청년은 생각한다. 어디일까? 단풍잎 같은 차창들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마지막 닿는 곳은 어디쯤일까? 그런 뜻 없는 질문을 홀로 던지며 청년은 깊숙이 가라앉은 시선을 창밖 어둠을 향해 던지고 있다.

기다리던 열차가 아닌 특급 열차라는 사실로 인해 느끼는 상실감

시 '사평역에서':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군대화와 산업화의 현실에서 소외된 민중과 그러한 사회의 허상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음

사람들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다. 대합실 벽에 붙은 시계가 도착 시간을 한 시간 반이나 넘긴 한 시간 반이 넘도록 기다리던 완행열차가 오지 않고 특급 열차만 오는 상황에서의 허탈함(열차 지연으로 인한 고통을 바깥으로 투사하는 것으로 읽고 있는 사람들) 채 꾸준히 재깍거리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다. 창 밖엔 짜룩짜룩 송이눈이 쌓여 가고 유리창마다 흰 보랏빛 성애가 톱밥 난로의 불빛을 은은하게 되비추어 내고 있을 뿐.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말을 잊었다. 어쩌면 그들은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년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성냥불을 댕기려다 말고 멍하니 난로의 불빛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을 안고 있는 농부도, 대학생도, 쭈그려 앉은 아낙네들도, 서울 여자도, 머플러를 쓴 춘심이도 저마다의 손바닥들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망연한 시선을 난로 위에 모은 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저만치 홀로 떨어져 앉아 있는 미친 여자도 지금은 석고상으로 고요히 정지해 있다. 이따금 노인의 기침 소리가 났고, 난로 속에서 톱밥이 툭툭 튀어 올랐다.

“호유, 산다는 게 대체 뭘이간디…….”

^{대합실 안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됨(자신의 삶이 쉽지 않고 힘들었음)}
불현듯 누군가 나직이 내뱉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꼬리를 붙잡고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사람들} 정말이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완행열차를 기다리며 각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사람들

(중략)

사평역을 경유하는 야간 완행열차는 두 시간을 연착한 후에야 도착했다.

^{어떤 곳을 거쳐 지남}

막상 열차가 도착했을 때, 대합실에서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반가움보다는 차라리 피곤함과 허탈감에 젖은 모습으로 열차에 올라탔다. ^{사람들의 행거를 삶의 여정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함} 늙은 역장은 하얗게 눈을 맞으며 깃발을 흔들어 출발 신호를 보냈고, 이어 열차는 천천히 미끄러져 가기 시작했다. 얼핏, 누군가가 아직 들어가지 않고 열차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게 보였다. 역장은 그 사람이 재 너머 오 씨 큰아들임을 ^{역장이 청년으로 인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함} 알았다. 고개를 반쯤 숙인 채 난간 손잡이에 위태로운 자세로 기대어 있는 청년의 모습이 역장은 웬지 마음에 걸렸다. 이내 열차는 어둠 속으로 길게 기적을 남기며 사라져 버렸다. ^{청년의 앞으로의 위태로운 삶을 암시함}

▶도착한 기차를 타고 뿔뿔이 헤어지는 사람들

한동안 열차가 달려가 버린 어둠 저편을 망연히 응시하고 서 있던 늙은 역장은 옷에 금방 수북이 쌓인 눈을 털어 내며 대합실로 들어섰다. 난로를 꺼야 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역장은 뜻밖에도 아직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미친 여자였다. 지금껏 난로 곁에 가지 ^{‘미친 여자’로, 소외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 인물. 유일하게 완행열차에 오르지 않음}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는 이제 난로를 독차지한 채, 아까 병든 늙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잠들어 있었다.

▶미친 여자가 뿔뿔이 홀로 대합실에 남음

그녀의 집이 어디며, 또 어디서 왔는지 역장은 전혀 모른다. 다만 이따금 그녀가 이 마을을 찾아왔다가는 열차를 타고 떠나곤 했다는 정도만 기억할 뿐이었다. 오늘은 왜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 열차를 타지 않았을까 하고 역장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아마 그 여자애겐 갈 곳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에게 있어서 출발이란 것은 이 하룻밤, 아니 단 몇 분 동안이나마 홀로 누릴 ^{삶의 목표나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감} 수 있는 난로의 따뜻한 불기만큼의 의미조차도 없는 까닭이리라.



역장은 문득 그녀가 걱정스러웠다. 울겨울 같은 혹독한 추위에 아직 얼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역장의 따뜻한 인간애가 나타남}
 흘러들어 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꿈이라도 꾸는 중인지 땃국물에 젖은 여자의 입술 한 귀퉁이엔
 보일락 말락 웃음이 한 조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몸 누일 따뜻한 곳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낌}
 이거 참 난처한걸. 난로를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없고…….

하지만 결국 『역장은 김 씨를 깨우러 가기 전에 ^{인무를 교대할 역무원} 톱밥을 더 가져다가 난로에 부어 줘야겠다고 생
^{소외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 상징}
 각하며 천천히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었다.』 눈은 밤새 내내 내릴 모양이었다.

「」: 역장은 '미친 여자'를 걱정하며 난로에 톱밥을 더 부어 주려고 함
 → 역장: 삶의 지향을 잃어버린 소외된 민중에 대해 연민을 품고 있는 인물이자,
 산업화 사회에서 소외된 민중을 바라보는 작가의 연민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

▶ 미친 여자를 걱정하는 역장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서정적, 성찰적, 회상적
배경	① 시간: 1970~1980년대 ② 공간: 시골 간이역 대합실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간이역 대합실에서 나누는 삶에 대한 교감
특징	① 객재구의 시 「사평역에서」에 서사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서술함 ② 중심인물 없이 여러 인물들의 쓸쓸한 내면 풍경을 제시함
출전	「아버지의 땅」(1984)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을 형성화하고 있다. 눈 내리는 겨울 밤 시골 간이역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아홉 사람의 쓸쓸한 내면을 그리고 있다. 이들은 험한 세상을 살면서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인물들로 1970~80년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잘 드러내 주는 인물들이다. 그들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현실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이 삶의 희망을 간직하며 사는 모습과 흡사하다. 그러나 기차는 연착되고 도착하는 열차라고는 특급 열차뿐이다. 그들은 눈으로 인해 연착된 기차를 기다리며 각자의 삶을 되돌아본다. 모두 사연은 다르지만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으며 시골 간이역이라는 공간에서 잠깐이나마 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결국 기차가 도착하여 그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진다.

작가는 이를 통해 소외당한 사람들의 애환을 그리는 한편, 사평역 대합실에 있는 난로를 통해 이들에 대한 따뜻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객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읽고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의 구조 -회상과 성찰의 구조

간이역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회상하며 삶에 대한 상념에 빠진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회상하는 이야기를 통해 진행된다.

발단	시골 간이역 대합실에 몇 사람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난로에 몸을 녹이며 각자의 삶을 떠올린다.
전개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의 사연은 매우 다양하다. 병이 난 아버지와 함께 읍내 병원에 가려는 농부, 난리 후 사상범으로 잡혔다가 출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중년 사내, 시위를 주동하다 제적된 대학생, 서울에서 음식점을 하는 서울 여자, 술집에서 일하는 춘심이 등이 생각에 잠겨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절정 결말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품은 채 톱밥 난로의 불빛을 바라본다. 두 시간 연착한 막차가 도착한다.

간이역 대합실의 풍경	■ 눈이 내리는 간이역 대합실과 역장이 바라보는 승객들의 모습이 소개됨 ■ 완행열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대합실 난로 곁으로 모여들
다양한 삶의 모습	■ 평생의 농사일 끝에 병을 얻은 아버지와 그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농부 ■ 시골의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데모를 주동하다가 제적당한 대학생 ■ 십이 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출소한 사내 ■ 돈을 떼먹고 달아난 여자를 찾아온 서울 여자 ■ 가난한 시골집에 삼 년 만에 다녀가는 술집 여자 춘심이 ■ 아이들을 집에 남겨 두고 행상을 다니는 아낙네들
대합실 안의 분위기	■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회상하며, 대합실 안에는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가 흐름
열차의 도착	■ 승객들은 두 시간 늦게 도착한 완행열차를 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짐

전체 줄거리

사평역은 간이역으로 특급 열차는 서지 않고 완행열차만 선다. 사평역 대합실에는 눈 오는 날 병원에 가자는 아버지와 짜증이 나면서도 죄스러워하는 아들인 농부, 같이 감방에 있던 비전향 장기수 허 씨의 부탁으로 그의 노모를 찾아온 중년 사내, 가난한 집안의 희망이지만 학생 운동을 하다가 제적을 당한 청년, 사평댁(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피해 서울 식당에서 일하다가 남편이 죽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식당에서 돈을 훔쳐 고향으로 내려옴)을 잡으러 왔지만 불쌍한 물골을 보고 오히려 돈을 주고 온 서울 여자 등이 완행열차를 기다리며 난로를 쬔고 있다. 이들은 두 시간 연착한 야간 완행열차에 피곤함과 허탈감을 느끼며 승차한다. 하지만 미친 여자는 완행열차를 타지 않았고, 역장은 미친 여자를 위해 난로에 널을 톱밥을 가지러 사무실로 간다.

**인물 분석**

대학생	▪ 학생 운동을 하다 유치장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제적당한 인물 ▪ 학생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체험한 작가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
중년 사내	▪ 12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얼마 전 출옥함 ▪ 현대사의 아픔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인물
서울 여자	▪ 가난한 시절을 보상받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벌고자 하는 가장 현실적인 인물
농부	▪ 노인의 아들 ▪ 평생 농사를 짓고도 가난과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함
춘심이	▪ 술집 작부 ▪ 산업화의 그늘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인물
행상꾼 아낙네들	▪ 정이 많은 떠돌이 행상꾼의 전형

‘툼밥 난로’의 의미

불빛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사색의 분위기를 제공한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에게 회상과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사물이 바로 간이역의 난로 불꽃이다. 또한 인물들을 서로 교감하게 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불꽃을 말없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을 느끼게 된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난로들이지만 난로의 불꽃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기차(막자)’의 의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상으로, 여기에서 ‘기차’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삶의 행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기차는 쉽게 도착하지 않는다.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행복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기차가 연착됨으로 해서 이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성장 위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모두 행복을 금방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기차의 연착은 꼭 이루어야 할 목표를 정해 두고 최대한 빠르게 달성하는 것을 주요 가치로 삼았던 산업화에 대한 비판이 담긴 것이며 아울러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소설의 첫 부분 보기

이 소설을 창작하는 데 바탕이 되었던 객재구의 시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청색의 손바닥’은 눈길을 걸어오면서 추위에 떨었을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한겨울 시골 간이역에 모인 사람들은 ‘청색의 손바닥’이 상징하듯 저마다 삶의 애환을 간직한 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다. 이 소설은 이러한 시적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아 시작되고 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곽재구의 시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대상, 삶의 희망을 상징함

별로 복잡한 내용이랄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돋보기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삼십 분이나 지났군.

시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소설의 첫 문장의 '좀처럼 오지 않'은 막차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이처럼 시에서 역 안의 풍경이 소설에서 첫 문장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인용한 시를 자연스럽게 소설과 연결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내용으로 읽어 읽기 -사평역

곽재구의 시에서는 분위기나 '나'의 느낌 등이 주로 형상화되어 있고, 임철우의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삶에서 겪는 아픔이 구체적인 이야기로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작품은 주제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와 소설의 표현 방법의 차이를 고스란히 느끼게 한다.

또한 임철우의 소설에는 시에 없던 '역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역장'은 공간적 배경인 사평역의 모습, 막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평역에서 /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촉각적 이미지

툭툭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1~4행: 눈 내리는 대합실의 풍경)

그믐처럼 멎은 줄고

멎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난로에 의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화자에게는 그리운 순간을 기억하게 함

5~8행: 고단한 사람들의 모습과 화자에 걸는 '나'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주위에 얹어 버린 손을 따뜻한 불에 녹이는 모습으로 표현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 잠시나마 동문 기쁨으로 일상의 고단함을 잊는 순간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삶을 묵묵히 견뎌 내야 한다는 것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애상적, 감각적
주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회한과 그들에 대한 연민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함. ② 차가움과 따뜻한 이미지가 대조를 이룸. ③ 간결하고 절제된 어조로 대상을 표현함.

작품 해제

이 시는 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에 간이역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겨울밤 시골 간이역에는 대체로 삶에 지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든다. 화자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응시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편, 과거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떠올린다. 시인은 이처럼 가장 궁벽한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우울한 사람들의 모습을 슬프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모두들 알고 있었다.

9~16행: 막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내면 풍경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 형겨운 삶을 암시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짜룩짜룩 눈꽃은 쌓이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존재 공감각적 상상(눈 내리는 장막의 풍경)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사람들을 개인이 아닌 함께라는 대상으로 인식

17~21행: 눈꽃을 통해 잠시 위로를 받는 사람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고단한 삶도 결국 과거가 되고 추억이 될 것임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스쳐 지나가는 급행 열차의 차창을 비움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꽃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사람들에 대한 연민

22~27행: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

시적 화자의 시선

이 시의 화자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의 애환을 조용하게 응시하고 있다. 화자는 과거의 그리웠던 순간들, 즉 밝고 따뜻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현재의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배경으로 엮어 읽기 -1970년대 민중의 삶

「삼포 가는 길」은 1970년대 대표작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따뜻한 응시가 드러나 있다. 여행 중에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산업화의 폐해로 드러나는 고향 상실의 아픔과 이 고통을 서로 위로하는 인간애를 느낄 수 있다.

삼포 가는 길 / 황석영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 위의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 왔다.

“어디 일들 가슈?” / “아노,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 “삼포라구 아십니까?”

“어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데나 됩니까. 고작

해야 고기잡이나 하구 감자나 매는테요.”

정 씨가 생각하는 과거의 '삼포' - 전형적인 농촌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 “십년.”

삼포의 현재 상황을 모르는 것에 대한 반응

노인은 그렇겠다면 고개를 끄덕였다.

“말두 말두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농구, 추억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나른다구.”

현재의 '삼포' - 농어촌이 산업화, 도시화되는 현실을 보여줌

“뭇뻘에요?”

“넌들 아나, 뭇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답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네.”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사실주의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비판적
배경	① 시간: 1970년대의 겨울날 ② 공간: 공사에서 철도역까지 눈 덮인 길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하층민들의 애환과 연대의식
출전	「신동아」 (1973)

작품 해제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들의 삶의 애환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그린 소설이다. 전과자, 뜨개니 노동자, 작부 등 하층민들이 동행하게 되면서 정신적인 유대감을 가지게 되지만, 고향을 상실하고 다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삶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 “그대루가 뭐요. 맨 천
지에 공사판 사람들에게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요.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
늘을 잇는 법이거든.” 개막이나 사고

자연을 파괴하는 산업화에 대한 비판

작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 씨에
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영
달이가 말했다.

“잘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 때에 기차가 도착했다. 정 씨는 발걸음이 내키질
않았다.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정신적 고향

어느 곁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버렸다.

자신이 생각하는 고향이 없게 영달과 같은 쓰내기 처지가 됨

영달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막노동자로, 행동과 말은 무뎢 뚱하지만 따뜻한 인정을 가진 인물. 뜨내기 생활을 계속 해 오다 정 씨와 함께 삼포에 가려 함
정씨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공사장에서 노동하며 살다가 고 향인 삼포를 찾아가는 인물. 삼포가 변했다는 소식에 마 음의 정처를 잃고 영달과 같은 신세가 됨
백화	술집 작부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세상을 살아왔지만 인정이 많은 인물. 길에서 만난 정 씨, 영달과 동행하다 가 자신의 고향으로 감

‘삼포’와 ‘길’의 의미

삼포	정 씨의 고향인 ‘삼포’는 작가가 설정한 가상 공 간으로,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 안식처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러한 ‘삼포’가 산업화의 물결 에 휩쓸려 공사판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은 안식처 로 삼을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렸음을, 즉 정신 적 고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길	‘길’은 등장인물의 만남과 헤어짐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인생 자체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인물의 대립: 고통 받는 성동리 농민들(○) ↔ 지배 집단, 성동리 농민들을 착취하는 집단(△)

이글이글 달아 있는 폭양 아래 난데없는 홍수 소리다. 물벌레 고기 새끼가 죄다 말라져 죽고, ^{폭동을 두려워한 T시 수도 출장소가 저수지의 물을 터놓아 흘러가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 땅거미가 줄을 치고, 개미 떼가 장을 벌였던 붓도랑에, 둔덕이 넘게 벌건 황톳물이 우렁차게 쏟아져 내린다. 빨갛게 타서 죽은 곡식이야 인제 와서 물인들 알라마는, 그래도 타다 남은 벼와 시든 두렁콩들은 물소리만 들어도 생기를 얻은 듯이 우줄우줄 춤을 추는 것 같다. 한길 양옆을 흘러가는 붓도랑가에는 흰 옷, 누런 옷, 혹은 검정 치마가 미친 듯이 부산하게 떠들며 오르내린다.

수도 저수지(貯水池)의 물을 터놓은 것이다. 성동리 농민들이 밤낮없이 떼를 지어 몰려가서 애원에, 탄원에 두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하고, 불평도 하고, 나중에는 밤중에 수원지 울안에까지 들어가서 물을 달리 돌려내려고 했기 때문에, T시 수도 출장소에서도 작년처럼 또 폭동이나 일어날까 두려워서, 저수지 소제도 할 겸 제2(第二)저수지의 물을 터놓게 된 것이다. ^{보관사의 노수이 물을 가로막았기 때문}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작년에 일어난 사건}

그러나 고까짓 저수지의 물로써 넓은 들을 구한다는 건 되지도 않는 말이고, 물을 보게 된 것이 ^{저수지의 물로는 가뭄을 해소하기 어려움} 차라리 없을 때보다 더한층 시끄럽고 싸움만 벌어질 판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노수이 저수지의 물을 막았으나 T시 수도 출장소가 성동리 농민들의 '폭동'을 두려워 해 물을 터 준} 들개는 논이 보꼬리에 달렸기 때문에 몇 번이나 저수지 물구멍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붓머리까지 가서 물을 조금 달아 가지고 오면, 도중에서 이리저리 다 떼이고 자기 논까지는 잘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수삼 차 오르내리고 보니, 꼭 눌러 오던 화가 그만 불끈 치밀었다.

“여보, 노장님!”

들개는 오던 걸음을 되돌려서, 소리를 치며 비탈길을 더위잡았다.

“제에기, 논을 떼었으면 떼었지, 이젠 할 수 없다!”

^{물길을 막는 노수의 행태에 대한 들개의 분노와 불만} 그는 급기야 이를 악물었다. 어느 앞이라고, 만약 한 번이라도 점잖은 중에게 선불리 반항을 했다가는 두말없이 절 논이라고는 똑딱 떼이고 마는 것이다.

^{보편적인 스님과는 거리가 있는 이기적인 인물} 노승은 들은 체 만 체, 들개가 가까이 가도 양산을 받은 그대로 물을 가로막고 있었다.

^{노수이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함}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밀엿사람은 굶어 죽어도 좋단 말이오?”

^{「」: 들개와 노수의 극단적인 대결의 분위기가 심화됨(권력 계층인 '보관사'와 소외 계층인 농민 사이의 이원적 대립의 양상을 보여줌)} 들개는 커다란 샤벨로써 노승의 장난감 같은 삼가래를 뗏장과 함께 찍어 당겼다. 물은 다시 췌—하고 밑으로 흘러내린다.

“이 사람이 버릇없이 왜 이럴까?”

노승은 짐짓 점잖은 체하고 나무라면서도, 눈에는 시뻘하는 빛과 독기가 얼씬거린다.

“살고 봐야 버릇도 있겠지요.”

“아하, 이 사람이 아주 환장을 했군. 아서라 그렇게 하는 법이 아니다.”



노승은 다시 물을 막으려고 들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승의 행동

“천만에도요! 우리도 살아야겠어요. 물을 좀 가릅시다. 노장님까지 이래서야…….”

둘째 역시 자신의 입장만을 강조함

▶둘째와 노승의 갈등

둘째는 제 손으로 갈랐다. 그리고 몇 걸음 못 가서, 또 어떤 논 귀퉁이에서 조그마한 애새끼 한 놈이 쪽 나오더니 물을 가로막고는 언덕 밑으로 숨어 버린다.

“예끼, 쥐새끼 같은 놈!”

둘째는 골 안이 울리도록 고향을 내지르며 쫓아가서, 그놈의 물꼬에다 아름이 넘는 돌을 하나 밀어다 붙였다.

길 저편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다. — 갈가리 낚아 미어진 흰 옷에, 허리짗만 남은 — 남방 토인들의 나무 꺾대기 치마 같은 몽당치마를 걸친 가동 할멈이 붓도랑 한복판에 펴펴져 앉아서 목을 놓고 울어 댔다.

“에구 날 죽여 놓고 물 다 가져가오.”

물길을 막는 이시봉의 위협에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내뱉은 말(절박함)

“이 망할 놈의 늙은이, 남이 일껏 끌고 온 물만 대고 앉았네. 어디 아가리만 벌리고 앉았지 말구 너도 한 번 물이나 끌고 와 봐!”

경찰관 주재소의 고자쟁이로 알려져 있는 어지봉이란 젊은 놈의 팽이는 더뿔머리를 풀어헤치고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잘 알려바치는 사람을 낚아 이르는 말 더뿔머리는(더부룩한 머리털이 조금 길게 늘어져 자꾸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털 악을 쓰는 늙은 과부 할멈의 허벅살에 시퍼런 멍울을 남겨 놓고 갔다.

이시봉에 의한 것(징박받는 소외 계층의 현실을 상징)

둘째는 보릿대 모자를 부채 삼아 내흔들면서, 쥐꼬리만 한 물을 달고 내려가다가, 철한이란 놈하고 붕구란 놈이 아주 논 가운데서, 곰처럼 별로 말도 없이 이리 밀치락 저리 밀치락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말려 볼 생각도 않고 제 논으로만 갔다. 그의 논으로 뚫린 물꼬는 으레 또 짹 봉해져 있었다.

“어느 놈이 이렇게 지독하게…….”

막힌 물꼬를 냉큼 터놓고서, 막 논두렁 위에 올라서자니까, 자기 논 아래로 슬그머니 피해 가는 오촌 아저씨가 보인다. 아저씨도 환장이 되었구나 싶었다. 새벽부터 나돌며 날뛰어도 반 마지기도 채 적시지 못한 것을 돌아보고는 둘째는 그만 낙심이 되어서 논두렁 위에 털썩 주저앉았으나, 그 쥐꼬리만 한 물줄기가 끊어지자 그는 다시금 그곳을 떠났다.

철한이와 붕구란 놈은 아직도 싸우고 있었다.

“이, 이, 이놈의 자식이 사람을 아주 낮보고서.”

붕구란 놈이 벌니를 내 물고서 악을 쓴다.

“글쎄, 정말 이걸 못 놓겠니?”

붕구가 철한을 붙들고 있자, 움작당썩도 못 하게 되어 화가 난 철한

철한이란 놈이 아무리 제비 손을 넣으려고 애를 써도, 워낙 떡심 센 놈이 돼서 붕구는 달짝 앓



고, 되레 철한이란 놈의 턱밑을 쥐고 자꾸 밀기만 했다.

그러던 놈들이, 들깨가 한번 소리를 치자, 서로 잡았던 손을 흐지부지 놓고서 논두렁 위로 올라왔다.

“예끼 싱거운 녀석들! 물도 없애 놓고 무슨 물싸움들이야! 분풀이할 곳이 그렇게도 없던가 온!”
 들깨의 이 말에, 그들은 쥐꼬리만 한 봇물조차 끊어지고 만 빈 도랑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물을 달 수 없는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표출한 행위
 ▶ 겨우지의 물로는 성동리의 논을 전부 달 수 없어 싸움이 벌어짐

(중략)

마침내 군청에서 주사 나리까지 출장을 나와서, 소위 가뭄으로 인한 피해 상태의 실지 조사를 하고 가더니, 달포가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동네 안에는 다만 주림과 불안만이 떠돌 뿐이었다. 그래도 보광사에서는 갑자기 간평(看坪)을 나왔다. 고자쟁이 이시봉과 본사 법무원(法務院)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미리 각황을 조사하여 소작료를 결정하던 일
 본래 취지: 원래 농민들에게 적절한 소작료를 매기기 위한 것 → 농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변질
 에서 셋— 도합 네 사람이 나왔다.

간평! 소작료! 농민들에게는 이 말이 무엇보다도 무섭고 또 분했다. 그러나 그날 절 논 소작인 으로서는 물론 하나도 출타를 앓고 기다렸다. 농사 조합의 평의원이 되어 있는 진수도 그날은 면 소 일을 제쳐 놓고 중들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진수의 집 사랑에서는 일찍부터 술상이 벌어졌다. 미리 마련해 두었던 밀주와 술안주가
간평을 나온 사람들이 간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유흥을 즐기는 자리
 이내 모자랐던지, 머슴 놈이 보광리 상점으로 종종걸음을 치고, 쇠고기 굽는 냄새가 호듯이 새어나오는 통에, 대문 밖에 죄인처럼 쭈그러뜨리고 앉은 소작인들은, 괜히 헛침만 꿀떡꿀떡 삼켰다. 작인들은 간평원들의 미움이나 받을까 저어했음인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가서는, 오시느라고 수고했다고 공손히 수인사를 하고 나왔다. 고 서방은 지난여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이가 절로 갈렸지만 그래도 시봉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헴, 에헴, 에—헴!”
대문 밖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 어린 간평원에게 주눅 들지 않았다는 것을 걸로 보여 주려는 치상 노인의 행동
지삼 노인도, 듣는 사람의 가슴까지 걸릴 기침 소리를 연거푸 뿜으면서 기다란 지팡이를 끌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식 같은 사람들 앞에 절을 하고서는, 그러지 말라던 아들의 말을
치상 노인이 실제로는 대문 안에 들어가서 절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음
 듣지 않고서, 그에 자기 집 농사 사정을 여쭙어 보려고 했다.

“여보 노인, 그런 소리는 할 필요 없소. 메밀을 갈았으면 메밀 간 세만 내면 되지 않겠소?”

이시봉은 거만스러운 반말로써 사정없이 쏘았다.

치삼 노인은 다시 말해 볼 여지가 없었다.

“여보, 그런 말은 이런 데서 하는 법이 아니오. 괜히 남 술맛 떨어지게!”
간평원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는 보광사의 주의 말(치상 노인의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자신의 우월감을 표출함)
 곁에 앉은 중 하나가 뒤를 따라 핀잔을 하는 바람에, 화가 더 치밀었으나, 진수의 권하는 말에
간평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치상 노인의 강경
 치삼 노인은 다행히(!) 무사하게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허 참, 복 받겠다고 멀쩡한 자기 논 시



주해 놓고 저런 설움을 받다니 온!” 하는 젊은 사람들의 말도 들은 채 만 채, 뼈만 남아 왈왈 떨리는 다리를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진수네 집 대문 밖에, 노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서 어서 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더러는 투덜거리며 돌아가고, 잡담이나 하고 고누나 두던 늙은 친구들도 나중에는 역시 불평이 나왔다.

“제에기, 간평을 나온 겐가, 술을 먹으러 나온 겐가? 아무 작정을 모르겠군.”

머리끝이 희끔희끔한 친구가 이렇게 불통하니깐, 곁에 있던 까만 딱지가,

“글쎄 말이야, 이것들이 또 논을랑 둘러보지도 않고 앉아서만 소작료를 정할 것이 아닌가?”

“제에기, 우, 우리 논에는 또 안, 가겠군. 자, 작년에도 앉아서 세만 자, 자 잔뜩 매더니…….”

▶간평원들이 간지를 열어 소작료를 올릴 궁리를 함
간평원들에 의해 억압받는 성동리 주민들의 모습이 제시됨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성격	사실적, 현실 참여적, 저항적
배경	① 시간: 1930년대 어느 여름 ② 공간: 사하촌인 성동리와 보광리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부조리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저항
특징	「조선일보」(1936)

작품 해제

193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김정한의 데뷔작이다. 보광사라는 절의 논을 소작하며 살아가는 성동리 마을 농민들의 문제를 그린 단편소설. 특정한 주인공 없이, 일제 강점기의 모순된 농촌 현실 속에서 제멋대로 굴며 성질이나 행동이 몹시 난폭함 가둠과 지주(地主)의 무자비한 횡포로 고통을 겪으면서 농민 스스로 연대 의식의 필요성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남에게 빌려 주고 지대(地代)를 받는 사람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지주의 위치에 있는 보광사의 스님과 관료 등의 지배 집단에 의해 억압받는 농민들의 삶과 저항 의식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보광리 사람들과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성동리 농민들의 삶을 대조시켜 소탈당하는 민중의 모습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강제로 빼앗음

**작품의 구조**

발단	극심한 가뭄에 논바닥이 말라붙었다. 들깨는 논에 물을 대러 갔다가 허탕을 친다. 보광사 중들이 물을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자기 논이 물꼬를 터놓은 고 서방은 보광리 사람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저 수지의 물은 끊긴다.
전개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가을이 되었으나 흉작이었다.
위기	상한이와 차돌이는 알밤을 줍다 산지기에게 들키고 만다. 도망치다 차돌이는 굴러 떨어져 죽고 차돌의 할머니는 미치고 만다. 농민 대표인 고 서방, 들깨, 또쥔이가 보광사에 선처를 호소하나 거절당하고 논에는 ‘입도 차압’이라는 팻말이 붙는다.
절정 결말	극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이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 벼짚단을 들고 보광사로 향한다.

전체 줄거리

타작 마당, 말라붙은 뜰 한가운데에 지렁이 한 마리가 버둥거린다. 극심한 가뭄이다. 들깨는 논에 물을 대려고 나갔다가 허탕만 친다. 그 알량한 붓물까지도 보광사 중들이 죄다 그들 논으로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성동리 농민들 대부분이 보광사의 땅을 부치고 사는 소작농이다. 치삼 노인은 중의 꾀에 빠져 보광사에 논을 기부하고는 이제 그 논을 소작하는 신세다. 절은 불공을 드린다고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고 무거운 소작료를 부과하는 횡포를 부린다. 수도 저수지 출장소에서는 농민 폭동이 염려되어 잠깐 물길을 튼다. 그러나 생색만 낸 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물싸움이 벌어지고 인심만 흉하게 된다. 그중에도 들깨는 논에 물을 댈 수 있었는데, 그것도 고 서방이 물꼬를 터놓았기 때문이었다. 고 서방은 연행된다.

성동리 주민들은 기우제를 지내고 보광사 역시 기우 불공을 드리지만 아무런 영험이 없다. 가을이 되었으나 추수할 것이 없을 정도의 흉작이었다. 다행한 것은 고 서방이 석방된 일뿐이다. 어느 날 상한이와 차돌이는 알밤을 줍다가 산지기에게 들킨다. 도망을 치다 차돌이는 굴러 떨어져 죽고, 그 할머니는 미치고 만다. 보광사에서는 흉작임에도 예전과 똑같이 소작료를 요구하고, 성동리 농민들을 대표한 고 서방, 들깨, 또쥔이 등이 찾아가 선처를 호소하나 거절당한다. 논에는 ‘입도 차압’이라는 팻말이 붙고 고 서방은 야반 도주하고 만다.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자 성동리 농민들은 차압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기 위해서 벼짚단을 들고 보광사로 향한다. 철없는 아이들도 행렬의 꿈무늬에서 절 태우러 간다고 부산히 떠든다.

인물 분석

절 땅을 소작하며 고통 받는 성동리 농민들	치삼 노인, 들깨, 봉구, 고 서방 등
성동리 농민을 학대·착취하는 계층	보광사 중, 순사, 군청 주사, 농사 조합 평의원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농촌 현실의 모순이 몇몇 영웅적 인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통 받는 농민 전체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작가 의식 때문에, 특별한 주인공의 삶보다는 보광리와 성동리 사람들 전체의 모습을 보여 주는 데 치중하고 있다.

또한 인물의 이름을 들깨, 또쥔이 등으로 명명(命名)한다. 이를 통해 인물의 순박함과 작품의 토속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농촌 소설로서의 리얼리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설 속 갈등 양상

갈등의 내용 :		
가뭄에 물대기 싸움, 논에 붙은 '입도 차압'		
지배 집단		농민 집단
- 보광사 중 - 순사 - 조합이사 - 면주사	↔ 갈등	- 들깨 - 고서방 - 또쫓이 - 성동리 농민들

'사하촌'에서 절 땅을 소작하며 고통 받는 성동리 농민들(치삼 노인, 들깨, 봉구, 고 서방)과 성동리 농민을 학대·착취하는 계층(보광사 중, 순사, 군청 주사, 농사 조합 평의원)이 벌이는 갈등은 집단과 집단의 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배경을 통한 갈등 제시

공간적 배경	보광리(중의 마을) - 보광사 - 젊은이들: 농번기에 여자들을 데리고 자동차로 여행이나 함	↔ 갈등	성동리(소작민 마을) - 쇠다리 주사(이 주사): 이조 말년에 고을 원님에게 쇠다리 하나 상납해 '주사' 자리를 얻음 - 이시봉(고자쟁이) - 철한, 봉구 - 치삼 노인과 아들(들깨)-아내, 노인의 딸(덕아), 노인의 손자
	시간적 배경		- 가뭄으로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초여름 - 이런 흉년 아래에서도 소작료를 모두 바쳐야 하는 일제하의 모순된 농촌 현실(갈등의 발생)

제목의 의미

'사하촌'이란 '절 아래 마을'로 다른 마을보다 부처님의 덕을 입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곳이어야 하나, 절의 중들까지 지주로서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마을이라는 반어적 의미를 가진다.

사실주의적 수법

이 소설은 수탈당하는 농촌의 저항 의식을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그린 소설이다. 억압받는 농민들의 끈질긴 삶을 통해 이 땅의 민중에 대한 애정을 보여 주고 있으며, 결말 부분에서 모순에 대결하는 민중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주인공이 없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 고통을 겪는 동안 어려운 사람들끼리 뭉쳐 함께 싸우는 농민 집단 전체가 주인공이다. 가뭄과 지주의 횡포로 고통이 극에 달하자 보광사 중들을 중심으로 한 지배 집단에 맞서 스스로 현실을 자각하고 일어나는 성동리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품의 의의**

이 작품에서 농민들의 자각은 농촌 계몽 소설에서 흔히 보이듯이 지식인들의 농촌 계몽 운동에 의해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깨닫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농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거나 지주의 횡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다른 소설들과 다른 점이다.

갈래 이해하기 -농촌 소설(農村小說)

농촌 계몽형 농민 소설	지식인이 주도하여 농민들을 계몽시키는 내용의 농촌 소설(이광수, '흙', 심훈, '상록수')이나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귀농(歸農)하여 참다운 삶을 실천하며 산다는 내용(이무영, '제1과 제1장', 박영주, '모범 경작생')이 담긴 귀농형 소설이 포함될 수 있다.
서정적 농촌 소설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배경으로 농촌이 등장하며 농촌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갈등보다는 토속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의 농촌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이효석의 '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실적 농촌 소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사실적인 태도로 그려내는 소설들이다. 여기에는 지주와 소작농의 갈등,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농민의 삶 등이 자주 조명된다. 이러한 유형의 소설로 김정한의 '사하촌'을 들 수 있다.

갈래로 엮어 읽기 -농촌 소설

심훈의 「상록수」는 농촌 계몽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하촌」과는 달리 농민과 지주와의 갈등이 매우 약화되어 있으나 농촌의 현실을 계몽을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지식인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다.

최서해의 「흙염」은 농촌의 현실을 다루면서 「사하촌」과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타결이나 「상록수」의 농촌 계몽과는 다른, 농민들의 분노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주인공의 방화는 이를 잘 드러낸다.

상록수 / 심훈

“그러나 여러분! 끝으로 꼭 한마디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고 목청을 높여 힘차게 청중에게 소리친다. 대원들은 물론, 사회자까지도 다시금 긴장해서 엄숙해진 동혁의 얼굴만 주목한다.

“눈 뜬 소경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필요합니다. 계몽 운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업 중의 하나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지식분자인 우리들이 이러한 기회에 전 조선의 농촌, 어촌, 산촌으로 방방곡곡에 파구들어가서 그

핵심 정리

갈래	장편 소설, 농촌 계몽 소설
배경	① 시간: 1930년대 ② 공간: 가난하고 낙후된 농촌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남녀의 순결한 사랑 농촌 계몽을 위한 헌신적 의지



네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어떡하면 그네들이 그 더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머리를 싸매구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육칠십 년 전 노서아의 청년들이 부르짖던 브나로드(민중 속으로라는 말)를 지금 와서야 우리가 입내 내듯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에게 뒤떨어진 것을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높직이 앉아서 민중을 관찰하거나 연구의 대상(對象)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단연히 버리고, 그네들이 즉 우리 조선 사람이 제 힘으로써 다시 살어나기 위한 기초 공사(基礎工事)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바루 여러분의 손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물질로, 즉 경제적으로는 일조일석에 부활하기가 어렵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온갖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정신, 요샛말로 '이데올로기'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박동혁의 농촌 계몽 운동: 경제적 사상적

(중략)
그 동안 하나 둘 흩어져 있던 아이들은 영신이가 돌아온 뒤에 신입생이 열씩 스물씩 부쩍부쩍 늘었다. 때마침 농한기라 어른들은 물론 오십도 넘는 노파가 손녀의 손을 잡고 와서는,

“죽기 전에 글눈이나 떠 보게 해 주시유.”

하고 진물진물한 눈으로 첩판을 쳐다보고,

“가—가—거—겨.”

하고 따라 읽는 것을 볼 때 영신은 감격에 가슴이 벅찼다.

‘내가 오기 전에는 이 동네 사람이 거진 구 할 가랑 칠 할 가랑이나 된다. 오십 이상 늙은이와 젓먹이를 빼어놓으면 거진 다 눈을 떼어 준 셈이다. 더구나 부인 친목계를 중심으로 부인네들이 깐 것과 생활이 향상된 것은 놀라울 만하지 않으나.’

하고 자못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채영신의 농촌 계몽 운동: 문화적(문맹 퇴치)

농촌 계몽 소설

이 소설은 193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농촌 계몽 운동을 다루고 있다. 농촌 계몽 운동에 투신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의 축으로 하여, 농촌 계몽 운동에 헌신하는 지식인들의 모습과 당시 농촌의 실상을 그려 내고 있다.

브나로드 운동

이 작품의 사상적인 배경이 된 것은 러시아에서 시작된 브나로드 운동이다. '민중 속으로'라는 뜻의 브나로드 운동은 농촌 계몽 사상과 문맹 퇴치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물 간 계몽 운동의 차이

주인공인 채영신과 박동혁이 펼치는 농촌 계몽 운동의 성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채영신이 문맹 퇴치로 대표되는 문화적 계몽에 주력한다면, 박동혁은 경제적·사상적 운동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새의 선물 / 은희경



〔앞부분의 줄거리〕 12세 소녀 진희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외할머니,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삼촌은 그의 친구 허석과 함께 집에 오게 되었다.

“며칠 동안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게 됐구나.”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소가 풀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의 목소리만을 통째로 삼켜 버린다. 조금 후에야 소의 밥통에서 도로 끄집어내져 씹히는 풀처럼 그의 말을 도로 새김질해보자 그제야 그의 말뜻이 머리에 들어온다. 헤어지게 됐구나, 라고.

“언제 가는데요?” / “응. 내일.”

『허석의 짧은 대답은 내 가슴을 짧게 찌른다. 그러면, 허석이 떠난다는 말인가?』

『 허석과 이별하면서 느끼는 ‘나’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서술(자기 고백적 어조)』

나에게 있어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이별에 대한 항체가 분비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음식물이 들어가자마자 침이 분비되는 것과 같다.』 이별이 닥쳐왔다는 것을 깨닫자 그것을 녹여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에서는 또 내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허석에게 ‘나’가 느끼는 이별의 고통을 감추는 역할)』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해져 있는 참이라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성공한다.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나가 허석에게 말한다.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짐짓 명랑한 목소리로.

『보여지는 나’(‘나’의 실망감을 숨기는 역할)』

“우리 고향 어떠셨어요? 인상 좋았지요?”

『이별에 대한 본심을 허석에게 숨기려는 의도』

내 어깨 위에 얹은 허석의 팔에 약간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은 채로 내 쪽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자세가 되어 허석의 눈을 마주 본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허석이 부드러운 보이는 입술을 움직여 말한다.

“응. 특히 진희 넌 잊지 못할 거야.”

나는 그다음에 그가 나를 와락 안아 버리거나 앓을까 하고 상상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 그때 마침 삼촌이나 이모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화들짝 팔을 풀고는 괜히 어깨를 툄다든가 하면서 은밀한 짓을 들킨 사람의 무안함을 무마해 본다? 그건 너무 유치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린 사랑하니까 상관없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포옹을 하고 있을 자신은 없고…… 어떻게 지치미를 떼야 하나, 그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나를 와락 안아 버리지는 않았다. 대신 내 어깨 위에 얹었던 팔을 쳐들더니 가볍게 등을 몇 번 토닥이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몸을 일으키고는 “내일 아침에 보자.” 하면서 다시 삼촌 방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아니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와서 신발을 신는다. 역시 변소 쪽에 불일이 있는 모양이다. 신발 신는 소리를 들었는지 삼촌이 방 안에서 “석, 후라시 갖고 가지 그래.” 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마루에서 일어나는 일이 방 안에서 비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삼촌은 '나'와 허석의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한 상황, 대화만 들었을 -삼촌은 허석에 대한 '나'의 감정을 알 수 없음

이모는 또 편지를 끼적이지라 방바닥에 엎드려 있다. 내가 들어가니 눈길을 그대로 편지지에 박은 채 “저 오빠 며칠 안 있다 가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그 말은 나와 허석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가 방 안에 다 들렸다는 사실과 더욱이 그것이 누가 듣기에도 아무런 비밀스러운 점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내가 공개 방송 무대에서 공연 중이란 것을 나만 몰랐던 셈이다.

삼촌이 차부에 나가겠다고 옷까지 갈아입는 것을 허석은 한사코 사양한다. 토요일이라 버스 시간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면(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다.) 그가 버스에 올라탄 것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겠다는 삼촌의 말에 허석은 정 안 되면 도청 소재지로 나가서 차를 갈아타겠다고 우긴다. 삼촌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말해 놓고 나를 보더니 생각났다는 듯이 이렇게 덧붙인다.

“참, 진희 학교가 차부 뒤쪽이니깐 아침 먹고 같이 나가면 되겠군.”

나는 허석을 배웅할 수 있다는 데에 두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허석도 나의 배웅은 받겠다는 뜻으로 나를 향해 웃어 보인다. 나는 그 웃음을 이제 볼 수 없다. ‘나’가 등교하는 길이 허석이 잔부로 가는 길과 겹치기 때문는 사실에 가슴이 허전하다.

차부에서 조금 지체할 시간을 갖기 위해 다른 날보다 집에서 일찍 나왔다. 가방을 어깨에 걸치면 허석을 보자 불현듯 서울이든 어디든 그를 따라서 가 버리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오른다. 그가 오던 날도 그랬다.

‘나’는 허석을 처음 본 날부터 좋아했음

(중략)

우리 집 골목이 보인다. 걸음이 느려진다. 허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부리나케 이 골목을 들어서던 지난 사흘의 행복한 기억이 더욱 나를 불행하게 한다. 이모가 사 온 ‘자유 일기’에는 페이지마다 맨 밑에 ‘오늘의 명언’이 적혀 있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다. “불행한 날에 행복한 지난날을 떠올리는 것은 이중의 고통이다.” 그 말이 다가와 가슴을 찌른다. 허석과의 이별에 슬퍼함 힘없이 대문을 열며 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린다. 오늘 이 우주에서 가장 슬픈 것은 바로 나일 것이라고.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허석이 마루에 앉아 있다.

처음에는 놀랐고 그다음에는 내가 드디어 헛것을 보는가 싶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내가 느낀 감정은 놀랍게도 실망이었다.

그가 다시 온 것이 반갑지 않을 뿐 아니라 실망스럽기까지 하다는 걸 깨닫고 나는 어리둥절해졌



다. 그럴 리가 없다. 불과 몇 초 전, 저 대문을 열고 들어서기 직전까지도 나는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 아무리 보아도 나는 허석과의 예상치 않은 재회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아까의 슬픔, 바로 거기에서 이별의 이미지가 완결되기를 원했던 것이었다.

「「허석과 이별한 상황에 처한 '나' 팔취 역을 맡아 지금껏 열심히 연습했는데 갑자기 「허석과 재회한 '나' 콩쥐로 배역이 바뀐 것처럼 나는 맥이 빠진 허석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의 감정을 나타냄 다. 허석과의 예상치 않은 재회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심리 그렇게나 몰두해 있던 팔취의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서 허석에 대한 사랑이 시들해졌음 콩쥐의 감정에마저 무덤덤해진 다.」 이별의 슬픔이 무의미해지자 사랑마저 시들해진다는 걸 나는 처음 깨닫는다.

「「허석과의 이별에 대해 '나'가 슬픔에 잠겨 있었음 새로 맡은 배역에 미처 적응이 되지 않아 내 표정은 굳어 있다. 다행히 '보여지는 나'가 뛰쳐나와 '바라보는 나'의 실망을 감추는 순발력을 발휘해 준다.

“오전에 출발하는 버스가 고장이래. 오후에 두 번 더 있다는데…….”

허석은 팔목을 들어 시계를 본다. / “출발할 시간이 거의 다 됐어.”

핵심 정리

갈래	장편 소설, 액자 소설
구성	액자식 구성
배경	① 시간: 주인공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의 어린 시절 ② 공간: 남도 지방의 어느 소읍, 외할머니의 집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열두 살 소녀가 바라본 어른들의 삶과 자신의 성장기
특징	①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전개함 ② '나' 자신의 심리가 주로 서술되어 있음
출전	「문학동네」(1995)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어른인 '나'가 12세 무렵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액자 소설이며, 12세 소녀의 성장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나'는 자신의 경험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이웃집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시선에서 그려 내고 있다. 또한 '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자신을 분리하여 어른들 앞에서는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 독자에게는 본심을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시선과 함께 '나'의 심리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작품의 구조

이 작품은 삼십대 중반을 넘긴 주인공 ‘나’가 자신의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액자소설이다. 자신을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냉철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주인공의 열두 살 때부터의 버릇은, 자살한 엄마와 사라져버린 아빠의 공백 속에서 너무 일찍 철이 든 주인공의 방어기제로써 기능하며, ‘나’의 깊은 상처를 짐작케 한다. 스스로의 존재를 키워 나가야 했던 유년기의 체험에서 비롯된 ‘부재의 욕망’이었음이 작품의 이면에서 읽혀진다.

전체 줄거리

‘내(진희)’는 여섯 살 때 엄마를 잃고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에게 맡겨진다. 어머니의 불행한 죽음을 알게 된 ‘나’는 자신을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분리하면서 어른들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지만, 내면으로는 삼촌, 이모, 함께 사는 선생님, 이웃 사람들의 삶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나름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지낸다.

제시된 부분은 ‘나’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석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삼촌은 친구 허석과 함께 집으로 온다. ‘나’는 허석을 좋아하지만 허석은 ‘나’를 어린 동생 정도로 여긴다. 허석은 ‘나’의 속마음을 모른 채 며칠 머무르다 서울로 올라간다.

이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의 주변에서 벌어진다. 그리고 어느 겨울 이모와 함께 병원에 갔다 온 ‘나’는, 자신을 데리러 온 아버지를 만나 할머니와 이모 곁을 떠나게 된다.

인물 분석

‘나’ (진희)	- 삼십대 중반을 넘긴 주인공(초등학교 5학년 무렵의 어린 시절을 회상함) - 남도 지방의 어느 소읍, 우물을 중심으로 하여 두 채의 살림집과 가게채로 이루어진 ‘감나무 집’에서 외할머니에 의해 길러짐 - 자살한 엄마와 사라져버린 아빠의 공백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음 → ‘바라보는 나’와 ‘보여지는 나’로 분리함
---------------------	---

소설 속 갈등 양상

‘나’는 감나무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펼쳐지는 삶의 숨겨진 애증의 실체를 엿보거나 사람 사이의 허위를 들추어낸다. 남의 속내를 예리하게 간파해내는 날카로운 ‘나’의 시선은 스스로에게까지 적용된다. 자신을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냉철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보여지는 나
작품 속의 다른 인물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 역할

바라보는 나
‘나’ 자신의 진실된 내면을 독자에게 보여 주는 역할



〔앞부분의 줄거리〕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어머니는 수술 후, 전쟁 중에 아들(‘나’의 오빠)을 죽인 인민군 군관의 환영을 보고 허공에 소리를 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다.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꽤 씁하지만 세상의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해 다오. 백 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 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휘이 휘이.

^{새생한 피}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게 총살당한 아들에 대한 사건을 환각 속에서 다시 경험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 거리가 그걸 말해 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 또 왔다. 뭘 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과거 ‘나’의 오빠가 북한 인민군에게 총살당한 기억을 떠올림(환각의 상태에서, 과거의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재차 경험하는 중임)}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어머니는 눈길에서 낙상으로 다리를 다침}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꿈쩍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죽은 ‘나’의 오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 자신의 다리를 자식으로 여겨, 군관으로부터 자식을 숨기겠다는 의도 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지키려는 행동} ^{: 어머니의 태도: 호통(군관에 대한 분노) - 아부(군관의 외심을 피하고자 비위를 맞춘)}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오리.”
^{아부}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바싹 가까이 다가붙음}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적 불안 상태}



가엸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몸쓸 일을 두 번 껴게 하시다니…….
‘나’가 어머니의 증세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②연민 6·25 전쟁 당시 북한 이민국에게 통사를 당한 아들에 관한 아픈 경험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르기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불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
 처럼 가볍게 털어 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이노옴.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노옴, 이노옴.”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 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
토동
 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
 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
 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노옴.”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으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
토동 아부
 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사 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 바늘
 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자식을 잃은 공포와 분노를 떠올리게 된 어머니의 환각 증상의 실화
 “이노옴, 게 섰거라. 이노옴,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옴.”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정상적인 자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공황 발작의 상태에 도달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 ‘나’는 엄마를 간토하던 중에 엄마가 과거의 기억으로 고통 받는 모습을 봄

(중략)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나’의 오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향 땅이 보이는 바다에 뱃가루를 뿌려 달라고 함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러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됐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고향 땅이 보이는 바다에 아들의 뱃가루를 뿌림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
 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쫓대
 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고향이 보이는 곳에 뱃가루를 뿌리려는 반복된 행위 → 분단이라는 현실로 인한 고통과 그것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벌판의 발머리에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읽었던 땅이나 권리 따위를 되찾을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 중공군에게 빼앗긴 서울을 되찾고 휴전 현상을 하던 시기 → '나'와 어머니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이유 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라도 이장 며느리의 주장(자식들에게 아버지('나'의 오빠)에 대한 한을 남겨 주지 않으려는 바람) 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 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 있는 사물을 문개어 아주 없애 버림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 고향 땅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하에 못 묻히는 한 분단 현실에서 고향 땅을 볼 수 있는 곳 '나'의 오빠의 유골 고향 땅(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줌)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 조상의 무덤, 혹은 그 근처의 땅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썩썩하고 도 분단 현실('분단이란 괴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 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 ① '나'의 오빠의 유골 ② 어머니가 임종하게 되면 고향 땅에 가까운 바다에 뿌려달라던 뱃가루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 ① 전쟁이 종결될 때에도 아직까지 아들에 관한 아픈 기억으로 고통 받는 어머니의 삶 ② 전쟁에 대한 개인적 아픔 이상의 민족적인 비극과 상처로 확대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分斷)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 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 유골을 뿌리는 일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나'의 오빠의 죽음(6·25전쟁)이 삼십 년이나 지났으나, 영마의 의식 속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음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의 유언을 수속하여 그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오빠의 시신처럼 어머니의 시신 역시 화장하여 바다에 뿌리는 고통을 감내하기로 함)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 분단 현실로 인해 아직도 고통 받는 어머니

**핵심 정리**

갈래	중편 소설, 연작 소설, 전후 소설
성격	자전적, 회상적, 실존적
배경	① 시간: 한국 전쟁 당시, 분단이 고착화된 현재 ② 공간: 서울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전쟁의 비극과 아물지 않은 상처 전쟁의 후유증과 분단문제의 극복의지
특징	① 전쟁의 아픔을 잊어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줌 ② 현재 시점에서 회상하는 내용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으로 전개함 ③ 어머니의 행동에 따라 연상되는 과거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연작 소설로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전업주부인 ‘나’가 다리를 부상당한 엄마를 간호하다가 엄마가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한 아들에 관한 아픈 기억으로 아직까지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삼십 년이 지난 현재에도 엄마의 의식 속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며,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전체 줄거리

‘나’는 5남매의 엄마로 평온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업주부이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가 눈길에서 낙상으로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일로 ‘나’는 병원에서 엄마를 간호하게 된다. 수술 후 마취에서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엄마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그것은 6·25 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에게 총살당한 아들에 대한 사건을 환각 속에서 다시 경험하게 된 것이다. 엄마는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의 유골을 아들의 유골을 뿌린 곳에 뿌려 달라고 ‘나’에게 부탁한다.

연작 소설

이 작품은 1980년부터 발표를 시작한 일종의 연작소설이다.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인칭 서술자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 작품은 분단의 비극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음을 한 어머니의 굴곡 많은 인생역정에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중화자가 분단의 희생자라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다. 박완서의 대부분의 작품이 그러하듯 이 작품에도 작가의 체험이 녹아들어 작중인물들이 강한 리얼리티를 확보하게 되고, 나아가 추상적으로 흐르기 쉬운 분단문제를 우리 민족의 특수한 시대적 아픔으로 형상화하였다.



「엄마의 말뚝」1 (『문학사상』, 1980)	■ 배경: 식민지 시기 엄마가 어린 '나'와 오빠를 이끌고 고향인 개성 박적골을 떠나 서울 번두리인 서대문구 현저동에 고생 끝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까지를 그리고 있다. 딸이 신식 교육을 받아 신여성이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염원과 서울에서도 중심에 소속되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나의 성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엄마의 말뚝」2 (『문학사상』, 1981)	■ 배경: 한국 전쟁 중산층 전업주부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엄마의 다리 부상을 계기로 과거 한국전쟁 당시 오빠를 북한 인민군의 총살로 잃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엄마의 말뚝」3 (『작가세계』, 1991)	■ 배경: 현재 시점에서 투병 중이던 엄마가 돌아가시기까지의 경위 수술후유증으로 7년여를 투병하시던 엄마가 화장되어 강물에 뿌려지기를 바랐던 생전 소망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공원 묘지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이다.

의의와 평가

「엄마의 말뚝」1은 식민지 근대를 배경으로 신여성의 근대체험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성장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엄마의 말뚝」2는 전쟁에 대한 체험을 개인의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민족사적 비극으로서의 전형성과 보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가로 읽어 읽기

엄마의 말뚝1 / 박완서

이사 간 날, 첫날밤 세 식구가 나란히 누운 자리에서 엄마는 감개무량한 듯이 말했다.

“기어코 서울에도 말뚝을 박았구나. 비록 문 밖이긴 하지만…….”

비록 여섯 칸짜리 집이지만 없는 게 없었다. 안방, 마루, 건넌방, 부엌, 아랫방, 대문간 이렇게 여섯 개의 방이 공평하게 한 칸씩이었다. 마당도 있었다. 마당이 네모나지 않고 삼각형인 게 흠이었다. 엄마는 이런 마당을 ‘우리 괴불 마당’이란 애칭으로 불렀다. 새 집은 셋집처럼 대문 밖이 낭떠러지가 아니고 보통 골목인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연작 소설, 성장 소설
성격	회고적, 사실적
배경	① 시간: 1940년대부터 6·25 전쟁 당시와 1980년대 ② 공간: 서울의 서대문 근처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격동의 세월을 이겨 온 ‘엄마’의 집념 서울에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한 어머니의 삶
특징	① 어린 소녀인 ‘나’를 서술자로 하여, 격동의 시기를 이겨 온 ‘엄마’의 집념을 회고적으로 서술함 ② 3편의 연작 소설 중 1편임 ③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함 ④ 엄마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상징적인 소재들을 통해 나타냄



대신 직삼각형 마당의 가장 변이 긴 쪽이 남의 집 뒤쪽으로 난 담인데 그 밑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축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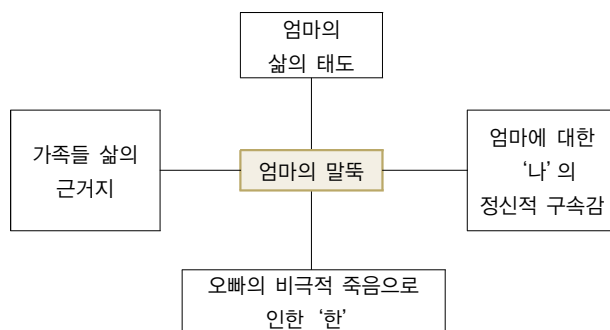
▶서울 벵두리인 서대문구 현저동에 살의 터전을 마련함

(중략)

그러나 이사 가고 나서 나의 외톨이 신세는 좀더 심해졌다. 땀쟁이 딸하고도 자연히 떨어졌고 나 혼자 매동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동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의식적인 따돌림을 받았다. 엄마는 되레 그걸 바란 것처럼 좋아하는 눈치였다. 문 밖에 살면서 일편단심 문 안에 연연한 엄마는 내가 그 동네 아이들과는 격이 다른 문 안 애가 되길 바랐다. 딸에게 가장 나쁜 거라고 가르친 거짓말까지 시키게 해 가며, 또 친척의 주소를 빌리는 번거로움과 치사함을 참아가면서 심지어는 문둥이가 득실댄다는 등성이를 매일 지나다녀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까지 굳이 문안 학교에 보내지 못해 안달한 엄마의 뜻은 처음부터 그런 데 있었으니까.

▶엄마는 '나'가 성식 교육을 받아 신여성이 되기를 바랐

‘엄마의 말뚝’의 의미





빈 도시락마저 들지 않은 손이 홀가분해 좋긴 하였지만, 해방촌 고개를 주어 오르기에는 뱃속이
도시락도 가지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가난함 철로 가족이 사는 곳
 너무 허전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 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철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선
가난한 동네 군대의 휴대 식량, 식료품 등을 포함한 것
 갑을 뜯어 덮은 처마가 어깨를 스칠 만치 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 데나 마구 버린 쓰물
국식을 씻어 내 부엌에 된 물
 이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탄 재가 군데군데 헌데 더덩이 모양 깔렸다.

저만큼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열기설기 문살에 얹어맨 철호네 집
구멍이 뚫린 연탄 부스럼 먹이나 때 따위가 거들 붙어서 된 조각 철로 가족의 물질적 궁핍, 가난한 삶
 방문이 보였다. 철호는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형겅이 달린 문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적찌적 집혀서 잘 열리지를 않았다. 아래가 잔뜩
 잡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의 소리가 새어 나왔다. / “가자! 가자!”

미치면 목소리마저 변하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이미 그의 어머니의 조용하고 부드럽던 그 목소
‘가자’의 반복 - 북쪽 고향에 가고 싶은 어머니의 소망(분단 현실의 비극)
 리가 아니고, 켹켹하고 간사한 게 어떤 판사람의 목소리였다.

▶ 철로 가족의 궁핍한 삶과 정신 이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어머니

(중략)

삼팔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
고향에 되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머니와 설득하려는 철호 사이의 갈등이 빚어짐
 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해도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꼭 닿도록 담을 쌓았던 말
 이냐 어쨌단 말이나.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을 높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나.”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그러고는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계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며 한숨과 함께 무릎을 치며 꺼지듯이 풀썩 주저앉곤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철호는,

“어머니, 그래도 남한은 이렇게 자유스럽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임(어머니를 설득하는 말) - 철로 가족의 이향은 생존의 위협 상황에서 비롯됨
 하고, 남한이니까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지, 만일 북쪽 고향으로 간다면 당장에 죽는
이남: 가난하지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공간 이북: 이념 때문에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공간
 것이라고,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은 이야기를 다 예로 들어 가며 어머니에게
 타일러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을 늙은 어머니에게 이해시키기란 삼팔선을 인식시키기
 보다는 몇백 갑절 더 힘든 일이었다. 아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했다. 그래 끝내 철호
 는 어머니에게 자유라는 것을 설명하는 일을 단념하고 말았다. 『그렇게 되고 보니 철호의 어머니에
『』: 철호의 어머니는 철호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못함
 게는 아들—지리지 고생을 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은 죽어도 하지 않는 철호가 무슨 까
 닭인지는 몰라도 늙은 어미를 잡으려고 공연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천하에 고약한 놈으로만 여겨
 지는 것이었다.』



그야 철호에게도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무슨 하늘이 알 만치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큰 지주로서 한 마을의 주인 격으로 제법 풍족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철호의 어머니 눈에는 아무리 그네가 세상을 모른다고 해도, 산등성이를 악착스레 깎아내고 거기에다 게딱지 같은 판잣집들을 다닥다닥 붙여 놓은 이 해방촌이 이름 그대로 해방촌(解放村)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 가난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현실

“나두 내 나라를 찾았다게 기뻐서 울었다. 엉엉 울었다. 시집을 때 입었던 홍치마를 꺼내 입구 나라를 찾은 기쁨으로 꺼내 입은 어머니의 옷춤을 추었다. 그런데 이 꼴 좋다. 난 싫다. 아무래도 난 모르겠다. 뭐가 잘못됐건 잘못된 너머 세상이다그래.”

『』: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이향민의 비극

철호의 어머니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모를 일이었던 것이었다. 『나라를 찾았다면서 집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다.』

철호의 어머니는 남한으로 넘어온 후로 단 하루도 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실향민의 모습을 보여줌

그렇게 지내오던 그날, 6·25 사변으로 바로 발밑에 뻗히 내려다보이는 용산 일대가 폭격으로 지옥처럼 무너져 나가던 날 끝내 철호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

“큰애야, 이젠 정말 가자. 데것 봐라. 담이 흠뻑 무너졌는데. 삼팔선의 담이 데렇게 무너졌는데. 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실현 불가능한 소망)

그때부터 철호의 어머니는 완전히 정신 이상이였다.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성격	비판적, 현실 고발적
배경	① 시간: 6·25 전쟁 직후 ② 공간: 서울 해방촌 일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혼용
주제	전쟁 후 비참한 현실에서 양심을 지키며 산 인물의 몰락과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비판
특징	전쟁 직후 몰락해 가는 인물을 사회 구조적 문제와 연관하여 드러냄
출전	『현대문학』(1959)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월남한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통해 6·25 전후의 비참하고 혼란한 사회상을 잘 그려 낸 분단 소설이다. 남한에서의 철호 가족의 곤궁한 삶, 정신 이상으로 ‘가자’만 외쳐 대는 어머니, 가난으로 인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된 아내는 철호 가족의 비극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극적 삶으로 인해 철호는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오발탄’과 같은 존재이다. 이런 철호는 혼란스러웠던 당대의 사회상을 잘 보여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줄거리

북에서 부유하게 살던 철호 가족은 북한의 공산주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남한으로 이주한다. 철호는 계리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지만 그들 가족은 고향에서와 달리 매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남한에서의 비참한 삶 때문에 고향으로 가자고 하던 어머니는 6·25 전쟁 중에 미친 후로 계속 ‘가자’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외쳐 댈다. 한편 제대 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동생 영호는 사회에 불만을 품은 채 방황하며, 양심대로 살려는 철호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러던 영호는 권총 강도 행각을 벌이다 잡히고,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만다. 철호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서 혼란을 느끼며 택시를 잡아타고 해방촌으로 가자고 했다가 경찰서로 행선지를 바꾼다. 혼란에 빠진 철호는 결국 방향 감각을 잃고 행선지를 정하지 못하고 운전사는 ‘오발탄’과 같은 손님이 탔다고 투덜거린다.

인물 분석

철호	- 계리사 사무실 서기(주인공) - 힘든 현실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고지식하게 살아가지만,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현실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함
영호	- 철호의 동생 -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며, 은행 권총 강도 행각을 하다가 경찰서에 수감됨 - 기성의 것들을 깨부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좌절과 분노와 파멸을 상징하는 인물
명숙	- 가난 때문에 양공주가 된 여동생 - 가치관 붕괴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인물
아내	- 명문 여대 음악과 출신 - 가난과 병고에 지쳐 출산 중에 죽음
어머니	-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실향민 -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실성하여 ‘가자’라는 말만 되풀이함 - 전쟁 후의 몰락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 이상자가 됨



인물의 처지에 반영된 사회상

6·25 전쟁이 야기한 고통스러운 현실과 전쟁의 폭력성을 보여 주며, 이로 말미암아 몰락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소설 속 갈등 양상

철호	영호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함.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물로 현실 순응적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	폭력에 의지함. 양심, 도덕, 법은 오직 가진 자들만의 논리라고 생각하여 현실을 부정하고 권총 강도 행각까지 벌이는 반항적 인물

▪ 공통점: 전후 사회의 모순과 궁핍 속에서 갈등을 일으킴

어머니의 ‘가자’에 담긴 의미

가자! 북쪽 고향에 가리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실현 불가능한 소망)

- 실향민의 비애
- 전쟁과 분단의 비극성 함축

전쟁이 끝나도 갈 수 없는 북쪽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철호 어머니를 실성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하다. 이러한 철호 어머니의 모습은 남북 분단이란 비극적인 민족사가 한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작가는 철호 어머니의 이뤄질 수 없는 소망, 즉 ‘가자!’라는 외침을 통해 우리 민족이 겪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다.

‘얹던 이’를 뽑는 행위의 의미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 때문에 얹던 이를 뽑지 못하던 철호는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얹던 이를 몽땅 뽑아 버린다. 철호의 ‘얹던 이를 몽땅 뽑아 버리는 행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얹던 이(치통)	얹던 이를 뽑음
▪ 가난한 삶 ▪ 가장으로서의 가족 부양에 대한 압박감 ▪ 양심 (혼란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존재) → 철호를 괴롭히던 것	▪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없애 버리려는 몸짓 →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일종의 항거

‘설령탕’을 사 먹는 ‘철호’의 행동에 담긴 의미

철호는 얹던 이를無理하게 뽑아 생긴 과다한 출혈로 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린다. 그러한 와중에도 철호는 설령탕집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그의 행동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황폐한 전후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오발탄’의 상징적 의미**

‘오발탄’은 사전적 의미로는 정상 궤도를 이탈한 총알을 의미한다. 작가는 사회의 대열에서 낙오되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철호의 모습을 ‘오발탄’에 비유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사전적 의미	상징적 의미
▪ 잘못 쏜 탄환	▪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상실한 양심적인 인간 (철호)

‘해방촌’의 의미

‘해방촌’이란 말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에서 비롯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그 이름과는 달리 비참하고 가난에 찌든 삶의 공간이며, 해방촌의 사람들이 가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낸다. 당대 사회의 비극적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

결말의 특징

‘오발탄’은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철호가 정신을 잃은 채 목적지 없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모습은 분명한 삶의 가치와 방향을 찾지 못하는 당시 소시민들의 삶의 모습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결말이라 하겠다.

장르로 엮어 읽기 -원작 소설과 시나리오(영화)**오발탄(시나리오) / 나소은 · 이종기 각색**

철호 : 아니야. 가! / 조수 : 손님 종로 경찰선데요.

철호 : 아니야. 가! / 조수 : 어디로 갑니까?

철호 : 글썸 가재두……. / 조수 : 참 딱한 아저씨네.

철호 : …….

운전수가 자동차를 몰며 조수에게

운전수 : 취했나? / 조수 : 그런가 봐요.

운전수 : 어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철호가 그 소리에 눈을 떴다가 스르르 잠는다.

밤거리의 풍경이 설새 없이 뒤로 흘러간다.

여기에 철호의 소리가 O.L.한다.

Overlap: 한 화면의 끝과 다음 화면의 처음을 부드럽게 포개는 기법

철호 E: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Effect: 효과음

오빠 구실, 또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

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딘지 가진 가야 하는데…….

핵심 정리

갈래	시나리오
성격	비판적, 고발적
주제	전후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부조리한 현실 비판
특징	① 6·25 전쟁 후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부조리를 고발함 ② 주인공 철호의 인간상과 내면의 허무 의식 표출에 역점을 둠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이범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 각색한 작품으로서, 영상 기술을 도입하여 비극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줄거리 위주의 영화 기법에서 벗어나 몽타주 기법을 도입하였으며, 철호의 방황 장면을 10분 이상 Long-Take 기법으로 보여 줌으로써 소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영상의 감동을 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 네거리에 자동차가 벨 소리와 함께 선다.

조수 : (돌아보며) 어딜 가지죠? / 철호가 의식이 몽롱해진 소리로 .

철호 : 가자…….

[원작 소설의 마지막 부분]

따르릉 벨이 울렸다. 긴 자동차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여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다.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채 교통 신호대의 파랑불 밑으로 차는 네거리를 지나갔다.

장면 해설

이 장면에서 철호가 자신을 '오발탄'이라고 하는 것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절망감의 토로이다. 전쟁을 겪으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방향 감각을 잃은 '오발탄'과 같은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작가로 엮어 읽기

이범선은 사회 고발 의식이 짙은 리얼리즘 작품, 회의적 태도가 깃든 휴머니즘 계열의 작품을 주로 썼다.

학마을 사람들 / 이범선

그 해에도 골짜기의 눈이 녹고 진달래가 피자 학이 찾아왔다. ‘학’ ① 민족, 국가의 운명 ② 학마을 사람들의 삶과 의미를 상징 예년처럼 부지런히 집을 틀고 새끼를 낳다. 평화를 의미(일제로부터의 조국 광복) 두 마리의 어미 학은 설새 없이 벌레를 물어 올렸다.

그때 두 마리 새끼가 주둥이를 내들었다. 올해에도 평년작은 된다고들, 우선 흉년을 면한 것을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아침이었다. 학나무 밑에 아주 어린 새끼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다.

독독상강의 비극 “허, 그 참, 흉한 일이로군.”

이장 영감과 박 훈장은 몹시 불길한 6·25 전쟁 예감에 사로잡혔다.

(중략) “학, 학나무를, 학나무를…….” 학나무를 심으라는 이장 영감의 유언(수난 극복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이장 영감은 잠들 듯이 숨을 거두었다. 흰 수염이 길게 가슴을 내리덮고 있었다.

상여는 둘인데, 상주(喪主)는 덕이 한 사람이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다들 뒷산으로 따라 올라갔다. 피난을 가던 때처럼 이장 영감이 앞서 갔다.

저녁때가 거의 다 되어서야 그들은 산을 내려왔다. 이번엔 덕이가 맨 앞에 두 주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걸었고, 그 바로 뒤를 봉네가 흰 보자기로 뿌리를 싼

조그마한 애송나무를 하나 어린애를 안은 것처럼 안고 불에 타 버린 학나무를 대신할 새로운 희망의 표상(잃어버린 전통과 역사에 대한 복귀 의지의 표상) 따르고 있었다.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성격	사실적, 향토적
배경	①시간: 구한말에서 6·25 직후까지 ②공간: 강원도 어느 두메 산골
시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의의	좌절감과 패배 의식이 만연하던 1950년대에 상실된 것의 회복과 평화에 대한 의지를 표현함
주제	① 수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적인 인간의 모습 ② 민족의 수난사를 극복하려는 희구와 민족애
특징	① 새로운 삶에 대한 곳곳한 의지와 함께 운명론적 사고 방식이 짙게 깔려 있음 ② ‘학’은 학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적 상징 ③ 결말 부분에서 학나무를 대신할 ‘애송나무’ 하나를 안고 내려오는 것으로 공동체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강렬한 의지와 새로운 희망찬 삶의 도래를 보여줌 ④ 학의 출몰과 그 수난은 소설 속 모든 사건의 징후와 결과로 작용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학을 마을의 수호신으로 믿는 학동 사람들이 일제 치하에서 한국전쟁에 이르는 비극적 삶을 간결한 표현으로 서사화한 작품이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중학교 때 '만수'라는 친구와 가까이 지냈던 일을 기억하며 그 당시 만수의 집에서 만
내부 이야기(서술자 '나')

수 외삼촌을 만났던 것을 떠올린다.

만수 외삼촌
 곧 이분은 우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었다.

내화의 서술자 '나'는 만수 외삼촌이 겪었던 이야기(내화 속 내화)를 듣는 청자임

만수 땅의 드릴한 마적 이야기며 불가사의한 중국 사람과 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북만주 눈] 보라 치는 밤에 승냥이의 울음소리, 마구간의 말이 추위에 발 옮겨 쫓느라고 언 땅에 내는 소리, 늦나그네 지나가는 썰매 방울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처량해져 고향 생각이 간절하다가도 정작 이렇게 돌아오면 되레 그때의 일이 그리워진다는 만수 외삼촌 자신의 이야기. 이런 만수 외삼촌은 만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 만수를 데리고 다시 대륙으로 갔다. 그 뒤에 만수가 그냥 대륙에 있는지 혹은 소원이던 마도로스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만수 외삼촌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방문을 열고 벽에 다 새로 큰 들창까지를 뚫어 보다 넓고 새로운 세계로 통하게 한 이야기는 흥안령 저쪽 이야기다.

자작나무 숲이 들어선 구릉성의 산맥과 잇닿아 펼쳐진 무연한 초원. 거기 여러 집, 여러 백 마 리씩 무리를 저 다니는 이리 떼. 소들은 밤이면 이들 사나운 짐승의 습격을 방위하기 위해 자기네의 어린것을 가운데 두고 뺨 둘러 뿔을 밖으로 향하고 자고, 말들은 또 말들대로 자기네 어린것의 주위에 머리를 안으로 모으고 발을 밖으로 하고 자는 곳. / 그 속에서 몽고 사람들은 소박하기 짝이 없는 목가적인 생활(지금 와서 보면 반드시 그런 생활만도 아닐 듯싶지만)을 영위하고 있다.

▶내화: '나'가 중학교 시절 만수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음

(중략)

주인의 지른 소리로 짓기를 멈추었던 개들이 아까보다 더 극성스럽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이리 떼가 더 가까이 나타났나 보다. / 이때 마주 앉았던 일본인 객이 벌떡 일어났다. 어느새 그의 손에는 어디다 감춰 가지고 있었는지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주인이 약간 놀라는 빛으로 손을 들어 일본인 객의 앞을 막듯 했다. 일본인 객이 술로 해 붙어진 얼굴을 주인에게로 돌렸다. 왜 그러느냐는 듯, 내 이제 그놈의 이리를 보기 좋게 쏘아 잡을 테니 두고 보거나 하라는 듯. / 주인은 들었던 손을 거두면서 조용한 말로, 정 쏘려거든 허공에다 한 방 쏘아서 쫓아 버리고 말라고 했다. 이 말에 일본인 객도 제 고집을 세우지 않고 밖으로 총만을 내밀어 무턱대고 한 방 쏘고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자연 짐승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이리 떼의 습성을 잘 알고 있음 산속이라는 특성을 들어 조심하도록 주의를 줌 주인은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산속에서는 얼마 전 군인 셋이 이리 떼를 향해 총을 쏘았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일화』 「」: 주인은 일본인이 이리를 향해 총을 쏘려는 것을 만류하는 이유를 설명함 게 날짐승이건 길짐승이건 심지어는 한 마리의 벌레까지라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주인은 손님들에게 자신의 경고를 수용할 것을 거듭 언급함 도덕처럼 돼 있다는 것. 특히 외지에서 온 손님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리 떼를 만났을 때 수

광복 이후 폭력적 상황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에 공존을 위한 물리가 필요함



중에 충을 가졌더라도 직접 쏘아서는 안 된다는 것. 정 이리들이 성화를 먹이면 그저 한 방 허공에 다 대고 충소리를 내는 정도로 쫓아 버리는 게 상책이라는 것. 얼핏 직접 쏘아 버리는 게 이리 떼를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같이 생각키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물론 그것도 인가 근처 라면 한두 마리 쏘아 넘어뜨린대도 무방하지만 만일 무인지경에서 신불리 충질을 했다가는 봉변을 당한다는 것. 이리란 놈은 다른 짐승이 다 그렇듯이 화약 냄새를 몹시 싫어하고 겁내기도 하지만 한번 피를 본 뒤에는, 그것이 자기네의 피건 어떤 다른 것의 피건 한번 보고 냄새를 맡은 뒤에는 달아나는커녕 되레 미친 듯이 달려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 여기서 주인은 얼마 전 어디선 가 있는 일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군인 셋’과 관련된 일

국경선을 지키는 군인 셋이 술이 취해 가지고 밤길을 가다 이리 떼를 만났다. 추근추근하게 굴면 허공에다 대고 충 한 방씩을 쏘아 가며 가까운 인가를 찾아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만 술 취한 김에 이리 떼를 향해 불질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충알 다하는 것이 목숨의 마지막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거기에는 세 자루의 총대와 함께 피 묻은 옷 조각들이 흐트러져 있을 뿐이었다.

주인의 말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밖에서 또 이리라도 나타난 듯, 개들이 다시 몸을 피하여 짚어 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인이 밖을 향해 지른 소리와 일본인 객이 좀 전처럼 권총을 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거의 동시였다. 이번엔 주인이 손을 내밀어 막지 않았다. 일본인 객이 일어섬은 좀 전처럼 허공에 대고 한 방 쏘려는 것이려니 생각한 듯. / 그러나 어두운 등잔불 속에서도 이쪽으로 돌린 일본인 객의 갑작스런 흥분으로 해 핏기 건한 얼굴에는 좀 전과는 달리 분명히 무엇을 경멸하는 듯한 빛까지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거 다 변변치 못한 일본인 객이 자신의 사격 솜씨를 과시하고자 이러한 표정을 지음 간들이기에 한 놈도 아니고 세 놈씩이서 그것도 충을 가지고 잡혀 먹히지 될 말이냐고, 자기는 군대에 있을 때에도 사격에 손꼽히는 명수였지만 이제 대일본 제국 신민의 솜씨를 한번 뵈어 줄 테니 자세히들 보라고. 일본인 객의 얼굴에는 벌써 어떤 말 못 할 살기마저 내뿜어 있었다. / 그제서야 주인은 약간 놀란 빛으로 손을 내밀어 일본인 객의 앞을 막으며, 자 그러지 말고 앉아 술이나 한잔씩 더 하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로 술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인 객은 그 술일랑 이따가 이리 떼를 격퇴시킨 뒤에 축배로 들자고 하고는 주인의 손을 피해 밖으로 나서고 말았다.

주인은 좀 당황한 듯하면서도 여전히 의젓한 말로 만수 외삼촌에게, 정 저렇게 이리를 쏘아 보아야 직성이 풀리겠으면 인가 근처기도 하니 한번 쏘아 보게 내버려 두자고 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일본인 객이 나가고 한참 후에야 멀리서 충소리가 들려왔다. 다급해하며 뛰어나가는 주인



을 따라 만수 외삼촌도 나가서 일본인 객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주인과 함께 돌아온다. 다음 날 만수 외삼촌이 눈을 뜨자, 주인은 만수 외삼촌에게 권총을 보여 주며 근처에 아무 흔적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일본인 객이 이리에게 총을 겨누었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광복 이후의 폭력적인 현실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음)
주인은 다시 여기에 난 것이 무슨 자린지 아느냐고 했다. 눈여겨보니 거기에는 본시 그랬을 리 없는 자국이 세로 가로 무수히 나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무슨 줄 같은 것으로 함부로 끊어 놓은 것 같은 자국이.

주인은 만수 외삼촌의 눈앞에서 권총을 한 번 뒤집었다. 거기에도 같은 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다.
: **내화 속 내화**는 3인칭 시점을 중심으로 제시됨('나'가 드러나지 않으며, 주로 인물 간의 대화와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됨)
이게 뭐냐고, 만수 외삼촌이 권총에서 눈을 들자 주인이 사뭇 침통한 어조로, 이게 바로 이리의 이빨 자국이요, 했다. 등골이 오싹했다.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이리의 본적을 본 후 느낀 두려움
이리의 이빨 자국? 음, 이게 바로 이리의 이빨 자국이라?

'이리의 이빨 자국'을 반복 - 두려움의 표출
다음은 주인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좋았다.

이리도, 그러면 이리까지도?
'이리까지도 (생존을 위협하는 폭력에 끈질기게 저항했다)'라는 말이 생각됨

▶ **내화 속 내화**: '만수 외삼촌'이 경험한 이야기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성격	민족적
배경	① 시간: 일제강점기 ② 공간: 몽고의 어느 마을
시점	[도입부] 1인칭 주인공 시점 [중심이야기] 작가 관찰자 시점
제재	이리 때의 강인한 생명력과 저항
주제	생존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윤리 의식
특징	① 액자식 구성 ② 지문과 대화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 설명적 진술 ③ 민족의 생명력과 그 생명력을 장애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형상화함 ④ 생명에 대한 애착이 곧 '민족 정신의 상징'임 ⑤ 이리의 끈질긴 저항을 통해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그림 ⑥ 동물의 본능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를 제시 ⑦ 간결한 표현과 함축적인 결말이 특이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광복 직후 혼란스럽고 폭력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은 소설로서 제시문은 ‘일본인’의 폭력에 저항한 이리를 통해 무력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 작품은 어른이 된 ‘나’의 회상 속에 ‘나’의 중학교 시절이라는 내부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안에 또다시 만수 외삼촌이 들려준 이야기가 전개되는 복합적인 액자식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작품의 마지막에서 다시 액자 밖으로 돌아오는 과정 없이 끝을 맺는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몽골인 주인을 통해 불필요하게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이리도 함부로 인간을 죽이지 않는 원리가 있다는 점, 이리조차도 생존에 위협을 받을 때 격렬하게 저항한다는 점을 드러내며 무력으로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인간도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의 공존을 위한 윤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의 구조

발단	‘만수’와 ‘나’는 만수네 단칸방에서 꿈과 동경을 키워 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추운 겨울 밤 ‘만수 외삼촌’으로부터 그가 실제로 겪었던 ‘흥안령 저쪽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넓은 세계로 통하게 한 이야기였다.
전개	몽고 땅에 간 ‘만수 외삼촌’은 어떤 집에서 목계 되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 그리고 주인과 함께 세상 이야기를 하던 중,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주인이 이리 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리 떼는 직접 총격을 받으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속성이 있다면 그 예로써 국경을 지키던 군인 셋이 죽은 사실을 말해 주었다.
위기	그러나 총을 빼 든 일본인은 ‘대일본 제국 신민의 솜씨’를 보여주겠노라며 주인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리 떼를 향해 집을 나섰다. ‘만수 외삼촌’과 몽고인 주인은 어서 돌아오라고 외쳐댔지만 잠시 후 몇 발의 총성이 울리더니 잠잠해졌다. ‘만수 외삼촌’은 일본인이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잠이 들었다.
절정 결말	다음날 아침, 집주인은 ‘만수 외삼촌’ 앞에 일본인 권총을 내밀었다. 권총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고, 손잡이에는 이리의 이빨 자국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다.

액자식 구성

외부 액자는 현재의 이야기로서 ‘나’의 회상이며, 그 안에 또 하나의 액자인 과거가 있다. 그 과거 속에 이 작품의 중심 이야기인 만수 외삼촌의 경험담, 즉 대과거가 들어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에서는 서술 시점이 변한다. 과거를 회고하는 작품의 서두 부분은 바로 과거를 더듬어 가는 ‘나’의 서술자이지만, 과거 속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리에 얹힌 사건은 직접 경험한 만수 외삼촌 ‘그’가 서술자가 되어 전달하고 있다. 내부 이야기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함으로써 이야기를 객관화하여 신뢰성과 흥미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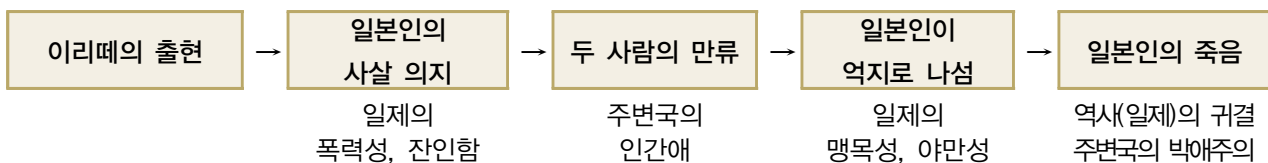


현재(도입 액자-외부 이야기): 1인칭 주인공 시점(서술자 '나')
중학교 시절을 회상함

과거(전개 액자-내부 이야기): 1인칭 주인공 시점(서술자 '나')
만수와의 추억을 소개함

대과거(중심 이야기): 3인칭 관찰자 시점(서술자 '만수 외삼촌' ('그'))
'만수 외삼촌'의 경험담(이리에 얹힌 사건)을 전달함

중심 이야기의 구조



전체 줄거리

만수네 단칸방에서 사는 '나'는 추운 겨울 밤 만수 외삼촌으로부터 흥안령 저쪽 이야기를 듣게 된다. 몽골에 간 만수 외삼촌은 어느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일본인, 집주인과 함께 세상 이야기를 하던 중 개 짖는 소리를 듣는다. 주인은 이리 떼가 나타났으며, 이리 떼는 총격을 받으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습성이 있어 국경을 지키던 군인 셋이 죽은 경우가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일본인은 대일본 제국 신민의 숨씨를 보여 주겠다며 권총을 빼들고 집을 나선다. 만수 외삼촌과 몽골인 주인은 어서 돌아오라고 외쳐대는데, 잠시 후 몇 발의 총성과 함께 주위가 조용해진다. 그 다음날 아침 집주인은 만수 외삼촌에게 검붉은 피와 함께 손잡이에 이리의 이빨 자국이 새겨진 일본인의 권총을 내민다. 이리에게 분노를 느끼던 만수 외삼촌은 이리의 이빨 자국을 보고 이리까지도 생존을 위해 저항하는 모습에 오싹한 느낌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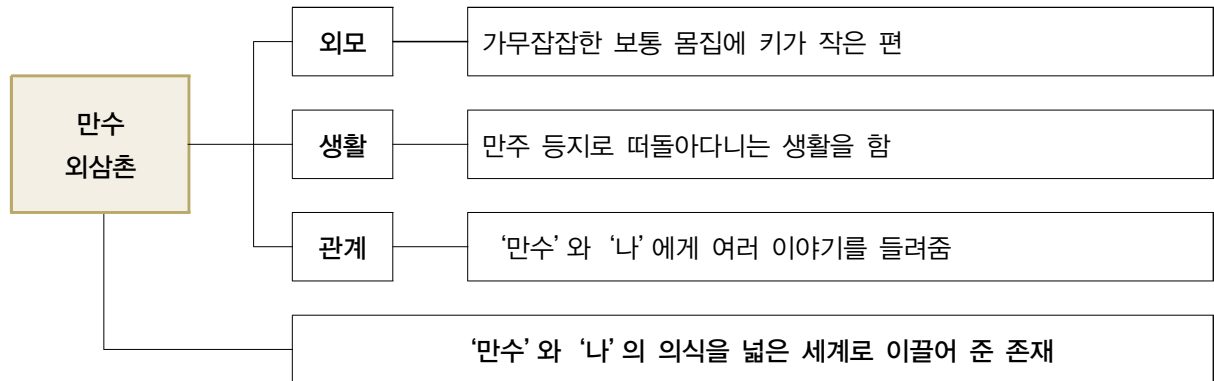
인물 분석

우리	소년기의 화자(話者)
만수 외삼촌	만주 지방을 떠돌아다니던 사람. '나'와 만수에게 흥안령 저쪽에서 직접 경험한 '이리와 일본 사람'에 얹힌 사건을 들려줌으로써 넓은 세계로 눈뜨게 했던 인물
일본인	무모한 행동을 하다가 이리에게 죽음을 당함
몽고인	넉넉한 심성의 인물. 일본인의 무모함을 막으려 하지만, 실패함



‘만수 외삼촌’의 역할

만주 등지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 ‘만수 외삼촌’은 ‘만수’와 ‘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중 ‘흥안령 저쪽 이야기’는 ‘만수’와 ‘나’의 의식을 보다 넓고 새로운 세계로 통하게 한다.



‘만수 외삼촌’의 태도 변화

인식이 달라진 계기	일본인 객이 사용한 권총에 이리의 이빨 자국이 남아 있는 것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이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	‘만수 외삼촌’은 일본인 객을 죽인 이리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느꼈으나, 권총에 난 이리의 이빨 자국을 보고 살아남기 위해 무력에 저항하는 이리의 절박함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면서 인간을 위협하는 증오와 분노의 대상에서 생존에 대한 강인한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이리’를 통한 주제 의식

‘이리’라는 존재를 활용해 식민지 시절을 벗어났음에도 동족 간 대립의 심화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난무하는 광복 이후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공존을 위한 윤리와 원칙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제목 ‘이리도’의 의미

‘이리까지도’ 혹은 ‘이리마저도’라는 의미이다.

‘이리도, 그러면 이리까지도?’라는 서술자의 독백 뒤에는 ‘이리마저도 일본인 객의 무자비한 폭력에 저항하는데 하물며 일제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야 어떠하리?’ 정도의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작가는 이리 떼의 생존에 대한 의지를 일제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삶과 연계하여 한민족의 강한 생명력과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소재의 의미

‘권총’과 ‘이빨 자국’은 주제를 드러내는 중심 소재이다. 일본인 객의 권총은 일제의 강제 침략을, 이리의 이빨 자국은 일제의 강압에 대한 저항과 경고를 상징한다.

이리 때	한민족의 원시적 생명력을 상징하는 존재, 굴복하지 않는 자연성
권총	생명을 억압하는 일본 제국주의적 존재
피 묻은 권총	피 흘리는 저항을 통해 이겨내야 할 존재

일본인 객의 권총	이리의 이빨 자국
일본인 객이 사용하는 무력 → 일제의 억압과 위협	일본인 객에 대한 이리의 저항 → 일제에 대한 저항과 경고

작가로 읽어 읽기

목넘이 마을의 개 / 황순원

이 때에 누구의 입에선가, 때레라! 하는 고함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간난이 할아버지의 양 옆 사람들이 욱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간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새끼를 뱀 신둥이를 잡아먹으려는 마을 사람들
본능적으로 감지한 신둥이가 그 통으로 도망침

(중략)

손쉽게 나무 한 짐을 해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길 한옆에 눈을 준 간난이 할아버지는 거기 웬 짐승의 새끼가 물켜 있는 걸 보았다. 이게 범의 새끼나 아닌가 하고 놀라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른 것 아닌 잡은 강아지들이었다. 그리고 저만큼에 바로 신둥이 개가 이쪽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앙상하니 뼈만 남아 가지고.

자신이 낳은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로서의 행동
(일제의 억압과 고난을 이겨 낸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

(중략)

「」: 내부 → 외부 이야기로 전환(전지적 작가 → 1인칭 관찰자 시점)

「이것은 내 중학 이삼 년 시절, 여름방학 때 내 외가가 있는 목넘이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그 때 간난이 할아버지와 김 선달과 차손이 아버지가 서산 앞 우물가 능수버들 아래에 일손을 쉬며 와 앉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한 이야기다.」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성격	상징적
배경	① 시간: 일제 강점기 ② 공간: 평안도 목넘이 마을
시점	[내부 이야기] 전지적 작가 시점 [외부 이야기]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한민족의 강인한 생명력
특징	① 설화체 문장을 통한 전달 방식 ②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이야기의 신뢰성을 부여함 ③ 신둥이라는 개를 통해 우리 민족의 생명력을 형상화함

작품 해제

이 글은 일제 강점기 평안도 어느 산골 마을인 목넘이 마을에 나타난 ‘신둥이’라는 개의 끈질긴 생명력을 통해, 일제 강점기라는 수난을 이겨 낸 우리 민족의 저력과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작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신둥이와 신둥이를 끝까지 보호하는 간난이 할아버지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 연민,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또 신둥이의 새끼들이 죽지 않고 후손이 번성한 사실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민족의 동질성으로 분단의 이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허 노인이 한 번 발을 헛디뎠던 다음 날이었지요. 마침 그날도 나는 거기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허 노인이 아들의 줄타기를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줄 위에 있는 운이 아니라 무섭도록 줄을 쏘아보고 있는 노인의 눈과 땀이 송송 솟고 있는 이마를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이놈아!’ 하고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줄 밑으로 내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야 나는 줄 위를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운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그냥 줄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놈…… 너는 이 애비의 말도 듣지 않느냐?

운의 줄타기가 허 노인이 추구하는 경지에 이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

운이 줄을 내려왔을 때 노인이 호령했으나, 그는 역시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어요. 내가 놀란 것 이야기의 조정이 되는 인물
은 그때 허 노인이 빙그레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길로 곧 함께 주막 술집을 찾아 운이 줄 위에서 눈과 귀가 열리지 않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는 경지에 오른 것에 대한 만족감 들어갔습니다.”

사내의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었다.

그날 주막에서 허 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 주고, 그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다.

—「줄 끝이 멀리 보여서는 더욱 안 되지만, 가깝고 넓어 보여서도 안 되는 법이다. 그 줄이라는 『』: 자신의 주관을 개입하지 않고 외부의 사물에 구애받지 않으며, 오로지 줄에 집중해야 함
것이 눈에서 아주 사라져 버리고, 줄에만 올라서면 거기만의 자유로운 세상이 있어야 하는 게야. 절대적인 예술의 경지
제일 위험한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다. 줄에서는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고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다.」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했다.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노인의 일생을 몇 개로 잘라서 압축해 놓 전통적인 작업으로서의 삶과 정신
은 듯한 무게와 힘과, 그리고 알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자기의 전 생애를 운에게 떠넘겨 비장함이 나타남(허 노인의 죽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냄)
주려는 듯한 안간힘이 거기 있는 것 같았다. 운은 비로소 허 노인이 끝끝내 줄타기 자세를 바꾸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깨달음
못하는 내력을 알 것 같았다. 허 노인의 작업 정신

—아버지, 이제 줄을 그만두시고 좀 쉬십시오.

운이 말했으나 노인은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줄에서 내 발바닥의 기력이 다했다고 다른 곳을 밟고 살겠느냐? 같이 타자.

오직 줄타기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고, 줄타기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있는 허 노인

그날 밤, 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올라섰다. 운이 앞을 서고 허 노인이 뒤를 따랐다. 운이 줄을
다 건넌을 때는 객석이 뒤숭숭하니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뒤를 따르던 허 노인이 줄에서 떨어져 허 노인의 죽음 - 운이 줄타기에 몰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이미 운명을 하고 만 뒤였다.

(중략)

“……그러니까 그 뒤로 운이 허 노인의 당부대로 줄을 탔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허나 확실한 것은 그 역시 전에 허 노인이 당하던 단장의 꾸지람을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 과거 시제를 사용함(사내의 회상에 따른 서술이 주를 이룸)



그런데 그는 꾸지람을 듣고 있을 때까지도 영 정신이 나간 사람 모양 멍청히 서 있기만 했어요. 나중에는 단장도 그런 운을 늘 나무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갑자기 성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손님을 다 빼앗기고 나니 우리는 거렁뱅이가 될 판이었습시다. 그런데 단장이 그래도 그중에 나왔습시다. 생각 생각 하다가 짜낸 것이 결국 구경꾼의 흥을 더 돋우어 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래 그 방편으로 제일 적합한 것이 운이었습시다. 줄을 그전 때보다 두 배, 세 배로 높이 매달았습시다. 허 노인은 여느 광대보다 높이 줄을 탔기 때문에 가설극장의 천장 포장까지 건어 내야 했지만, 이번에는 거기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C읍까지 왔습시다. 그때 가을이었지요.”

C읍에서— 어느 날 밤, 운이 줄에서 내려와 보니 그에게 꽃다발이 하나 와 있었다. 꽃다발이래야 그즈음 산이나 들에 지천으로 피어난 들국화 몇 송이를 꺾어다 종이 리본으로 묶은 것이지만, 워낙 처음 있는 일이라 부처님 같은 운도 약간 호기심이 돌았다. 꽃다발을 가져온 것은 소녀기를 사라 벗은 여자라고 했다.

—잘해 보라 이 녀석. 총각 귀신은 제사도 없단다.

트럼펫의 사내가 웃으면서 그 꽃다발을 운에게 건네주었다. 여자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같은 일을 하고 갔지만, 언제나 운이 줄을 올라간 뒤에 왔다가 줄에서 내려오기 전에 가 버리기 때문에 정작엔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다. 매일 밤 꽃다발을 맡았다 운에게 전해 주던 트럼펫이 보다 못해 하룻밤엔 일을 꾸뻘었다.

—공원으로 가 보라. 거기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게야.

운이 줄에서 내려오자 트럼펫이 운에게 일러 주었다.

“지금 이야기 중의 트럼펫이라는 운의 친구가 바로 노인장이시겠군요?”

나를 통한 장면의 비평 — 허 노인과 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트럼펫 사내(‘노인’)에게 ‘나’가 물음(맥락식 구성) 나는 갑자기 이 사내 자신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라 그렇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팔을 불고 나면 조금씩 피를 뺄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입에서 나팔을 뿜 수는 없었습니다. 나팔을 불지 못하면 진짜로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노인께서 여길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도 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때 노인장께서는 독신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신이었는데, 갑자기 각혈이 심해져서 ……”

사내는 말끝을 흐렸다.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 속의 ‘트럼펫 사내’가 노인임을 알게 됨 → 노인이 C읍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여자’ 때문이라고 의심함 정말로 그랬을까? 나는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누군가를 따라 떠났어야 할 이유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폐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가 없지도 않은가. 그렇



다면— 이 사내는 혹시 운을 찾아오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꽃다발 주는 여자를 트럼펫 사내가 사랑했으리라고 '나'가 추측함
그러나 사내는 내가 입을 열기 전에 이야기를 서둘러 이어갔다. 독자의 호기심 유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는 운이 여자를 만나게 해 주었는데, 여자를 만나고 와서도 운은 별로 달라진 게 없더구먼요. 그런 일이 한 주일쯤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운이 줄 위에서 재주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단장이나 구경꾼들은 무척들 좋아했지요. 하지만 나는 단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옛날 허 노인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었던 만큼 그게 불안했습니다. 몇 번씩 그런 재주 같은 동작을 하고 줄을 내려온 운은 죽기 전의 허 노인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함 유독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단장의 칭찬에도 넋 나간 눈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나의 생각이 운은 줄 위에서 눈과 귀가 열린 상태임(여자를 사랑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줄타기를 함)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어요. 운이 자꾸 귀와 눈을 때리면서 무언가 혼잣소릴 중얼거리곤 하는 거예요. 자신을 몹시 못 견뎌 하는 얼굴이었지요.

줄타기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함
〔뒷부분의 줄거리〕 어느 날, 공연이 끝난 후에 운은 공원에서 여자를 다시 만난다. 운은 여자에게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단장에게 가서 다시 한 번 줄을 타겠다고 한다. 다시 줄을 탄 운은 떨어져 죽는다.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성격	회상적, 숙명적, 추리적
문체	간결체, 정확하고 사실적인 묘사 문체
배경	① 외부 이야기: 현대의 C읍('나' 의 이야기) ② 내부 이야기: 1940년대 말의 C읍(허 노인' 과 '허운' 의 이야기)
시점	① 외부 이야기: 1인칭 주인공 시점 ② 내부 이야기: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장인 정신의 추구하고 현대인의 가치 상실 비판/장인 정신의 상실에 대한 아쉬움./장인 정신의 추구하고 현대인의 가치 상실에 대한 반성
출전	『사상계』(1966)

작품 해제

이 작품은 2대에 걸친 줄광대의 장인의 삶을 안 이야기로 하고 장인적인 삶과 거리가 먼 현대인의 삶을 신문 기자인 '나'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바깥에 배치한 액자 소설이다. 오직 일생을 줄타기에 바친 허 노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인의 경지에 이르지만 결국 운명 앞에 무너져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아들 운, 그리고 이들의 삶을 취재하는 '나'의 냉소적인 태도는 바로 우리가 겪어 온 시대적, 일상적 자기 변모의 모습과 일치한다. 즉, '허 노인 → 운 → 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은 '절대 가치 → 가치에 대한 갈등 → 가치 상실'의 일직선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탐구하고 있다.

**작품의 구조**

발단	‘승천(昇天)한 줄광대’에 관한 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C읍으로 내려간 ‘나’는 예전에 서커스단에서 트럼펫을 불던 사나이로부터 운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전개	아내가 서커스 단장과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아내의 목을 졸라 죽게 한 아버지, 허 노인으로부터 운은 엄격하게 줄타기를 배운다. 그런데 아들에게 줄타기를 가르친 지 5년 만에 허 노인은 아들과 줄을 타다가 줄에서 떨어져 죽는다.
위기	어느 날 C읍에서 공연을 마쳤을 때, 어느 여인에게서 꽃다발을 받은 운은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만 여인은 이를 거부한다.
절정	여인이 사랑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줄 타는 모습이었음을 깨달은 운은 줄 위에 올라 최후의 연기를 하다 죽는다.
결말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 준 후 세상을 떠난 트럼펫 부는 사내의 장례 행렬에서 ‘나’는 자신의 소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한다.

전체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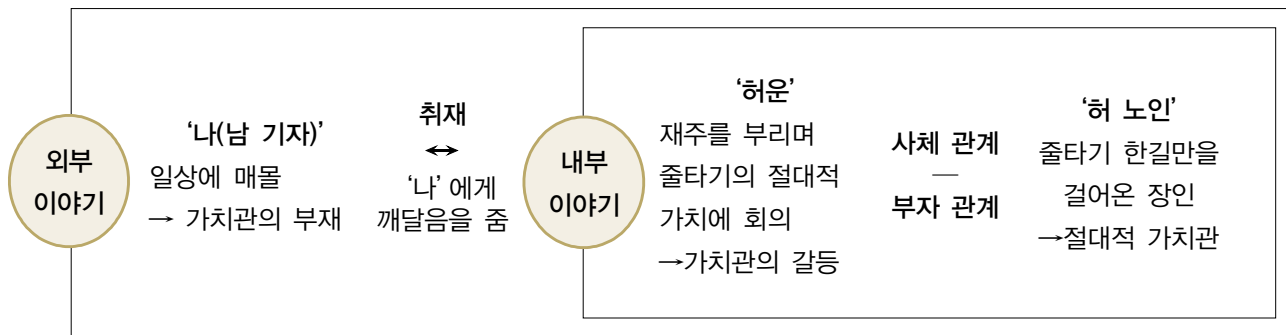
일상에 묶여 무력하게 살아가던 ‘나(남 기자)’는 ‘승천(昇天)한 줄광대’에 대한 기사를 취재하라는 부장의 지시에 따라 C읍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승천한 줄광대가 있던 서커스단에서 트럼펫을 불던 사내를 만나 그로부터 줄광대 ‘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운’은 아버지 허 노인으로부터 줄타기를 배운다. 허 노인은 줄타기 한길만을 걸어온 장인(匠人)으로 아들에게 작은 허튼 재주도 용납하지 않는다. 허 노인의 소망대로 운은 마침내 장인의 경지에 오른다. 그러던 어느 날, C읍에서 공연을 하고 났을 때 운은 어느 여인에게 꽃다발을 받는다.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에 기뻐진 운은 여인을 위해 줄 위에서 재주를 부린다. 그러나 그 여인이 사랑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줄 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줄 위에 올라 최후의 연기를 한 뒤 스스로 떨어져 죽는다.

인물 분석

허 노인	줄타기 한 길만을 걸어온 장인 줄타기의 철학이 분명한 줄광대
허 운	허 노인의 아들 줄광대의 길을 고수하기 위해 사랑에 실패하자 죽음을 선택함
나(남 기자)	신문 지가로 줄광대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
트럼펫 사내	줄광대 부자(父子)의 이야기를 남 기자에게 전해 주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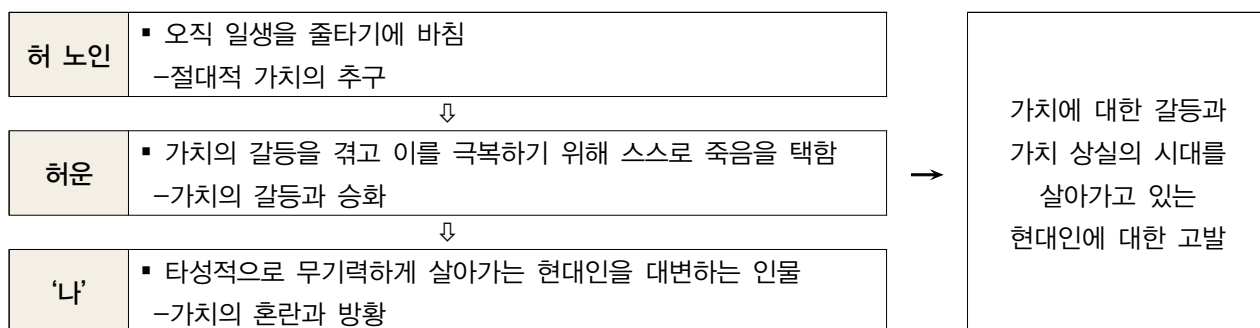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을 중심 사건을 다루는 내부 이야기를 외부 이야기가 둘러싸는 형식을 말한다. 이는 내부 이야기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감을 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외부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와 내부 이야기의 주인공인 줄광대의 이야기를 나란히 진행시킴으로써 과거형의 사건을 통해 현재를 반성하려는 소설의 기본적인 정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다. 또한, 줄을 대하는 허 노인의 엄격성과 타성에 젖어 사는 ‘나’의 매너리즘이 대조를 이루면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등장인물을 통한 주제의 영상화



이 작품은 줄광대 부자의 삶을 통해 그들의 철저한 장인 정신을 보여 줌으로써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한다. ‘나’는 타성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을 대변하는 인물이고, 허 노인과 그의 아들 운은 그런 ‘나’가 잃어버린 소중한 정신을 보여 주는 인물이다.

나(남 기자)	허 노인
▪ 가치관의 부재 ▪ 타성에 젖은 삶의 태도 ▪ 현대인의 무기력한 삶	▪ 절대적 가치의 추구 ▪ 줄을 대하는 엄격한 태도 ▪ 전통적인 장인의 삶



트럼펫 사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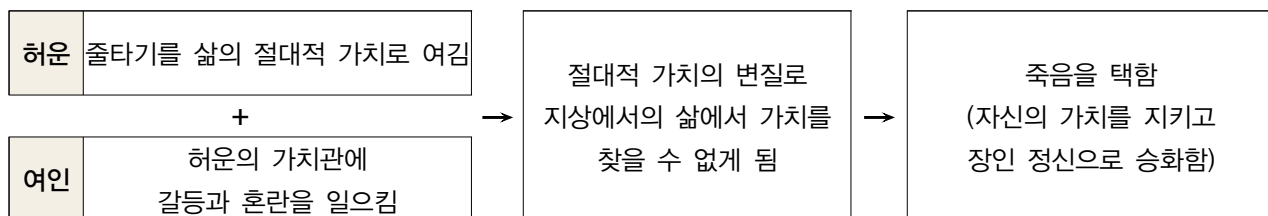
‘허 노인’과 ‘운’이 줄타기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했을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듯이, 트럼펫 사내는 악사로서의 삶을 진지하게 살았던 인물이다. 트럼펫 사내는 허운 부자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양 혼신의 힘을 다해 말하는데, 이는 허운 부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그들에게서 명인다움을 느끼고 그들의 줄타기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운 부자와 트럼펫 사내에 비해 ‘나’는 자신의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진지한 성찰 없이 그저 타성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나’의 태도와 상반된 삶의 자리에 허운 부자와 트럼펫의 사내가 있는 것이다.

줄타기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허 노인	줄타기 자체를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며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줄타기에만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분야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장인 정신을 절대 가치로 여겼다.
서커스 단장	줄타기 자체의 가치를 볼 줄 모르고 다만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운’의 죽음이 지니는 의미



작품에서 제시하는 삶의 가치

허 노인과 그의 아들 허운은 ‘나’가 잃어버린 소중한 정신을 보여 주는 인물들이다. 이들 부자는 줄을 더 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죽음을 택하게 된다. 그들은 죽게 한 것은 자신들에 대한 엄격한 그 자체이다. 이 엄격함은 곧 장인 정신에서 나온 것인데, 특히 허운의 죽음에 내포된 의미는 장인 정신의 승화라 할 수 있다. 이들 줄광대 부자의 참된 장인 정신과 삶에 대한 진지함과 성실성을 통해, 작가 이청준은 현대인이 잃어버린 삶의 가치와 진실을 일깨우고 있다.

**‘장인’ 모티프**

이청준 소설에는 전통 사회에서 특정 분야의 일가를 이룬 전문인, 이른바 장인의 모티프가 많이 등장한다. 「서편제」에서도 판소리 예술의 전승이라는 집념 때문에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소리꾼이 나오며, 「줄」의 허 노인이나 「매잡이」의 곽 서방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인물이다. 이는 전통 사회에 대한 막연한 향수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적 경지에 대한 작가의 존중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그들이 지녔던 예술혼의 절대 경지를 쫓아가면서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애를 드러내는 것이다.

작가로 읽어 읽기**매잡이 / 이청준**

“내 말을 해 주지. 매가 들어오니까 천상 누가 매를 돌려 주러 나올 사람이 있나 말야. 마을에서들은 그냥 다시 산으로 날려보내 버리라는 것이야. 자넨 날 거꾸로 도리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을 차제 매를 훈련시켜 놓은 그 인간들을 찾아 내려온 매를 산으로 다시 쫓아내지는 않고 일부러 자네를 찾아 청승맞게 نوم 안고 장터까지 나온 건 나란 말일세. 알겠나? 그래도 매를 돌려받은 게 감사한가?”

“사람들이 더 이상 매잡이에 관심이 없으니 매잡이를 그만두라는 의도를 가지고 한 말 하더니 그는 멍해 있는 곽 서방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이번에 아주 진진한 어조로 물었다.

“한데- 마을로 가서 자넨 여전히 사냥질을 할 참인가?”

“.....”

그 말엔 곽 서방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마치 마을의 서 영감 앞에서처럼 아무 의사도 내비치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갈래	중편 소설, 액자 소설
배경	전라도 어느 산골
시점	① 내부 이야기: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② 외부 이야기: 1인칭 관찰자 및 주인공 시점
주제	사라져 가는 옛것을 지키려는 장인 정신과 ‘글 쓴다는 것’의 어려움

작품 해제

이 작품은 매잡이 곽들의 삶과 죽음을 그린 작품이다. ‘매잡이’는 매를 길러 산꿍을 사냥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며, 서술자 ‘나’는 민태준 형의 취재 노트를 넘겨받아 매잡이라는 소설을 쓴다.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매잡이의 장인 정신을 통해 삶의 참된 가치와 작가로서 글쓰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방울재 허칠복(許七福)이가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쳐서 돌아와 징을 두들기며 댐을 막은 뒤부터 밀려드는 낚시꾼들을 쫓아 댔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징을 두들기는 칠복의 모습은 나무 탈을 쓴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빼앗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마누라 뺏기고 원, 첩피해서 지랄한다고 고향엔 와요?”

“그러다마다유. 하지만, 오죽했으면 고향에 뭐 볼 거 있다고 다시 왔겠남유? 결국 우리덜도 도회지에 나갔다가 발을 못 붙이고 다시 돌아와서 이르게 낚시꾼들 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요. 으디 갈 데가 있어야지유. 굶어 죽어도 고향 선산에 뼈를 묻어야겠다는 생각 땀시…….”

봉구는 푸우 한숨 섞인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멀고 회한에 가득한 눈으로 산자락 모퉁이 옛날 창평 고씨(昌平高氏) 제각이 있던, 편편한 곳에 준비하게 늘어선 매운탕집 주막들을 바라보았다. 지난봄까지만 해도 선산을 버리고는 죽어도 방울재를 떠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집을 뜯어 옮기고 그대로 눌러앉은 박팔만이네를 제하고, 다섯 집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열한 집으로 늘어났다.

새로 생긴 방울재 매운탕집들 앞으로는 아카시아 숲이 휘윽하게 울타리처럼 둘러쳐져 있고, 아카시아 숲 너머로는 호남 고속 도로와 연결되는 좁장한 신작로가 뻗쳐 들어오고, 그 길을 따라 낚시꾼들이 타고 온 자가용들이 집 둘레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햇빛을 쏘개어 날렸다. 『봉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슬프고 어쭙잖게만 보였다.』

『말이 보상금이지, 보상 가격을 책정해 놓고도 일이 년 뒤에야 지불을 받고 보니, 이미 인근 농토값은 몇 배로 뛰어올라 대토(代土) 잡기에 어려웠고, 도회지로 나가서 살자 해도 전세방을 얻고 나면 자전거 하나 사기도 힘든지라, 아무 짓도 못 하고 솔래솔래 꽃감 꼬치 빼먹듯 하다가는 두 손바닥 탈탈 털고 영락없이 알거지가 되고 만 집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봉구 그 자신도 보상금 받아 가지고 읍에 나가서 버스 정류장 옆에 가게를 얻어 쌀집을 냈으나 어찌 된 셈인지 남는 것은 없고 옴니암니 본전만 까먹게 되어 전셋돈이나마 가까스로 전져 다시 방울재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지붕 위에서 낚시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빨간 모자 낚시꾼은 두뼉두뼉 곧잘 말을 걸어왔다.

“사람들끼리 한끼밖에 잼겨 뽀 거이 더 마음 아프구먼유.”

“누가 빠져 죽었나요?”



“죽은 거나 매한가지라우. 수십 년 동안 얼굴 맞대고 정 붙이고 살아온 방울재 사람들을 시방 어디에 가서 찾을 겁니까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몇 집 안 되지라우.”

“예끼 여보슈, 난 또 무슨 소리라구!”

“선생님들은 우리 속 몰라유.”

“땀이 원망스럽겠군요.”

“으째서유?”

“고향을 삼켜 버렸으니까요.”

땀 건설로 물에 잠겨 마을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향이 해체되었음

“위디가유.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러키 앞뒤 짝 맥힌 멍충이들이란가유? 땀이 생겨 땀이 뿔뿔스런지 앓음 → 봉구: 땀 건설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방울재를 떠나야 하는 현실은 불가피한 것일 서 많은 농민들이 가뭄 모르고 농사 잘 짓는 거이 올매나 잘헌 일인가유?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유.”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래도 고향이 없어져 뿔고 정든 사람덜이 뿔뿔이 풍지박산되야 뽕졌는디 으찌.”

땀 건설로 인해 고향이 사라진 사건(지역 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의 비극적 현실을 확기)

“딱하게 됐습니다.”

“그라니께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여라우. 우리헌티 땅이 있소, 기술이 있소?”

빨간 모자가 대꾸를 해 주지 않자, 봉구는 고개를 들어 다시 매운탕집들 위로 내리뽕은 고속 도로를 바라보았다. 자동차들이 바람처럼 썹썹 내달았다.
봉구의 상실감을 확인하는 역할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사회 고발적, 비판적
배경	① 시간: 1970년대 ② 공간: 전남 장성호 수몰 마을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소외된 삶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내몰린 사람들이 겪는 삶의 애환
특징	① 고향 상실의 아픔과 절규가 ‘징 소리’의 격렬한 청각 영상으로 표상됨 ② 날씨와 같은 배경 묘사가 작품의 분위기 형성에 기여함
출전	「창작과 비평」(1978년 겨울호)



작품 해제

이 작품은 1978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이후 발표된 「저녁 징 소리」, 「무서운 징 소리」, 「마지막 징 소리」, 「달빛 아래 징 소리」와 함께 연작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장성 방울재'라는 수몰(水沒) 지구를 배경으로 거대한 댐건설로 인해 실항민들이 겪는 고향 상실의 아픔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농촌에 불어닥친 산업화의 문제점을 그리고 있다. 수몰로 인한 고향 상실과 물질적 가치로 인한 전통적 삶의 방식의 붕괴, 이로 인한 민중들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은 바로 산업화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던 1970년대 우리의 모습이다. 작가는 산업 사회로 인한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를 거부하며 인간적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작품의 구조

발단	고향을 떠난 지 삼 년 만에 미쳐서 방울재로 돌아 온 칠복은 낯시터에서 징을 두들기다 낯시꾼들에게 두들겨 맞는다.
전개	칠복은 조실부모하고 어렵게 자라나 도시 물을 먹은 순덕과 결혼하여 뼈가 으스러지도록 밤낮을 안 가리고 일을 하여 하천부지에 농토를 장만한다. 그러던 차에 장성 댐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고 토지마저 보상받지 못하게 되자, 도시로 가자는 아내의 성화대로 고향을 떠나 광주의 판자촌으로 밀려나게 된다.
위기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칠복은, 인근 농촌 마을에서 품을 팔아 돈을 벌어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내가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이후 아내는 달아나고 칠복은 아내를 찾아 미친 듯 돌아다니다가 거지가 다 되어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 마을로 돌아온다.
절정	마을 사람들은 낯시터에서 징을 두들겨 장사를 방해하는 칠복을 마을에서 쫓아내고자 공모하여 비 오는 밤, 억지로 칠복이 부녀를 버스에 태워 보낸다.
결말	그 날 밤, 마을 사람들은 빗소리에 뒤섞인 징소리를 들으며 칠복이의 한(恨)에 몸서리친다.

전체 줄거리

칠복이는 조실부모하고 외가에서 머슴처럼 장성하여 도시물 먹은 순덕이와 결혼한다. 그는 도시로 나가 살자는 순덕이의 제안에 광주시 산꼭대기에서 사글세로 살게 된다. 순덕이는 며칠 만에 식당 주방에 취업하고, 농사일 외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칠복은 면목 없이 아내의 수입으로 먹고 산다. 어느 날, 장성읍에 나가 농사 품을 팔아 20만 원을 벌어들여 오다가 순덕이의 불륜을 목격한 칠복은 줄행랑을 친 순덕을 찾지 못하고 어린 딸을 업고 거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는 징을 애지중지하여 잘 때도 꼭 베고 자며, 징을 울려 낯시꾼들을 방해하다가 매를 맞기도 한다. 호수에 잠긴 방울재를 떠나 낯시꾼과 관광객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생계를 이어 가는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의 징 소리에 장사가 잘 안 되자, 그의 처지를 동정하면서도 마침내 마을에서 쫓아내고 만다. 칠복이 부녀를 쫓아낸 날 밤 빗방울이 굵어지는데, 봉구의 귀엔 바람 소리인지 징 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또 한 마을 사람들도 그 귀기(鬼氣) 서린 징 소리에 몸을 떨며 잠을 뒤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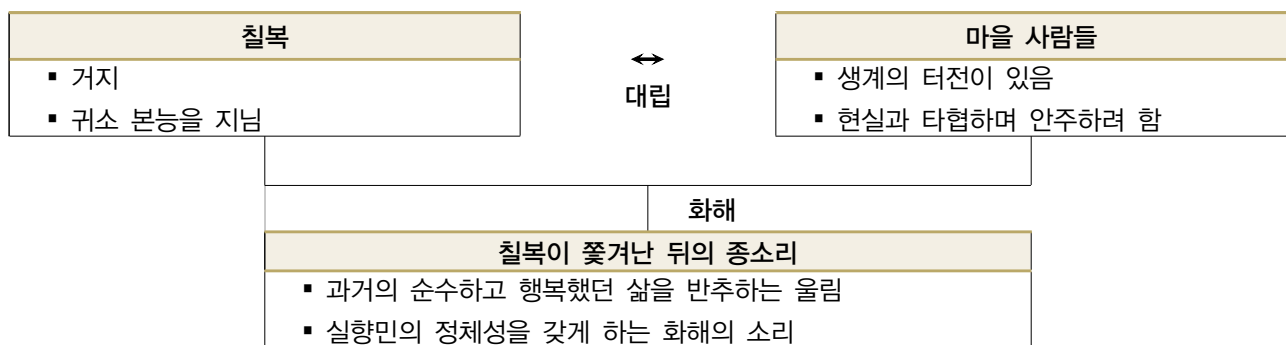
인물 분석

칠복	- 조실무보하고 외가에서 머슴을 살다가 순덕이와 결혼함 - 장성댐 건설로 인해 마을이 수몰되자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지만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해 다시 고향에 돌아옴 - 댐의 낙시터에서 징을 치고 다니다가 생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음 사람들에게 쫓겨남
순덕	- 칠복의 아내 - 시골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도회로 나가 살 것을 조름 - 결국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어린 딸을 두고 도망함
봉구	- 칠복의 어릴 때 친구 - 칠복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지만 끝내 칠복을 마을에서 쫓아내는 데 합류함
강촌 영감	- 와락와락한 성질을 가진 회갑에 가까운 노인 - 생계를 위해 칠복이 부녀를 매정하게 쫓아 보내는 인물

주인공 이름의 반어적 의미

‘징 소리’의 주인공 이름은 ‘칠복(七福)’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순덕(順德)’이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정반대이다. 칠복이는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려 했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복(福)도 주어지지 않고 일곱 가지 복(고향, 아내, 자기 자신, 친구, 집, 재산, 직업)을 모두 잃는다. 이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순한 덕을 지니고 있을 것 같은 그녀는 끝내 남편을 배신하고, 아이도 버려 둔 채 도망치는 여인이다. 이처럼 작가는 사건과 이름이 가지는 상반된 명명(命名)을 통해 아이러니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소설 속 갈등 양상



공간적 배경의 의미

‘장성(長城) 방울재’라는 구체적 지명을 배경으로, 산업화의 상징인 ‘댐’ 건설로 인한 실향민들이 겪는 고향 상실의 아픔과 다시 고향을 찾으려는 몸부림을 그리고 있다. 그 ‘아픔’과 ‘몸부림’의 절규가 곧 ‘징 소리’의 격렬한 음향으로 표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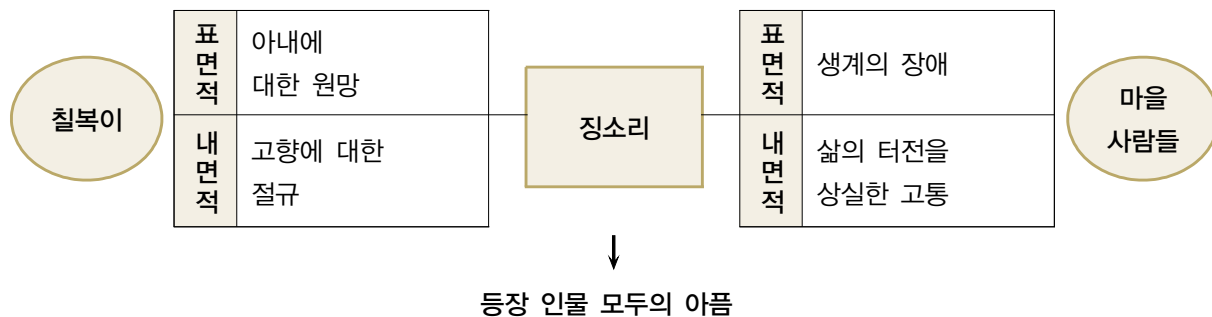


방울재	광주
▪ 칠복이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하는 공간 ▪ 공동체적 질서가 그대로 안존하는 공간	▪ 도회지를 꿈꾸는 순덕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의 공간

‘징 소리’는 ‘방울재’와 ‘광주’라는 이분법적 공간적 배치를 보여 주고 있다. ‘방울재’에서 ‘광주’로의 공간 이동은 공동체적 질서에서 산업화된 질서로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의 의미

‘징 소리’는 등장인물의 아픔, 즉 근대화의 이면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상징한다. 댐 건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낚시꾼과 관광객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칠복이 징을 쳐서 낚시꾼들을 방해하자 칠복 부녀를 냉정하게 마을에서 쫓아낸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빗소리에 뒤섞인 징 소리를 들으며 칠복이의 울음 소리를 들은 듯하다고 여긴다.



‘징 소리’는 그 깊이 울리는 소리로 인해 ‘한을 감싸고 풀어내는 역할’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화로 인해 사라져 가는 농촌 공동체에 대한 향수이며, 그런 시대에 의해 소외되는 민중들의 한풀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근대화 이면에서 희생당하는 칠복이로 대표되는 농촌 빈민의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의 한을 구체화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빈민들의 고달픈 삶을 상징한다.

징 소리	▪ 실향민의 고향 상실의 아픔을 구체화한 소재 ▪ 고달픈 현실에서 오는 한과 비애의 상징 ▪ 농촌 공동체에 대한 향수이자 고향을 다시 찾으려는 몸부림의 표상 ▪ 소외된 민중들의 한풀이로서의 의미
------	---

시대 상황과 관련한 작가의 주제 의식

이 작품이 발표된 1970년대는 급격하게 이루어진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이 소외되고, 이로 인한 이농 현상으로 농촌 출신의 도시 빈민들이 많이 발생했던 시기이다. 부의 불공정한 분배·황금만능주의·극단적 이기주의 현상들은 전통 사회를 붕괴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작가 문순태는 자신의 고향인 전남 일대의 농촌을 중심으로 농촌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민중들이 어떻게 희생되는가를 보여 주는 작품을 주로 썼다. 그는 이 소설에서 칠복이로 대표되는 농촌 빈민의 삶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우리 농민의 한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과 농촌 빈민들의 고달픈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1970년대의 연작 소설

농촌의 붕괴 문제를 다룬 이문구의 「우리 동네」, 도시 빈민 문제를 다룬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한국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빈부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 문제를 다룬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등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이 시기의 작품이다. 연작 소설은 부분적으로 독립된 단편이면서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 구조를 갖는 장편의 형태를 지닌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다.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고 사회 계층 간의 반목이 뚜렷해지면서 하나의 시점으로 작가의 시각을 고정하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당대의 문제들에 대해 조명하고자 하는 작가 의식의 소산으로 이해된다.

배경으로 엮어 읽기 -산업화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윤홍길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는지?」
 「강도가 권 씨일을 안 '나'는 자신이 수술비를 전액적으로 전달함」
 “개수작 마! 그 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 듯 일었
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엥겔에게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강도가 권 씨일을 알 수 있을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복명을 한 권 씨를 강도로 대우해야 나중에 권 씨 얼굴을 보기가 덜 어색할 것이기 때문
 “대문은 저쪽입니다.” (중략)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
 ‘나’에게 자신의 경계를 동정음을 논리 채고
 비장한 상황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심리에서 나온 말임
 (중략) 그 다음 날, 그 다음다음 날도 권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의는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핵심 정리

갈래	중편 소설, 사회 고발 소설, 세태 소설
성격	시대 고발적, 반성적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산업 사회에서 소외된 인생의 비극적인 삶 산업화의 흐름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에 대한 연민과 현실 고발

작품 해제

주인공 권 씨는 성남시의 택지 개발이 시작될 무렵 집을 장만할 요량으로 철거민의 입주권을 샀지만,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좌절을 겪고 우연히 이에 항의하는 시위에 휘말려 결국 전과자가 된 인물이다. 한편 서술자 ‘나(오 선생)’는 임신한 아내의 수술비를 빌리러 온 권 씨가 빈손으로 돌아간 뒤,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 병원에 찾아가 도움을 준다. 공교롭게도 그날 권 씨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의 집에 강도로 침입했다가 자존심만 상한 채 나간다. 권 씨는 아홉 켄레의 구두만 남기고 행방 불명이 된다.



(영이의 독백과 심리 위주로 서술함)

： 심포의 빈번한 사용 - ①사고의 흐름 제시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채 벌써 오랫동안을 만나지 못한 어머니 생각, 아버지 생각, 기미꼬 언니 생각, 금순이 생각에, 드디어 영이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죽여 느껴 울었다. 『그러나 십자가 고
중심인물(1930년대의 사회적 양상을 여인의 삶을 통해 드러냄)
약한 침모는 새벽녘에 발견한 그 사실을, 그냥 제 가슴속에만 간수해 두지 않고, 소문은 그렇게도

： 심포의 빈번한 사용 - ②사건의 진행 과정을 암묵적으로 제시

쉽사리 나서.』 『영이의 조반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그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 인물의 행동을 통해 영이(당시 여인들의) 고된 결혼 생활이 드러남 - ②시어머니

“왜, 젊은 년이 밤낮 훌쩍훌쩍 우니? 그, 방정맞아 못쓴다.”』

다시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던 그날 밤에, 『남편은 떠름한 얼굴을 하고 돌아와
기미꼬가 모레 낮에 모교 다리 청요릿집에서 만나자더라고, 불멘소리를 하고 그대로 돌아서서 작
은사랑으로 나가며.』

“누가 가뉘 댔단 말인가?”

①남편이 영이를 옆에 두고 지나가듯 한 말 - 영이에 대한 남편의 불만 ②영이는 이 말을 통해 남편이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 짐작
받은 혼잣말로 그러한 말을 한마디 하였다.

밤새도록 시아재비 생일 차리느라 바쁘면서도, 그는 그 말이 어떻게 한 말임을 궁리해 보았으
나, 알아내는 도리가 없었다.

： 영이는 남편이 기미꼬 언니에게 생긴 속사정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

기미꼬 언니가 어디서 남편을 보고, 자기와 만나자고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인지, 그때 혹 웃음
의 소리라도,

“그, 밤낮 영이를 가뉘 두지만 말구, 더러 밖에두 좀 내노슈.”

①기미꼬 언니가 남편에게 했을 만한 말을 상상함 ②남편이 이 말을 진실로 생각해 영이에게 빠진 것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함

그러한 말이라도 한 것이 비위에 틀려 그랬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야 이를테면
어떻든 좋았다.

『대체 기미꼬 언니는 왜 갑자기 나를 만나자는 것일꼬? 시집오기 전에, 나더러 마구 밖에 나오지
말라고 몇 번인가 거둬 타일러 준 것이 바로 그였는데, 그가 이렇게 나오라고 부르는 것에는 무슨
까닭이든 까닭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일이 생겼다면 무슨 일이 누구에게? 하고 생각하니 기미꼬의 몸 위에 일어난 일은 아닐 듯싶었다.

‘그럼, 어머니나 아버지 몸 위에?…….’

사정을 모르는 만치 염려는 컸다. 즉시 만나자는 것이 아니고, 모레, 이틀씩 날을 둔 것을 보면
무슨 급한 일은 아닐 듯도 싶지만, 하여튼 그러면 또 그런대로, 내일은 꼭 언니를 만나고, 어머니
를 만나고, 그동안 혼자 가슴속에 쌓아 놓고 애타 하던 모든 설움을 터놓을까? 영이는 한때, 그런
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나,』 다시 냉정히 생각해 보고, 그는 그것을 단념해 버렸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이들이, 현재 자기가 행복되다 생각하고 있든, 불행되다 생각하고 있든, 자
기는 결코 그이들에게 이 고생을, 이 슬픔을 알려서는 안 된다.

： 영이의 고된 결혼 생활



나의 일은 역시 나 혼자 처리할 것이요, 나의 슬픔도 오직 나의 마음속에만 간직하여, 결코 이 집을 나가는 일 없이, 어디까지든 **모든 박해**와 싸워 가리라. 그것은 이를테면 영이와 같은 경우에 있는 여자가 자기 한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주위에 대하여, 복수를 이룰 수 있는 오직 한 개의 수단인 것이다.

‘모든 것을 참자. 죽어도 이 집 귀신이다…….’

영이가 시정살이를 참고 견디고자 다정함

약속한 날, 어머니가 기미꼬와 금순이를 따라, 무교정 청요릿집에서 몇 시간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때, 자기가 응당 좋아라고 뛰어나가리라 생각하고 있는 남편의 심사가 가증해서도, 영이는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싶은 욕망을 꼭 눌러 참고, 속달을 부치러 펜을 잡았던 것이다…….

핵심 정리

갈래	장편 소설, 세태 소설
성격	관찰적, 삽화(에피소드)적, 모더니즘적
배경	① 시간: 1930년대 어느 해 2월 ~ 이듬해 1월까지 ② 공간: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한 서울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
제재	청계천 변 서민들의 삶
주제	1930년대 서울 중산층과 하층민의 삶과 애환
특징	① 서민의 생활 모습을 50개의 장으로 나누어 서술함 ② 카메라를 들고 찍는 듯한 기법인 ‘카메라 아이(camera eye) 기법’을 통해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대화함

작품 해제

박태원의 「천변 풍경」은 청계천 변의 주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서민들의 생활상을 50개의 절로 나누어 서술한 1930년대의 세태 소설이다. 70여 명의 평범한 인물들을 모자이크식으로 제시하는 소설로,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세태 소설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작가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여 마치 카메라처럼 삶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전체 줄거리**

청계천 변 주민 삼십여 명의 일상사가 빨래터와 이발소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나이 오십이 된 민 주사는 안성집과 외도하면서 정치적 야망을 꿈꾸지만 결국 실패한다. 다소간의 허영기와 속물근성을 가진 포목전 주인은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한약국 집 젊은 내외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다. 가평에서 상경한 창수는 한약국에서 일을 시작하지만 점점 세속적 인물로 변해 간다. 평화 카페의 여급 영이(하나코)는 약사와 결혼하지만, 시집살이와 남편의 외도, 전처의 자식 때문에 괴로워한다. 취직을 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서울에 온 금순은 기미코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이발소 집 사환 재봉이는 이발사 김 서방과 갈등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인물 분석

아이들	재봉	15~16세 가량의 이발소 사환 - 관찰자로서 서울 풍경과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봄	서울에서 꿈을 키워 감
	창수	한약국 집 사환. 재봉이 또래의 꽤 많은 소년	
나이든 남자들	민 주사	- 재력 있는 50대 사법 서사 - 주색잡기(酒色雜技)를 즐기는 배금주의자 - 부의회 선거에 낙선하고 마작 놀음에 빠짐	재정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주색잡기에 관심이 많음
	종로 은방 주인	금정꾼 여급에게 돈을 주어 환심을 사려 함	
새댁들	만돌 어멈	포악한 남편과 함께 사는 행랑 어멈	남편들의 무책임,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해 고통 받음
	금순이	- 순박한 시골 색시 - 가족들과 헤어져 기미코, 하나코와 함께 살게 됨	
	이쁜이	- 천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으나 친정으로 쫓겨남 - 점룡이가 짝사랑한 인물	
아낙네들	필원이네, 칠성 어멈, 점룡이 어머니 등	세태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과 인정이 많음	
독립한 여자들	기미코, 하나코, 안성덕	근대화로 인해 생겨난 인간 유형, 카페 여급이나 재력가의 첩으로 생활함	

『천변풍경』의 주인공

『천변 풍경』은 제목이 가리키는 대로 청계천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보통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병렬식으로 나열하며 30년대 중반 서울 서민층의 삶을 꼼꼼히 재현하고 있다.

이 소설에는 중심 사건도 특정한 주인공이라 할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청계천 주변에 산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과 사건들을 한 편의 소설 속에 모아 놓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청계천이야말로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자 소설의 구성 원리가 되는 것이다.



공간적 배경

상이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여 줌으로써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대화한다. 당시 서민층의 일상을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빨래터	이발소	백화점
▪ 여인들의 집합소	▪ 남성들의 사교장	▪ 도시의 모습

- ⇒
-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생생하게 형상화함
 - 근대와 전근대적인 모습이 공존함

서술상의 특징

이 소설은 이들 천변 인물 군상의 삶을 카메라의 눈처럼 충실히 따라가며 비출 뿐 그것들을 모아 하나의 주제에 꿰어 맞추거나 그들의 생활에 작가의 가치관으로 만든 자를 들이대지 않는다. 즉 카메라가 대상의 충실한 재현에만 열중하듯 작품 속의 시선은 시종일관 대상에 대해 중립적인 시선을 보여 준다.



삽화식 구성	▪ 다양한 등장인물을 각각 주인공으로 하는 일화를 특별한 줄거리나 순서 없이 나열하는 구성
몽타주 기법	▪ 각각의 장면을 붙여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기법 ▪ 청계천 변에 사는 70여 명의 인물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이는 복잡 다양한 일사사를 나란히 제시함
클로즈업 기법	▪ 특정 대상을 확대해서 보는 기법 ▪ 여러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하다가 한 인물이나 하나의 장면을 자세하게 확대하여 보여 줌
카메라 아이 기법	▪ 카메라가 이동하며 촬영하는 듯한 기법 ▪ 작가의 주관성을 극도로 배제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사건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 ▪ 창수의 눈으로 바라본 천변의 풍경, 즉 관찰을 통해 보이는 천변의 모습이 제시됨 ▪ 청계천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 상이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을 보여 주어 시간성과 공간성을 극대화 시킴

**‘청계천’의 상징성**

청계천 변은 근대화된 도시의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 1930년대 청계천은 근대와 전근대가 공존하고 도시와 시골이 만나는 지점으로, 당시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 시대 현실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며,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공간이다.

1930년대 청계천	- 도시와 시골의 접경지 - 근대와 전근대가 공존하는 공간	⇒	냉혹한 이익의 추구와 끈끈한 인간애가 공존하는 곳
---------------	---	---	--------------------------------

세태 소설

‘세태’란 사람들의 일상 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을 일컫는다. 즉 세태 소설은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는 어린 창수의 눈으로 바라본 천변의 풍경, 즉 관찰을 통해 보이는 천변의 모습이 제시된다.

작가 소개

이상과 더불어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스트로 꼽히는 박태원은 다양한 소설적 기법을 사용했던 실험적인 작가였다. 1933년 이태준, 정지용, 김기림 등과 함께 ‘구인회’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는 프로 문학에 대응하여, 문학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순수 문학을 지향하는 한편, 전통적 문학 형식을 거부하고 실험적인 다양한 서술 기법을 적극 수용하였다.

작품으로 엮어 읽기 - 또 다른 장면**천변 풍경 / 박태원**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썰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옷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가 앉아 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쓰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서쪽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소매에 막도가 달린 남자를 외투의 일종 쓴 포복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욕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절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 가 뒹굴고, 그러는 각쟁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

댄,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어린 아이 ‘창수’는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이면적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더구나, 소년은, 줄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래두,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읍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삼 층 꼭대기, 사 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의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도, 그것은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작품 해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일반적 구성을 따르지 않고 여러 인물들의 삶에 에피소드 형식으로 제시하는 삽화식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의 풍경과 청계천 주변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소년 ‘창수’의 눈을 통해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자식에 대한 못마땅한 태도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 / “……멋허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 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 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에 대한 적대감 표현 집안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종학의 피검 소식을 알려줌) 『지체』: 서술자적 논평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을 풍자함 적정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회주의에 참여함으로써 가족의 몰락을 가져오는 인물(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꼬옥 맞겠습니다.』 / “동경서? 전보?” / “중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구 대한 제국 때, 한성부와 경기도의 경찰 및 소방 업무를 맡아보던 관청 요!” / “으응?”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꿇 찡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종학이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것에 충격을 받음 행어나 운동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가끔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구요.

▶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손자 종학이 잡혔다는 소식에 놀라는 윤 직원

윤 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 하고 꿈쩍도 않습니다. /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습니다. 잘고 단단한 몽둥이 위기에 대한 자기 방어 의 자세를 본능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동물적으로 표현함(윤 직원의 강한 자기 방어 의식을 보여 줌)

“거, 웬 소리냐? 으응? 으응? 거 웬 소리여? 으응? 으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 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의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쓰윽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보고, 윤 주사네 서사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 / “중학,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이라니? 일본어 문장 수사 기관에 강력 감 대서나 필사를 엉로 하는 사람 전보의 내용 이게 무슨 소리다냐?”

“중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 “사상 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 “으응?”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 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 있는 땅이 지함(地陷)을 해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땅이 움푹하게 가라앉음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중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 직원 영감은 시방 중학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의 드세던 부 적정해서가 『지체』: 옛날의 불탄다파는 기껏 화적때에 불과했으나, 지금의 사회주의는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사회주의에 대해 더 적대감을 느낌 랑당 패가 백 길 천 길로 침노(侵擄)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진(秦)나라를 망할 자 호(胡: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胡亥)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종학 『지체』: 소재물의 의미 종학에 대한 배신감과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 윤 직원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까. / “사회주의라니? 으응? 으응?……”

『손자 종학의 충격적 소식을 들은 윤 직원의 태도가 자기 방어적 자세에서 공격적 자세로 바뀌

윤 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咆哮)를 합니다.



“……으응? 그놈이 사회주의를 허다니! 으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여?”

“허긴 그놈이 작년 여름 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뵈긴 했어요!”

“그러머넌 참말이구나! 그러머넌 참말이여, 으응!……”

윤 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닝개루, 생판 사회주의 허다가 텨다 경찰서에 잡혀? 으응? 오사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헌 것이라구 지가 사회주의를 히여? 부자 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랑당 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 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찰 듯이 조용합니다.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는 윤 직원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일제 식민 통치를 장악하는 윤 직원의 가치관이 드러남: 일제 강점기=태평천하

윤 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짖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향을 지릅니다.

(소가) 갈게 뽀아 우는 소리

“화적패가 있느냐야? 부랑당 같은 수령(守令)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末世)넌 다 지내가고오……. 『자 부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헌 정사(政事),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動兵)을 히여서, 우리 조선 놈 보호히여 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으응?……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 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 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평평거리구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에 참섭(參涉)을 헌담 말이여, 으응?』

남의 일에 참견, 간섭

▶사회주의에 대한 윤 직원의 반감

땅 방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든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여 선 가권(家眷)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喪性)이 되지나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성격이) 토탕하면서 도세고 급한지

“……착착 깎아 죽일 놈!…… 그놈을 내가 핀지히여서, 백 년 지녀를 살리라구 헐걸! 백 년 지녀

살리라구 헐 테여……. 오냐, 그놈을 삼천 석 거리는 직분(分財)히여 줄라구 히였더니, 오냐, 그놈 삼천 석 거리를 툭툭 팔아서, 경찰서으다가 사회주의 허는 놈 잡어 가두는 경찰서으다가 주어 버릴걸! 으응, 죽일 놈!”

마지막의 으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의 고조



“……이 태평천하에!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꿰어앉았던 윤 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꾼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 놀 사회주의 부랑당 패에, 참섭을 하여, 으응, 죽 일 놈! 죽일 놈!”

연해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끼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 윤 직원이 지켜 온 가족의 붕괴 양시가 뒤에 처져 있는 가권들의 귀에는 어쩐지 앞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득히 어둔 얼굴들을 면면 상고(面面相顧), 말할 바를 잊고, 몸 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볼 윤 직원의 몰락 처럼…….』

▶ 종학을 저주하며 분노하는 윤 직원과 불안한 기운을 느끼는 가족들

핵심 정리

갈래	중편 소설, 사회 소설, 풍자 소설, 가족사 소설, 사실주의 소설
배경	① 시간 : 1930년대 ② 공간 : 서울, 한 평민 출신의 대지주 집안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문체	판소리 사설의 원용(援用)
어조	부정적 인물을 비판하는 풍자적 어조가 두드러짐
의의	1930년대 사회 현실의 격심한 퇴폐성을 비판적으로 풍자
주제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윤 직원 일가의 타락한 삶과 몰락 과정
특징	① 풍자적 수법 : 부정적 인물(윤직원 영감)을 내세운 반어적 풍자 ② 판소리 사설의 문체 ③ 반어와 희화(戲畵)를 통한 풍자적, 해학적 어조 ④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던지는 말투 및 경어체의 문체 ⑤ 서술자는 독자와 거리가 가깝고, 등장인물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취함 [참고] *희화화: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따위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함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기법 *판소리 사설체: 운율감이 느껴지는 운문체, 반복이나 대구 등을 통해 강한 리듬감 조성, 과장을 통한 해학적 표현, 방언이나, 비어, 속어 등을 사용한 풍자와 해학, 참자가 자신의 의견을 해설함(서술자의 논평이 드러나기도 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천하태평춘(天下太平春)'이라는 제목으로 『조광』에 연재된 소설로, 염상섭의 「삼대」와 함께 1930년대를 대표하는 가족사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작가는 윤 직원 영감의 그릇된 인식과 그 일가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부정적 시대 현실에 영합하여 살아가는 인물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특히 판소리 사설의 문체와 표현을 사용하여 풍자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술자는 반어적 수법으로 윤 직원 영감과 같은 부정적인 인물을 희화화하고,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그 인물을 조롱하고 평가하고 있다.

작품의 구조

발단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 와서는 그 샅을 깎으려 하고 나이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는다.
전개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아버지가 구한말(舊韓末) 시절에 화적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었던 집안의 내력을 가슴에 안고 일제의 권력과 결탁해 돈을 모으려고 한다.
위기	윤직원의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밤을 새며 가산을 탕진하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동수는 아버지의 첩 '옥화'와 정을 통하는 불륜을 저지른다.
절정 결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손자 '중학'이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被檢)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윤 직원은 충격을 받는다.

태평천하 15장

1장	윤직원 귀택지도	윤직원은 인력거꾼에게 줄 돈마저 아까워 함
2장	무임승차 기술	기생 춘심과 서울 명창대회에 구경 가서, 버스비로 10원짜리를 냄
3장	서양국 명창 대회	하등권(2등석)을 사서 아래층에 앉았으나 아래에 앉았다며 불평하는 무지함을 보임
4장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윤용규는 중인 신분으로 노름방 판무식꾼, 이백 냥으로 땅을 사들여 삼천 석 부자가 된 악덕 지주로 원한을 쌓다가 화적들에게 재산을 강탈당함
5장	마음의 빈민굴	창식은 느긋하지만 첩을 하나 더 들여와 고 씨는 생과부 신세가 되고, 둘이 다툼
6장	관전기	고 씨는 시아버지 윤 직원과 한바탕 붙음 손자 경손이 학교에서 늦게 돌아옴
7장	쇠가 쇠를 낳고	고리대금업의 윤직원은 2할(20%)의 이자를 받음
8장	상평통보 서 훈과	윤직원은 죽은 마누라를 상평통보 한푼(천냥)~서푼(3천냥)으로 저승 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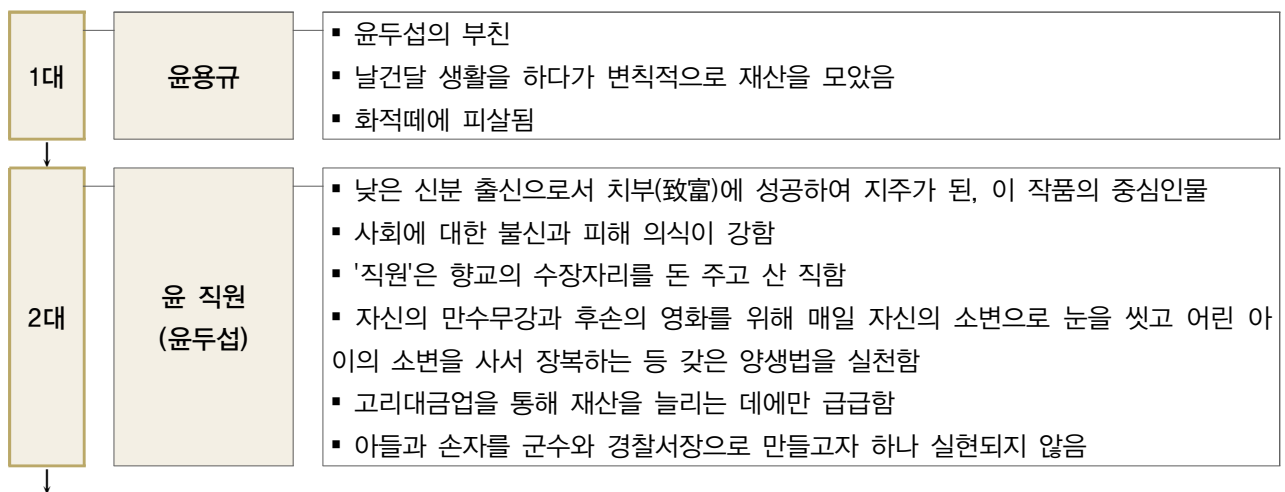


9장	절약의 도락정신	윤직원의 경리이자 비서 대복이는 채무자들의 재산 조사-가차 압하여 경매함
10장	실제록	제목을 잃은 기록 춘심이는 7원 50전 루비 반지를 갖고 싶어 함
11장	인간체화와 동시에 품 부족 문제	경손이와 춘심이의 연애
12장	세계사업 반절기	윤락업, 윤창식-첩 두명, 종수-병호는 뚜쟁이 집으로 종수를 데리고 가고, 창식의 두 번째 첩 옥화가 나타남
13장	도끼자루는 썩어도	윤창식<주사>의 마작놀이
14장	해 저무는 만리장성	30년 동안 어린아이의 오줌을 마심 춘심이 9원 10전에 반지 구입함
15장	망진자는 호아니라	집안을 망하게 할 자는 종학 전보의 내용은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피검됨

전체 줄거리

일제 강점기의 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 직원 영감은 일본인이 들어와 불한당을 막아 주고 '천하태평'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일본인들을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돈을 버는 데는 무엇보다도 권력과의 결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윤 직원 영감은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 데 아낌없이 기부한 것이다. 또, 윤 직원은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鍍金)한 것으로도 모자라 손자 '종수'와 '종학'이 군수와 경찰서장이 되어 가문을 빛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들과 손자는 윤 직원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래서 집안의 분란은 끊이지 않는다. 아들 '창식'은 집을 돌보지 않고 노름으로 밤을 새며 가산만 탕진하고 있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는 아버지의 첩 '옥화'와 정을 통하는 불륜을 저지른다. 며느리나 손자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가 않고 딸마저 시댁에서 소박맞고 와서 함께 살고 있다. 그래도 윤 직원 영감은 고압적으로 집안 분위기를 억누르고 있던 차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손자 '종학'이가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충격을 받는다.

인물 분석





3대	윤 주사 (윤창식)	▪ 윤 직원의 아들 -타락한 인물 ▪ 개화기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가치관을 상실하고 향락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 ▪ 첩을 여럿 두고 있음 ▪ 금치산자가 됨
4대	윤종수	▪ 윤 직원의 장손이자 윤창식의 장남 -타락한 인물 ▪ 향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물 ▪ 한량이며 오입쟁이
	윤종학	▪ 윤창식의 차남 -사회주의자, 의식 있는 인물 ▪ 일본 유학중임 ▪ 윤 직원이 가장 믿고 기대하는 인물 ▪ 윤 직원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주의자가 된, 의식 있는 청년으로 소설의 전면(前面)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음
5대	윤경손	▪ 윤종수의 아들

제목의 의미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이지만 윤직원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므로 지금의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반어적 기법을 통해 식민지 현실이 태평천하와 정반대의 상황임을 암시한다.

소재물의 의미

‘망진자(亡秦者)는 호야(胡也)니라’

진(秦)나라를 망할 자는 호(胡: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진시황은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러나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호(胡)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해(胡亥)였다.

진시황	진나라	호(胡) : 호해(胡亥)
윤 직원	집안	종학

진나라가 망한 것처럼 윤 직원 일가도 망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직원이 믿었던 손자 종학이 윤 직원 일가를 몰락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가의 비판 의식 -풍자와 반어

‘태평천하’는 윤직원 영감과 같은 부정적이고 타락한 인물에 대한 풍자가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풍자는 반어의 수법을 통한 부정적 인물의 희화화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1930년대 말에 한국 사회는 일제의 수탈과 착취에 의해 빈궁화 현상이 계속되어가고 있었다. 윤직원은 일제가 조장한 상업자본주의에 기생하여 자신의 부를 늘린 대표적인 인물이다. 즉, 작가는 작중 인물을 겉으로는 추켜세우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부정적 측면을 더욱 드러내어 그 인물을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면서 추악한 일면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전보’의 기능**

사실의 전달	윤중학이 검거되었음을 알림
서사의 전개	사건 전개에 극적인 반전을 유도
인물의 제시	이 작품에서 유일한 긍정적 인물이지만 사상범인 까닭에 전면적 등장시키기 곤란한 중학을 간접적으로 제시
주제의 암시	윤 직원의 몰락을 예고

작가로 읽어 읽기

치숙의 ‘나’와 태평천하의 ‘윤 직원’은 자신의 안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이고 현실 순응적인 인물이다. 또한 ‘윤 직원’은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고 ‘나’는 일본인에게 아첨하여 개인의 영달을 꾀하려는 인물로 독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작자에 의해 반어적으로 풍자되고 있음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치숙 / 채만식

사실 우리 아저씨 양반은 대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이제는 기껏 해 먹을 거란 막별이 노동밖에 없는데, 보통 학교 사 년 겨우 다니고서도 지방 앞길이 환히 트인 내게다 대면 고쓰카이만도 못하지요.

‘나’가 아저씨를 비난함
강심부름을 하는 남자 고목임을 알리는 일본어.

(중략)

그러나마 그게 밥이 생기는 노릇이란 말인지? 명예를 얻는 노릇이란 말인지. 필경은, 붙잡혀 가서 징역 사는 놀음?

아마도 그놈의 것이 아편하고 꼭 같은가 봐요. 그렇길래 한번 맛을 들이면 끊지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게 그다지 재미가 난다거나 맛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더군 그래요. 부랑당패던데요. 하릴없이 부랑당패니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나’의 인식

(중략)

「나」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에 동화된 ‘나’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함)

→ 부정적인 인물인 ‘나’의 목소리를 통해 ‘아저씨’를 비난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드러냄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살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 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견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 범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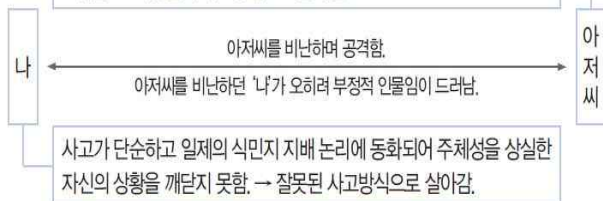
갈래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성격	풍자적, 비판적
배경	① 시간: 일제 강점기 ② 공간: 서울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주제	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하려는 ‘나’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저씨의 갈등

제목의 의미 -반어

‘치숙’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이다. 이는 반어적 표현으로, 독자는 아저씨보다 ‘나’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소설 속 갈등 양상

- 대학교까지 나왔으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함.
- 사회주의 운동으로 감옥에 다녀왔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운동에 빠져 있음 → 비현실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감





물론 가겠노라고, 어제는 정말 잠이 나지 않았노라고 자신 있게 입막음을 하지도 못한 채 나는 어영부영 전화를 끊었다. 처음 그 애가 "혹시 은자라고, 철길 옆에 살던……." 하면서 전화를 걸 '나'가 은자와의 약속을 이해하는 것(은자와의 만남)에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

어왔을 때의 무작정한 반가움은 웬일인지 그 이후 알 수 없는 망설임으로 바뀌어 있었다. 작가인 '나'의 친구(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람) 「「유황불」이라는 양귀자의 소설을 말함」 은자는 내 추억의 가운데에 서 있는 표지판이었다. 「은자를 기둥으로 하여 이십오 년 전의 한 해

를 소설로 묶은」 뒤로는 더욱 그러하였다. 기록한 것만을 추억하겠다고 작정한 바도 없지만 나의 소설 「유황불」은 낯선 곳으로 이사 온 어린 주인공이 철길 옆 전봇대 가게 딸인 미화와 나누는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미화는 「한계령」의 은자임 기억은 언제나 소설 속 공간에서만 맴 돌았다. 일 년에 한 번, 아버지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갈 때마다 표지판이 아니면 언뜻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는 고향의 모습이 내게는 낯설기만 하였다. 이제는 사방팔방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여관이나 상가 사이에

홀로 박혀 있는 친정집도 예전의 모습을 거의 다 잃고 있었다. 옛집을 부수고 새로이 양옥으로 개축한 친정집 역시 여관을 지으려는 사람이 진작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이었다. 집 앞을 흐르

던 하천이 복개되면서 동네는 급격히 시가지로 편입되기 시작하였다. 그나마 철길이 뜯기면서는 완벽하게 옛 모습이 스러져 버렸다. 작은 음악회를 열곤 하던 버드나무도 베어진 지 오래였고 찢

빵 가게가 있던 자리로는 차들이 쉴쉴 달려가곤 했다. 아무래도 주택가 자리는 아니었다. 예전에는 비록 정다운 이웃으로 둘러싸인 채 오순도순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었다. 은성장 여관, 미림 여관, 거부장 호텔 등이 이웃이 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한창 크는 아이들이 있었다. 우

리 형제들은 물론, 조카들까지 제 아버지에게 이사를 하자고 졸랐었다. 하지만 큰오빠는 좀체 집을 팔 생각을 굳히지 못하였다. 「집을 팔라는 성화가 거세면 거셀수록 그는 오히려 집수리에 돈을 들이곤 하였다. 그 동네에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큰오빠였다.」

일 년에 한 번씩 타인의 낯선 얼굴을 확인하러 고향 동네에 가는 일은 쓸쓸함뿐이었다. 이제는 그 쓸쓸함조차도 내 것으로 남지 않게 될 것이었다. 누구라 해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다. 고향은 지나간 시간 속에 있을 뿐이니까. 누구는 동구 밖의 느티나무로, 갯마을의 짙

냄새로, 동네를 끼고 흐르는 긴 강으로 고향을 확인하며 산다고 했다. 내게 남은 마지막 표지판은 은자인 셈이었다. 보이는 것들은, 큰오빠까지도 다 변하였지만 상상 속의 은자는 언제나 같은 모

습이었다. 은자만 떠올리면 옛 기억들이, 내게 남은 고향의 모든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다가오곤 하였다. 허물어지지 않은 큰오빠의 모습도 그 속에 온전히 남아 있었다. 내가 새부친 클럽에

가서 「은자를 만나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표지판에 기대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

은자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나는 전혀 떠올릴 수가 없다. 설령 클럽으로 찾아간다 하여도 그 애를 알아볼 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었다. 내 기억 속의 은자는 상고머리에, 때 낀 목덜미를 물들



인 박 씨의 역센 손자국. 그리고 터진 겨드랑이 사이로 내보이던 낡은 내복의 계집아이로 불박여
아버지로부터 맞은 자국 있었다. 가난한 삶의 모습 서른도 훨씬 넘은 중년 여인의 그 애를 어떻게 그려 낼 수 있는가. 수십 년간 가슴에 품
형제의 은자 어 온 고향의 얼굴을 현실 속에서 만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만나 버린 뒤에는
언제나 내게 위안을 주던 아름다운 추억 내게 위안을 주었던 유년의 소설도, 소설 속의 한 시대도 스러지고야 말리라는 불안감을 떨쳐 버
 릴 수가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은자의 직업: 방목대 가수 현실로 나타난 은자를 외면할 수 있을는지 그것만큼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겨 둔 채 은자를 만날 것임지에 대한 고민 토요일 밤을 나는 원미동 내 집에서 보내고 말았다.

일요일 낮 동안 나는 전화 걸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제 은자는 가시 돌친 음성으로 나의 무심함
 을 탓할 것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은자로부터의 질책을 수용하겠다는 마음 그녀의 질책을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나는 그 애가 던져 올 말
 들을 하나하나 상상해 보면서 전화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그러나 한 번도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
 다. 일요일은 언제나 그랬다. 약속을 못 지킨 '나'의 직업: 작가 원고가 있더라도 일요일까지 전화를 걸어 독촉해 올
 편집자는 없었다. 은자는 '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나'의 방문을 재촉하였음 전화벨이 울린다면 그것은 분명 은자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오후가 되어서 이윽고 전화벨이 울렸다. 그러나 수화기에선 쉼 목소리 대신에 귀에 익은 '나'의 여동생 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향에서 들려오는 살불이의 음성은 모든 불길한 예감을 짓히고 우선 반가
 웠다. 여동생이 전하는 소식은 역시 큰오빠에 관한 우울한 삽화들뿐이었다. 『마침내 집을 팔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과, 한 달 남은 아버지 추도 예배는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올리
 기로 했다는 이야기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어제였는데 큰오빠는 종일토록 홀로 술을 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큰오빠가 생계를 책임졌던 이유)
 셧다고 했다. 집을 팔기 원했으나 지금은 큰오빠의 마음이 정처 없을 때라서 식구들 모두 조마조
 마한 심정이라고』 동생은 말하였다.

집을 팔았다고는 하지만 훨씬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큰오빠에게 있으므로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큰오빠의 소중한 기억과 성실함의 증거인 '집'을 팔았기 때문, 동생들이 성장해서 자리를 잡은 후 밀려오는 허탈함 때문 큰오빠는 어제 종일토록 홀로 술을 마셨다고 했다. 나도, 그리고 동생도 걱정하
 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연작 소설
성격	회고적, 애상적
배경	① 시간: 1980년대 ② 공간: 서울, 부천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제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삶과 소박한 꿈
출전	『원미동 사람들』(1987)



작품 해제

이 작품은 밤무대 가수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 속에서 ‘나’는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어릴 적 단짝 동무였던 은자,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큰오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신적 여유를 잃어 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고 싶은 욕구와 그 만남으로 인해 소중한 추억이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데, 작가는 이러한 ‘나’의 심리를 세밀한 문체로 표현하면서 현대 사회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작품의 구조

발단	어느 날 ‘나’는 어린 시절의 친구 박은자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제법 성공한 밤무대 가수가 된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나이트클럽으로 찾아오기를 요청한다.
전개	은자는 계속 전화를 걸어 한 번 찾아올 것을 청하지만, 나는 소중한 추억이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 선뜻 은자를 찾아가지 못한다.
위기	‘나’는 결심을 하지 못한 채 은자가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일요일을 맞는다.
절정	나이트클럽에 간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듣고 큰 감동을 받는다. 은자와 큰오빠를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이해한 ‘나’는 결국 은자를 만나지 않고 돌아온다.
결말	며칠 후 은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온다. 그녀는 ‘나’의 무정함을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카페 ‘좋은 나라’를 찾아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나’는 그 곳에 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전체 줄거리

소설가인 ‘나’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같이 자란 은자의 갑작스러운 전화를 25년 만에 받고 고향 생각을 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던 은자는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으니 자신을 찾아 오라고 ‘나’에게 요청한다. ‘나’가 약속을 했지만 찾아가지 않자 은자는 재촉 전화를 한다. 이 와중에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고생했던 큰오빠를 추억한다. 그리고 큰오빠가 끝내 고향 집을 팔기로 하고 종일 술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나’는 결국 은자를 찾아 새부천 클럽에 간다. 그곳에서 ‘한계령’을 듣고 큰오빠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은자일 것이라 생각하며 그냥 집으로 돌아온다. 은자는 전화로 자신을 찾아오지 않은 ‘나’를 질타하며, 새로 개업한 ‘좋은 나라’라는 카페에 한번 찾아오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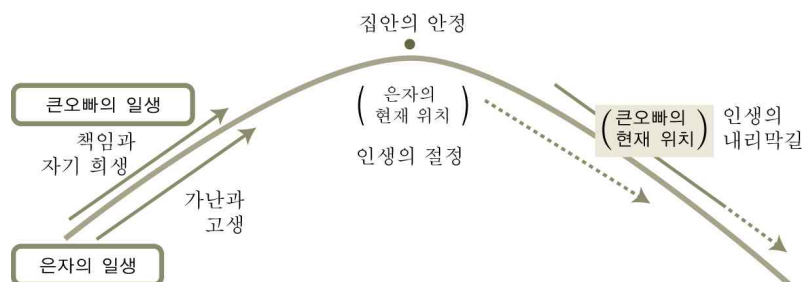


인물 분석

나	-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서술자 - 꽤 성공한 작가인 그녀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냈던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친구인 은자와 만나는 것을 망설임
은자	- 주인공인 '나'의 어릴 적 친구 - 찐빵 가게 주인의 딸이며, 노래를 잘 부름 - 온갖 고생 끝에 가수로 성공했고 곧 자신의 조그마한 카페를 열 예정인 적극적인 성격
큰오빠	'나'의 큰오빠 -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동생들을 성공적으로 길러냄 -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중년의 나이에 이른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는 깊은 회의에 빠져들

제목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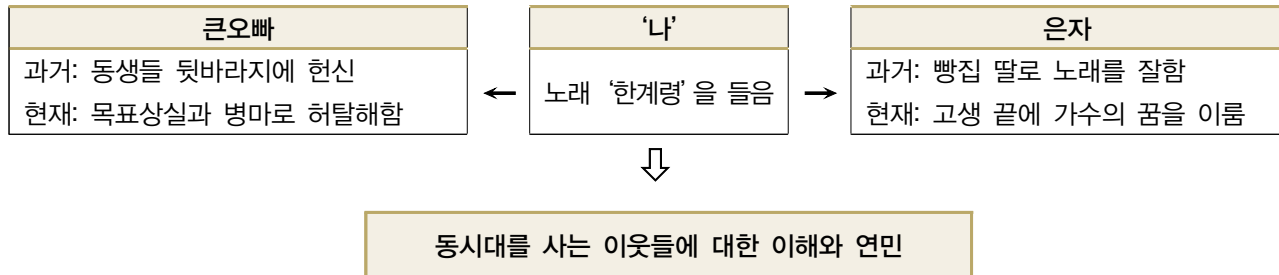
인생을 '한계령(산)'에 오르고 내려오는 과정에 비유한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인생의 내리막에 대한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물을 통한 주제 의식

큰오빠와 은자에 관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인물들의 현재 삶과 교차되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어떤 것으로 승화된다.

'큰오빠'의 삶	친구 '은자'의 삶
- 과거: 가장으로서 동생들 뒷바라지에 힘씀 - 현재: 병과 싸우며 중년의 허탈감에 빠져 있음	- 과거: 찐빵집 주인 딸로 노래를 잘 불렀음 - 현재: 밤무대 가수로 감동적인 노래를 부름
- 산업화된 현실 속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산업 역군을 상징 - 과거에의 향수를 갖게 하는 동시에 현실의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	-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잊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 - 힘들 때마다 회상하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존재 -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인 동시에 과거의 아름다움을 훼손시킬 수 있는 존재 - 어린 시절과 달라진 모습으로 인해 추억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은자와의 만남을 미루는 이유)



작품에 삽입된 노래 ‘한계령’의 의미

‘한계령’은 산을 오르는 과정을 담은 노래로, 소시민들에 대한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로 작품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로, 과거에 대한 ‘나’의 향수를 자극하는 기능을 한다. 노래의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고달픈 삶을 살았던 소시민들을 위한 노래라고도 볼 수 있다. 작품 전체와 관련해서는 작품의 서정성과 애상감을 더욱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 하덕규 작사·작곡, 양희은 노래, ‘한계령’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봉우리를 향해 힘겹게 올라가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지친 어깨를 떠미는 바람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나’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아마도 그와 비슷하게 힘든 삶을 산 은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밤무대 가수가 되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을 은자와 젊은 시절 온 식구를 부양하다 이제는 삶의 허망함을 느끼는 큰오빠의 모습을 떠올리며 연민을 느낀다.

카페 이름 ‘좋은 나라’의 의미

‘좋은 나라’는 세상살이에 지친 소시민들의 지향점이며, 그들이 원하는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소시민의 소박한 꿈이며 소시민의 삶에 대한 위로라는 점에서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시민들의 치열했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된다.

소설 ‘한계령’을 읽은 하덕규가 소설 속에 나오는 카페 이름을 빌려 ‘좋은 나라’라는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좋은 나라’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모습들을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이육조 선생님의
변화를 이끄는 감동국어



EBEST
수능 특강 지문 분석서
[현대문학]



01. 이상, 「권태」
02. 김용준,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03. 이명곤, 「서편제」
04. 차범석, 「성난 기계」
05. 이윤택, 「오구-죽음의 형식」
06. 장진, 「웰컴투 동막골」
07. 이육사, 「은하수」
08. 김훈, 「자전거 여행」
09. 유치진, 「토막」
10. 이강백, 「파수꾼」



길 북판에서 6, 7인의 아이들이 놀고 있다. 적발동부(赤髮銅膚)의 ^{결반은 벌거벗은 무리}만나군(半裸群)이다. 그들의 ^{뽀뽀 깎은 머리에 구릿빛 피부, 적발을 대머리를 뜻하는 '독발(禿髮)'을 잘못 쓴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혼탁한 안색, 흘린 콧물, 돌른 베두렝이, ^{아이들의 초라한 행색}벗은 옷통만을 가지고는 그들의 성별(性別)조차 거의 분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여아가 아니면 남아요 남아가 아니면 여아인 결국에는 귀여운 5, 6세 내지 7, 8세의 '아이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아이들이 여기 길 한복판을 선택하여 유희하고 있다.

돌멩이를 주워 온다. 여기는 ^{사기그릇의 깨어진 조각}사금파리도 벽돌 조각도 없다. 이 빠진 그릇을 여기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

그러고는 풀을 뜯어 온다. 풀- 이처럼 평범한 것이 또 있을까.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말림}그들에게 있어서는 초록빛의 물진이란 어떤 것이고 간에 다시없이 심심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것이 초록색이라서 권태로움}하는 수 없다. ^{권태를 느끼지만 다른 놀이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을 뜯고 놀이를 함}꼭식을 뜯는 것도 금제(禁制)니까 풀밖에 없다.

^{아이들의 놀이}돌멩이로 풀을 짓찧는다. 푸르스레한 물이 돌에 가 염색된다. 그러면 그 돌과 그 풀은 팽개치고 또 다른 풀과 다른 돌멩이를 가져다가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한 10분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이 잠자코 이렇게 놀아 본다.

10분 만이면 권태가 온다. 풀도 싱겁고 돌도 싱겁다.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이 있나? 없다.

^{풀을 적으며 노는 것에 권태를 느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이들}

▶ 돌과 풀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

그들은 일제히 일어선다. 질서도 없고 충동의 재료도 없다. ^{없기 - 단조로움, 일어나는 행동 - 단조로움을 깨려는 행위}다만 그저 앉았기 싫으니깐 이번에는 일어서 보았을 뿐이다.

일어서서 두 팔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쳐든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또 다른 놀이 ①}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러 본다. 그러더니 ^{아이들이 하는 또 다른 놀이 ②}그냥 그 자리에서들 ^{아이들이 하는 또 다른 놀이 ③}경중경중 뚱다. 그러면서 그 비명을 겸(兼)한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그만 ^{아이들에 연민을 느끼는 나}눈물이 났다. ^{이아들이 놀 줄 모르는 이유}여복하면 저렇게 놀까. 이들은 놀 줄조차 모른다. ^{아이들이 놀 수 밖에 없는 이유}어버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이들 귀여운 애기들에게 장난감을 사다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뻗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는 그들의 유희가 내 눈에는 암만 해도 유희같이 생각되지 않는다. 하늘은 왜 저렇게 어제 오늘도 내일도 푸르냐, 산은 벌판은 왜 저렇게 어제 오늘도 푸르냐는 조물주에게 대한 저주의 비명이 아니고 무엇이라.

^{농촌의 권태로운 일상에 대한 도시인(작가)의 비관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음}

아이들은 짓을 줄조차 모르는 개들과 놀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이 찾느라고 눈이 벌건 닭들과 놀 수도 없다. ^{아이들에게 놀 수밖에 없는 이유}아버지도 어머니도 너무나 바쁘다. 언니 오빠조차 바쁘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노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야 하나, 그들에게는, 장난감 하나가 없는 그들에게는 영영 엄두가 나서지를 앓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듯 불행하다.

▶ 싱거운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나'의 연민

그 짓도 5분이다. 그 이상 더 길게 이 짓을 하자면 그들은 피로할 것이다. 순진한 그들이 무슨 까닭에 피로해야 되나? 그들은 우선 싱거워서 그 짓을 그만둔다.



그들은 도로 나란히 앉는다. 앉아서 소리가 없다. 무엇을 하나. 무슨 종류의 유희인지 유희는 유희인 모양인데— 이 권태의 왜소(矮小) 인간들은 또 무슨 기상천외의 유희를 발명했다.

5분 후에 그들은 비키면서 하나씩 둘씩 일어선다. 제각각 대변을 한 무테기씩 누어 놓았다. 아— 이것도 역시 그들의 유희였다. 속수무책의 그들 최후의 창작 유희였다. 그러나 그중 한 아이가 영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는 대변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는 이번 유희의 못난 낙오자임에 틀림없다. 분명히 다른 아이들 눈에 조소(嘲笑)의 빛이 보인다. 아— 조물주여, 이들을 위하여 풍경(風景)과 완구(玩具)를 주소서.

▶ 권태에 지쳐 최후의 놀이로 똥누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나'의 연민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지적, 사념적
제재	여름날 벽촌에서의 생활
주제	농촌의 단조로운 풍경과 일상에서 느끼는 권태
특징	① 자의식으로 뭉쳐진 내면세계를 드러냄 ② 주관적이고 개성적으로 대상을 바라봄 ③ 일상적인 생활과 변화 없는 주변 환경 속에서 느끼는 심리 묘사가 뛰어남

작품 해제

여름날 벽촌의 권태로운 풍경과 일상에 대한 사실적인 관찰이 주를 이루고 있는 글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적인 생활과 변화 없는 주변 환경에서는 느끼는 심리 묘사가 뛰어난 작품으로, 자연이나 대상이 드러내는 상대를 통하여 작자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작자는 시골 마을의 풍경에 한없는 권태를 느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 보려 하지만 그것에서마저 권태를 느끼고 있다. 작자는 현대인의 삶을 채우고 있는 무의미성(無意味性)에 대한 성찰에서 권태라는 사소한 감정을 포착해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복되는 일상사를 극복하고 보다 진정한 삶을 살기에는 정열이 부족하다는 작자의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작품의 구조

제1장	변함없는 자연, 의미 없는 장기두기에서 느끼는 권태	단조로운 일상과 똑같은 자연을 보며 지루해 한다.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기를 두지만 권태를 인식조차 못하는 상대방과의 이질감을 느낄 뿐이다.
제2장	한없는 초록색 자연과 흥분	한량없이 넓은 초록색 벌판과 맛있는 그곳에서 단순한 노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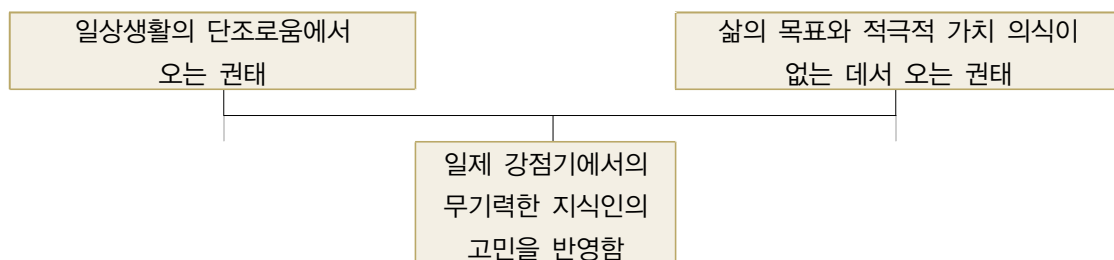


	없는 농민의 삶에서 느끼는 권태	일삼는 농민들을 보면서 그래도 권태를 지각할 수 있는 자신이 낫다고 안도한다.
제3장	마을의 짓지 않는 개들에게서 느끼는 권태	마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늘 보던 사람들만 보아 짓을 필요가 없는 개들을 보며 권태를 느낀다. 복날조차 모르는 개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제4장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개들의 교미와 세수를 따라하는 행위에서 느끼는 권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개들의 교미에 권태를 느낀다. 내가 세수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주인집 아이들의 행위 또한 권태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제5장	식욕의 즐거움도 모르고 되새김질하는 소에게서 느끼는 권태	식욕의 즐거움을 모르는 되새김질을 하는 소를 지상 최대의 권태자라고 생각한다.
제6장	아이들의 혼한 놀이에서 느끼는 권태 [EBS 교재 수록부분]	작자는 주변에 널려 있는 혼한 재료로 놀이를 하는 농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권태를 떠올린다. 특히 권태에 지친 아이들의 끝내 똥누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그려 내며, '조물주'에게 '풍경과 완구'를 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제7장	명석위에서 자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권태	명석 위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먹고 잘 줄 아는 시체'라고 생각한다. 자야겠다는 생각이나 하는 자신의 생활을 '권태의 극권태'로 여긴다.

‘권태’에 나타나는 세 가지 권태

1. 극권태(極倦怠) : 자의식의 과잉조차 폐쇄된 자아의 권태, 세상과 절연된 극한 상태이면서 자살의 단서조차 찾을 수 없다는 인식
2. 흉악(凶惡)한 권태 : 농민들의 끝없이 참담한 가난과 무의미한 노역, 식민지 조선의 절망적 현실에 대한 인식
3. 절대 권태(絶對倦怠) : 도달할 수 없는 피안으로서 대자연의 무심함, 자연과 합일 되는 서정적 체험을 계기로 차라리 권태조차 인식할 수 없는 백치가 되고자 하나 도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절망

‘권태’의 의미





작가로 읽어 읽기

날개 / 이상

나는 어디로 어디로 들입다 ^{계속 새작가}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미스코시 백화점 - 일본계 백화점으로 시대적 배경을 짐작하게 함}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나는 거기 아무 테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 온 스물 여섯 해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의미 없는 삶을 살아온} 붙겨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의식이 거의 없는 상황}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중략)
나는 또 회택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꼭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회색의 탁한} 호느호느 허비 ^{도시 공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나'의 혼란스러운 내면} 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영커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택의 거리 ^{가고 싶지 않지만 갈 수 밖에 없음}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다 ^{미스코시 옥상에서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주변을 둘러봄} 생각하였다.

(중략)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내가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대응하지 못한 관계} 없다. 변해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상황을 설명하는 논리} 알고 돌아 가서 발힐 ^{말로 풀어 자세히 발힐}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 ^{아내와의 삶을 숙명으로 여기며 해명적임} 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하나? 그럼 ^{정신적인 박탈} 어디로 가나?

이 때 뚜우 — 하고 정오 짜이렌이 울었다. 사람들 ^{아내와 자신의 관계를 생각함} 은 모두 네 활개를 피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나'의 외식을 감성시키는 매개체}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 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아, 그것은 내 ^{살에 대한 희망이 꿈틀거리}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덕셔너 ^{희망과 야심이 다시 살아남을 표현} 리 넘어가듯 번뜩었다.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심리 소설
성격	고백적, 상징적
주제	무력한 삶과 자아 분열 속에서 본래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

작품 해제

매춘부인 아내에 붙어사는 무기력한 '나'를 통해 자아의 분열을 그린 한국 최초의 심리주의 소설이다. 주인공 '나'의 유일한 삶의 지반이었던 아내로부터의 배반감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그러므로,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란 그의 외침은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탈출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제(剝製)된 천재는 무기력 한 탈출 의지로 실패감을 맛보게 된다. 이 소설의 부부 관계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이다. 아내에 대한 예측자 혹은 기생적(寄生的) 존재로서 스스로의 인격적인 소유권과 시민성(市民性)이 없는 '나'에 비해 아내는 나를 지배하고 '사육하는' 위치에 있다. '나'의 외출 시간은 아내의 매음과 자신의 자유 방임이 목계된 시간이다. 이러한 자정(子正)의 시간과 반대쪽인 정오(正午)의 사이렌은 강요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전기(轉機)가 된다. 즉, 대낮의 정점으로서의 정오(正午)는 '나'의 윤택성(幽閉性) 극복과 도착(倒錯)된 아내와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전환점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마지막의 날개와 비상(飛翔)에의 소망은 박제(剝製)와 무력(無力)과 윤택된 시간으로부터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 거릴 수 있는 탈출의 욕망이며, 아내라는 구속성과 거저됨에 맞설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자아의 확인이자 건전성(健全性)에 대한 향수이다.

'외출'의 의미

아내에게 종속되어 바깥세상과는 단절된 상태로 살던 '나'에게 외출은 새로운 세계와의 교섭이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 '나'는 외출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내라는 존재의 실체와 직면하게 되면서 전도된 아내와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을 보인다. 첫 외출은 돈을 쓰는 쾌감을 체험하고 싶은 목적으로 나갔으나 지향 없이 헤매다 돌아온다. 그러나 그 뒤에 온 변화, 즉 아내에게 돈을 쥐어 주고 아내와 잠을 자게 된 일 때문에, 두 번째 외출은 이러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 이루어진다. 세 번째 외출은 아내가 돈을 주면서 늦게 오라고 종용한 것으로 타의성이 짙다. 네 번째는 아내가 감기약이라고 준 것이 수면제 아달린이라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외출한 것으로, 죄책감에 빠져 돌아오다가 아내의 적나라한 매음 현장을 목격한다. 그래서 달려 나온 다섯 번째 외출은 일종의 탈출로, 다섯 번의 외출 중 가장 극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이다. 이 외출에서 '나'는 잊고 있던 날개(자기 정체성)가 다시 돌아나는 것을 느끼면서 생의 의지를 회복한다.



골동집 출입을 경원(敬遠)한 내가 근간에는 학교에 다니는 길옆에 꽤 진실성 있는 상인 하나가 가게를 차리고 있기로 가다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한담(閑談)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누룩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꽤 재미나게 됐지요.” 한다.

▶골동품가게에서 두꺼비 연적을 보게 됨

황갈색으로 검누른 유약을 내려 씌운 두꺼비 연적(硯滴)인데 연적으로서는 희한한 놈이다. 도자기의 물에 덧씌우는 약 일반 연적과는 다름 4. 50년래로 만든 사기(沙器)로서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로 쓰는 그릇 중에 : 두꺼비 연적의 특이한 유약을 바른 형식과 어설품 모양새에 대해 서술(글쓴이는 두꺼비 연적이 일반 그릇과 같은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신기해함) 이따위 검누른 약을 바른 사기를 보았을 뿐 연적으로서 만든 이 종류의 사기는 초대면이다. 처음으로 접함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특 튀어나온 눈깔과 떡 버티고 앉은 사지(四肢)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헤’ 하는 표정으로 벌린 데다가 입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닌, 무언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물건을 물렸다. 물구멍을 두꺼비가 입속에 무엇이든 물고 있는 현상으로 만들었음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할 것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어리는 꿈무늬에 이르기까지 석 줄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쪽 내려 얹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약을 갖은 재주를 다 부려 가면서 얼룩얼룩하게 내리부었는데, 그것도 가슴 편에는 다소 희멀끔한 효과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교(巧)하다느니보다 못난 놈의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상벌이 희고 엄밀함 새려되지 않은 기품

▶골동품 가게에서 두꺼비 연적을 감상함

『요즈음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저 준대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그러나 나는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이날 밤에 우리 내외간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 글쓴이는 민속품에 불과한 두꺼비 연적에서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함』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아내의 바가지다.

현실적인 글쓴이의 아내 모습이 드러나며, 글쓴이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이런 종류의 말다툼이 우리 집에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종래는 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갚아 줄 테니 걱정 말아.”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한 연유로 나는 이 잡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자신의 글을 남주어 알함 『잡꼬대 같은 이 한 편의 글값이 행여 두꺼비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 『: 아내와의 갈등 후 두꺼비 연적과 관련된 글을 써 돈을 벌려고 함』 네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퍼할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두꺼비 연적을 소재로 글을 쓰는 자신의 행위와 처지에 안타까움을 느낌

▶두꺼비 연적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힘

너는 어째 그리도 못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리도 컸느냐. 웃을 듯 울 듯한 네 표정!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가장 호사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 몸은 얼썹덜썹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



흡사히 시골 색시가 ^{비단}능라주속(綾羅紬屬)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두꺼비 연적이 시골 색시가 비단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호화롭게 치장했으나, 멋없고 어색하게만 보임}
앞으로 앉히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모로 앉히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두꺼비 연적의 외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함}
내 방에 전등이 휘황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더 못나게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이나.

네 입에 문 것은 그게 또 무어냐.

필시 장난꾼 아이 녀석들이 던져 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물었으리라.

그러나 뱉어 버릴 줄도 모르고.

준 대로 물린 대로 엉거주춤 앉아서 울 것처럼 웃을 것처럼 도무지 네 심정을 알 길이 없구나.

^{▶사온 두꺼비 연적을 보며 감상함}
너를 만들어서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보내 주었는지 너의 주인이 보고 싶다.

^{「두꺼비 연적을 만든 솜씨 때문(‘두꺼비 연적’ = 두꺼비 연적을 만든 사람 = 조선 사람’이 동일한 속성을 지님)}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

^{: 두꺼비의 못생기고 어설픈 점에서 순박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우리 민족의 슬픈 자화상을 엿보고 있음}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 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리고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일 것이리라.

^{만든 이의 성품이 두꺼비 연적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함(만든 사람이 두꺼비 연적처럼 어눌어눌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짐작)}

^{▶두꺼비 연적을 만든 이에 대한 상상}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 두꺼비 연적을 사랑하고, 두꺼비 연적을 만든 사람을 보고 싶어 함 → 조선 사람에 대한 애정}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나는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의 고독함은 너 같은 성격이 아니고서는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글썽이가 두꺼비 연적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하는 두꺼비 연적이 자신의 고독감을 위로해 줄 수 있음) → 두꺼비 연적은 동병상련의 대상}

^{▶글썽이가 두꺼비 연적을 사랑하는 이유}

^{「 글썽이 : 두꺼비 연적에 대한 글썽이의 애착}
두꺼비는 밤마다 내 문갑 위에서 혼자서 잔다. 『나는 가끔 자다 말고 버쩍 불을 켜고 나의 사랑
하는 멍텅구리 같은 두꺼비가 그 큰 눈을 회멸거니 뜨고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가를 살핀 뒤에야
다시 눈을 붙이는 것이 일쑤다.』
^{무슨 일을 몹시 거침새 없이 빨리 머무르는 모양}

^{흔히 또는 오래 그리는 일}

^{▶두꺼비 연적에 대한 애착}



핵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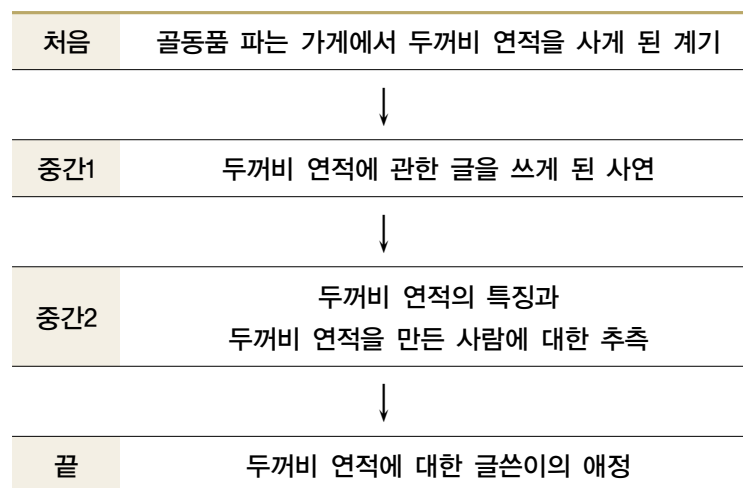
갈래	경수필
성격	신변잡기적, 해학적
주제	두꺼비 연적에 대한 사랑과 예찬
특징	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자기 연민을 보여줌 ②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함 ③ 만연체를 사용함 ④ 관찰하고 연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드러냄

작품 해제

이 작품은 두꺼비 연적에 얽힌 일상사를 담담하고 솔직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주로 두꺼비 연적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내용 전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글쓴이는 불품없는 두꺼비 연적을 통해 세속적 영리와 거리가 멀고 순박함을 사랑하는 조선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두꺼비 연적을 통하여 자신의 고독감을 위로받고 있음을 밝히면서 두꺼비 연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먼저 골동품 파는 가게에서 두꺼비 연적을 발견하여 구입하게 된 일, 이로 인해 아내와 말다툼하게 된 일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 뒤에는 두꺼비 연적에서 받은 인상을 바탕으로 두꺼비 연적에 대한 글쓴이만의 독특한 감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 두꺼비 연적뿐 아니라 두꺼비 연적을 만든 조선인에 대한 애정을 밝히고, 두꺼비 연적이 자신의 고독을 위로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고뇌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작품의 구조





갈래로 엮어 읽기

질화로 / 양주동

우리집 이웃의 늙은 부부는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네가 목불식정인 것이 철천의 한이 되어서, 아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글을 시켜 보겠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아들을 서당에 보내고, 노상 '우리 서당애' '우리 서당애' 하며 아들 이야기를 했었다. 그의 자랑스럽게 여길 집 단칸방에 있는 다 깨어진 질화로 위에, 점심 먹으러 돌아오는 예의 서당아이를 기다리는 따뜻한 토장 찌개가 놓였음은 물론이다.

그 아들이 천자문을 읽는데, '질그릇 도, 당국 당'이라 배운 것을 어찌 된 셈인지 '꼬끼요 도, 당국 당'이라는 기상천외의 오독을 하였다. 이것을 들은 늙은 오마니가, 알지는 못하나마 하도 괴이하여 의의를 삼한즉, 영감이 분연히, 성을 벌적 내며 분해하는 기색으로 "여보 할멈,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쓸데없는 소리 마소, 글에 별소리가 다 있는데, '꼬끼요 도'는 없을라고."

하였다. 이렇게 단연히 서당아이를 변호한 것도 바로 질화로의 찌개 그릇을 들어앉아서였다. 얼마나 인정미 넘치는 태고연한 풍경이냐.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회고적
주제	질화로에 얹힌 추억과 정감
특징	① 질화로에 얹힌 이야기를 통해 회고적 정서를 드러냄 ② 질화로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연결하여 표현함

작품 해제

이 글은 질화로와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질화로를 통해서 느끼는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첫 번째 '이웃집의 질화로' 이야기에서는 늦둥이를 얻은 부부가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따뜻한 애정을 질화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사랑방의 질화로' 이야기에서는 질화로를 에워싼 머슴들의 놀이와 노인들의 모습을 정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우미 집의 질화로' 이야기에서는 필자가 질화로와 관련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이 글은 전체적으로 질화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의 추억을 회상하는 부분에서는 글쓴이의 그리움과 애상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

작가 소개

양주동(1903~1977)

시인, 국문학자, 영문학자. 젊었을 때는 영문학을 강의하면서 시인 및 문학이론가로도 활약하였으나 향가 해독에 몰입하면서부터는 주로 고시가의 주석에 전념하는 국문학자로 전신하였다.

**S# 89. 엮전 주막 안** — 동호가 주막에 들어오는 상황

장면 번호(Scene Number)

동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천가는 술상을 치우고 있다.

주막집 주인

동호: 목 좀 축일 수 있겠소?

천가: 막걸리는 갖다 놓은 지가 며칠 돼서 좀 안 좋을 것인데, 소주가 어떻소?

동호: 소주도 괜찮아요. 저녁 요기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천가: 이 골이 초행길이신 게라우?

동호: 예, 그래서 하룻밤 묵어가고 싶소만.

천가: 요새 밤을 자고 가신 손님들이 통 없어 와서, 잠자리도 험할 틈디.

엮전 주막에 숙박하고 가는 손님들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음

내실 쪽 문이 열리며 송화가 들어간다.

동호: 그런 걱정은 마시오. 참 이 집에 소리하는 아낙이 있다던데.

동호는 송화를 찾기 위해 떠돌아 다녔음

천가(소리): 예, 있지요.

동호: 소리 좀 청할 수 있겠소?

천가: 소문 듣고 오셨소?

송화가 소리를 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음

동호: 예.

천가: 글썸, 요새는 여간해서 소리를 안 하느디. 내 잠깐 물어봐야겠소. (방문을 열고) 어쩔란가,
소리 좀 듣고 싶다는디…….**S# 90. 인서트** — 시간적 배경: 조계역

화면과 화면 사이에 끼워 넣는 삽입 화면(insert)

어스름에 잠긴 엮전 전경.

S# 91. 엮전 주막 방 안

천가가 문을 열어 주면 송화가 방으로 들어가 앉는다.

동호, 송화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천가, 문을 닫는다.

송화임을 알아보는 동호

송화의 B.S.

가슴 위부터 머리까지만 화면에 나타나게 촬영하는 기법(Bust Shot)

동호: 소리를 쫓아 남도 천지 안 돌아본 데가 없는 위인이오. 소리만 있어 주면 이대로 앉아 밤이
라도 새우겠소. 전라도 전 지역송화: 들을 만한 데도 없이 천하기만 한 소리오.

송화의 경순한 태도

동호(소리): 소문을 듣고 찾아온 터이니 사양치 말고 좀 들려주시오.

송화, 자세를 고쳐 앉는다.

소리를 하기로 결정함



동호: (복을 앞으로 잡아끌며) 복을 잡아 본 지 오래돼서……. 장단이나 맞을는지 모르겠소.
판소리 장단을 맞추고자 함 동호는 송화를 만나기 전까지 한동안 복을 치지 않았음

동호, 복을 둥둥 친다.

송화: 그때의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심청과 송화의 삶을 중점시킴 심청이는 부친 눈을 띄울라고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만경창파를
: 심청가 중 가장 슬픈 대목, 심청과 심봉사, 유봉과 송화의 상황이 중첩되면서 비장한 느낌을 줌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
 떠날 적에 복을 두리둥 두리둥 둥둥 두리둥 둥둥 둥둥. 여보시오, 심 낭자 물때 늦어 가니
 어서 급히 물에 들어라. 심청이 이 말을 듣더니 뱃전 안에 엎드려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죽사오나 아버지는 눈을 떠 천지 만물을 보옵시고 날 같은 불효 여식을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싫잖으나 혈혈단신 이내 몸이 누게 의지한단 말이냐.

(중략)

S# 92. 인서트 — 시간적 배경: 밤

밤 깊은 염전 진경.

시간의 경과 - 밤새도록 소리를 하며 학을 풀어내고 있는 송화와 동호

송화(소리): 이때의 심 황후는 눈먼 부친의 신세 한탄을 듣더니 심 황후 거동 보라.

S# 93. 염전 주막 방 안 — 시간적 배경: 밤

동호 O.S. 송화.

한 배우의 어깨 너머로 상대 배우의 얼굴이 찍히는 것.(Over the shoulder Shot)

송화: 이 말이 지듯 마듯 산호 주렴을 건쳐 버리고 버선발로 우루루루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임을 알아보고 반가움에 뛰쳐나가는 심청

(송화 얼굴)

송화: 심 봉사 이 말을 듣고 먼눈을 희번덕거리며 에이 이거 웬 말이냐.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삼 년인
 디 아버지라니 누구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어서 나를
 보옵소서.

소리하는 송화.

복 치는 동호.

송화.

동호.

소리하는 송화.

복 치는 동호.

동호 O.S. 송화.

송화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동호.

소리를 통해
서로의 학을 풀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함



S# 94. 염전 주막 안 (아침)

문이 열리고 천가가 밖을 내다본다. 송화는 뒤에 앉아 있다.

S# 95. 염전 길 — 동호가 주막을 떠나는 상황

동호,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다.

천가(소리): 저 사람이 자네가 늘 기다리던 동생인가?

송화(소리): 예. 제 소리가 저 사람의 복장단을 만났을 때 대번에 동생인지 알아챘지요. 옛날 제
아비 숨씨 그대로였어요.
송화가 동호를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음
송화가 소리를 하는 동안 동호가 자신의 동생임을 눈치 챌
동호의 복 장단 숨씨가 뛰어남

S# 96. 염전 주막 안

천가: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헌디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끼리 왜 서로 모른 척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송화: 한을 다치고 싶지 않아서였지요.

송화가 동호를 모른 척한 이유 - 소리꾼이라는 동음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 위함

천가: 무슨 한이 그렇게도 깊이 맺혔간디 풀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헤어졌단 말이여?

송화: 우리는 간밤에 한을 풀어냈어요.

천가: 어떻게?

송화: 제 소리하고 동생의 북으로요.

천가: 어쩐지 입자 소리가 예전하고 썩 다르다 했더니마는…….

간밤의 송화의 소리에는 학이 배어 더욱 절절하게 들림(소리에 학이 더욱 절실하게 배어 있었음)

핵심 정리

갈래	시나리오
성격	비극적, 예술적
배경	① 시간: 1960년대 ② 공간: 전라도
주제	우리 민족 고유의 한의 정서와 한(恨)의 예술적 승화
특징	① 간결하고 압축적인 대사를 사용함 ② 대사의 많은 부분이 판소리로 이루어짐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이청준의 ‘남도 사랑’ 연작소설의 일부를 각색한 시나리오로, 수리를 하며 떠도는 유봉 가족의 여정을 애잔하게 그리고 있다. 이들의 운명은 딸의 실명과 아버지의 죽음으로 비극의 정점을 이루며, 실명의 원인과 연관된 부녀의 관계는 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딸이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한은 예술적 경지로 승화된다.

유봉이라는 소리꾼이 자신의 딸인 송화에게 일부러 약을 먹여 눈을 멀게 한다. 그 이유는 송화의 소리를 위한 것이다. 즉 소리라는 예술을 위해서는 한이 필요한데, 눈을 멀게 함으로써 한을 심어 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 작품에는 예술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작품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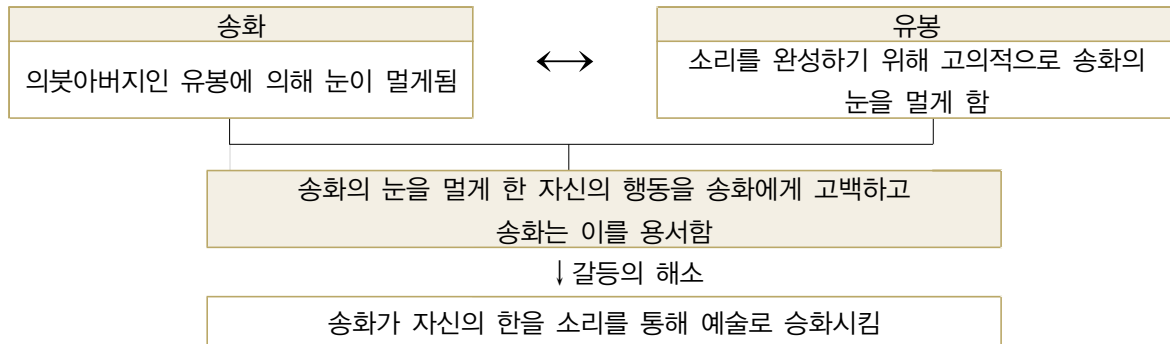
발단	전라도 어느 마을에 양녀 송화를 데리고 유랑하는 떠돌이 소리꾼 유봉이 들어온다. 유봉은 이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전개	과부가 아기를 낳다가 죽자 유봉은 그녀의 아이 동호까지 함께 데리고 유랑하면서 송화에게는 소리를, 동호에게는 북을 가르친다.
위기	송화는 의붓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소리를 배우지만 동호는 떠돌이 소리꾼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두 사람 곁을 떠나간다. 유봉은 송화가 소리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송화의 눈을 멀게 한다.
절정	세월이 흘러 유봉은 병으로 죽고 눈이 먼 송화는 한 주막집 사내에게 몸을 의탁한다. 어느 날 그 주막집에 수소문 끝에 송화의 거처를 알아 낸 동호가 찾아온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녀온 아픔과 한을 밤새워 소리로서 풀어낸다.
대단원	날이 밝자 동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길을 떠나고 송화 역시 그가 동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정처 없는 유랑길에 오른다.

인물 분석

유봉	서울에서 판소리 대가의 문하생이었으나 스승의 애첩과 사랑에 빠져 쫓겨난 후, 시골을 떠돌아다니며 낚시팔이 소리꾼으로 살아감
송화	오갈 데 없는 고아였으나 유봉을 만나 그의 양녀가 되었고, 유봉에 의해 눈이 멀게 되지만 그 한을 소리로 승화시킴
동호	과부 금산댁의 아들로 어머니가 죽자 유봉에게 북을 배우지만 생활고를 못 이겨 도망간 후 죄책감에 누이를 찾아 헤멤
천가	송화가 의탁하고 있는 바닷가 주막집 주인 착하고 인정 많은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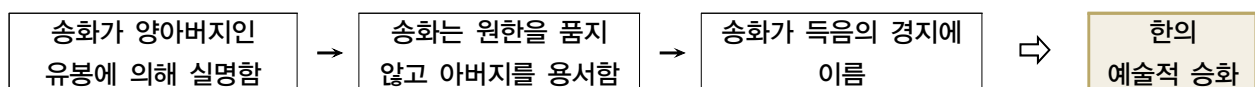
작품 속 갈등 양상



전체 줄거리

산골 어느 주막에서 동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한다. 동호가 어렸을 때 동호의 어머니는 유봉이라는 소리꾼을 만나고, 그러면서 동호는 유봉의 수양딸 송화와 같이 자라게 된다. 동화의 어머니가 죽자 유봉은 송화와 동호에게 각각 소리와 북을 가르친다. 그러나 동호는 가난한 삶을 견디지 못하여 가출하고, 유봉은 소리를 위해 송화의 눈을 멀게 한 후에 죽는다. 혼자 남게 된 송화는 힘들게 소리만으로 먹고 살게 된다. 세월이 지난 후에 동호는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송화를 잊지 못하고 찾아 헤매다가 주막에서 송화를 만난다. 동호와 송화는 서로를 알아본다. 그러나 서로 끝내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밤새 소리를 하고 북을 친 후에 각자의 길을 찾아 주막을 떠난다.

작품에 나타난 비극성과 주제



송호와 동호가 서로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

두 사람은 소리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이미 깨달았으므로, 그 순간까지 한으로 간직해 온 자신들의 삶의 궤적을 구태여 밝혀서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살아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송화에게 소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 준 것은 그녀가 가슴에 묻어 둔 한 때문이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묻어 둔 한을 들추어내어, 지금까지의 삶의 축마져 흔들리게 하기보다는 서로의 한을 그대로 둔 채 삶을 지속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말 처리법은 여운을 남김과 동시에 독자(관객)의 감동을 극대화하여 더욱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가 있다.



판소리 '서편제'의 특징

서편제	동편제
소리가 부드러우면서도 구성지고 애절하여 슬픈 곡조의 계면조 가락이 많음	소리가 씩씩하고 활달하고 우렁차며 우조(羽調)가락이 많음

감독이 원작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면서 제목을 '서편제'라고 한 이유는 작품의 분위기가 애절하고도 한스러운 서편제의 특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제로 엮어 읽기 -한의 예술적 승화

선학동 나그네 / 이청준

『그래, 그 오라비는 그땐 마지막으로 누이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소?』
나그네 「 나그네의 이야기처럼 들어서 말함으로써 나그네의 가슴에 담긴 상처를 건들지 않으려는 배려가 새삼 손에게 물었다.

“아니랍니다. 그 뒤로도 딱 한번 제 누이를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한 두어 해 저쪽 일이었지요. 장흥읍 저쪽 어느 주막에서였답니다…….”

손은 걸으면서 남의 말을 전하듯 느릿느릿 말했다.

“하지만 그때도 그 오라빈 끝내 자기가 오라비란 말을 못하고 말았답니다.
멀리서 지켜만 봐야했던 손의 한이 드러남
그 누이가 워낙 눈이 먼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땐
중적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중략)

그는 마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정말로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분명한 분간을 해낼 수가 없었다.
여자의 삶과 소리에 감화를 받아 그 여자의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해 왔던 주인의 심리적 실재
→ 오누이의 한스런 이별이 영원한 이별로 고착되는 순간이기 때문
그 학과 양타개음에 주인이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그는 굳이 그런 건 따지려 하지 않았다. 정말로 소리를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런 건 굳이 상관을 하기도 싫었고 또 상관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사내는 그때 그런 몽롱한 마음가짐 속에서 또 한 가지 기이한 광경을 보았다. 사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길손의 모습이 사라지고

푸르름만 무심히 비껴 흐르고 있는 고갯마루 위로 언제부터인가 백학 한
나그네의 실정(한, 미련)과 대조되는 시각적 상상 -나그네의 한을 알아 줄 명화로운 공간

백학의 의미: ① 소리꾼 부녀가 추구한 소리 예술의 궁극적 경지 ② 여자의 소리를 통한 한의 승화
③ 한을 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④ 학 마리 확으로 선행들을 떠돌겠다는 여인의 모습
⑤ 오누이의 한스런 삶의 승화 ⑥ 나그네 길에 오른 오라비의 때도는 삶

마리가 문득 날개를 펴고 솟아올라 빈 하늘을 하염없이 떠돌고 있었다.

오라비와 누이의 한이 아름답게 결합되었음(한의 높아진 경지, 한의 승화)
■ 한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맹인 소리꾼 여자(누이)
■ 유골이 되어 선행들에 돌아 온 아버지
■ 먼저 떠났음에도 권을 놓지 못하고 누이를 찾아 선행들에 온 나그네(오라비)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연작 소설
성격	회상적, 환상적
주제	자연과 예술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삶 한의 예술적 승화
특징	① 액자식 구성을 취함 ②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어 사건이 진행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서편제」, 「소리의 빛」에 이어 발표된 이청준의 연작 소설로, 소리꾼 부녀의 이야기를 통해 한의 예술적 승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소리만으로 신명 나 하면 떠돌이로 일생을 살아가 아버지과 장님 딸, 누이를 찾아 헤매는 나그네는 모두 가슴에 한을 가진 인물들이다. 그중 눈먼 딸은 앞을 못 보게 만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그녀가 품은 한을 소리로 승화시키는데 작가는 비상학이라는 상징적 현상을 통해 이를 보여 준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비밀이 하나씩 벗겨지는 구조,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역전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비극적 한의 상황을 감동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인옥: 흥! 염려 마세요. 이래 배도 수술비로 십만 환쯤은 모아 뒀으니까요!

회기가 수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함

회기: (성을 내며)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옥: (태연하나 반항적으로) 의사들은 대개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내가 만난 의사는 모두가 치료비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부터 물었어요!

회기: 이걸 나를 모욕하는 거요?

인옥: 선생님…….

「」: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없음 -의사의 사명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남

회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 줌으로써 기쁘게 해 주겠다고나 사회를 위해서 몸을 보듯이 비정거리거나 억신여기는, 또는 그렇게 죽는 단순한 임금 노동자일 뿐이라는 의미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닥과 마찬가지로…….

병원: ① 생명, 성실 등 인간적 가치가 있는 일과는 거리가 먼 공간 ② 노동과 돈이 거래될 뿐인 공간 ③ 삭막하고 비정한 공간

인옥: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전에 인옥이 이미 간절히 부탁을 했었음을 알 수 있음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인옥의 상태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단순한 임금 노동자이므로 모험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

인옥: 환자가 죽어 가도 말씀이세요?

「」: 타인(환자)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음 -이기적이고 냉정한 모습

회기: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 어차피 죽을 환자라도 그 죽음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함 은 아니니까.」

인옥: (안타깝게) 선생님…….

수술하기를 간절히 원함

회기: 닥이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지요. 그렇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소비자(회기의 입장에서 '환자'에 해당함)

인옥: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은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비인간화된 인간을 상징

(이때 금속의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기계처럼 작업하는 생산적 노동자의 손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닥의 손처럼…….

본래부터 기계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며, 회기의 내면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감정과 양심이 남아 있음을 짐작하게 해 줌

인옥: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 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스무 개씩 집어넣는

「」: 기계적, 기능적으로 일하더라도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

것은 내 손이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어린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있음

회기: (약간 감동하며) 내 얘기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닥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 보세요.

심리 변화가 시작됨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인옥: (혼잣소리처럼) 「알맹이는 어찌 되었던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미라는 말이군요…….」 늘 듣던

내면, 본질, 인간성

겉모습

「」: 몸속은 병 때문에 죽어가도 약으로 치료하는 적 꾸미라는 의미로 회기의 말을 해석함

얘기지.

중요 가치를 망각함, 본말이 전도된 상태

회기: (약간 난처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

인옥: 팬찮아요……. 수술을 못 맡아 주시겠다는데 억지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힘없이 도어



쪽으로 걸어 나가며) 살아 보겠다는 내가 잘못된 게죠. 남들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야 할 까닭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쭙 본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이 정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저주하는 듯) 내 살을 뜯어 먹든 굶아 먹든 마음대로 하라지! 흥!

인옥의 남편

남편이 인옥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됨

(중략)

회기: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에게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힘, 능력

죽음

부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인력을 막을 수 없다고 둘러 대는 비인간적이고 뻔뻔스러운 상현의 모습

회기: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오?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회기: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힘을 들이거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저

돈이 아까워서 아내의 수술을 반대함(아내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

회기: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자신의 안위를 위해 부인 인옥의 수술을 거절했지만 돈 때문에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상현을 보고 자신에 대해 돌아보며 태도의 변화를 보임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기를 쳐다본다.)

회기의 태도가 이전(인옥의 수술을 거부한 것)과는 다르므로

상현: 뭐라구요?

회기: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상현: (처음에 지냈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격정이오! 나 살고 남도 있지! (불쑥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이기적인 태도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어떤 목표물에 주의를 집중하여 볼

회기: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미스 정!

금숙: 예?

회기: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인옥

금숙: 예, 접수를 보던…….

빨리 연락하여 인옥의 수술을 하려는 것(회기의 의지가 강함)

회기: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특정 구역 안에서 보통 우편보다 빨리 보내주는 우편

금숙: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회기: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로 찾아오라고!

금숙: (놀란 표정으로) 아니, 그렇지만.....
인육을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회기: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말아! 알겠어?

금숙: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숙: 왜요?

회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숙: (홀끗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상현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마치 인육이 된 양 인간적인 모욕을 느낌(인간성의 회복)
기계처럼 냉정하던 회기가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냈다는 의미

핵심 정리

갈래	희곡, 단막극
성격	사실주의적, 세태 고발적
배경	① 시간: 현대의 어느 늦가을 ② 공간: 회기의 폐 외과 과장실
주제	현대사회의 인간성 상실과 회복
특징	①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는 구조를 가짐 ② 밀도 있는 심리 묘사로 갈등을 잘 보여줌 ③ 물질문명을 비판하고 휴머니즘을 옹호함

작품 해제

1959년에 발표된 희곡으로, 냉정하고 인간미 없는 한 의사가 더욱 비정한 인간에게 분노를 느끼면서 인간적인 모습, 즉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작품의 전반부는 인육의 인간적인 호소와 회기의 기계적 인간성이 대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 와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남편이 찾아와서 자기의 아내를 죽게 내버려 달라고 비윤리적인 요청을 하자, 회기의 가슴 한 켠에 잠재해 있던 인간성이 회복하게 된다. 결국, 주인공의 기계 같은 삶의 태도가 더욱 저열한 인간형을 만나 '성난 기계'가 됨으로써 잠재된 참모습을 되찾게 된 것이다.

**작품의 구조**

발단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인옥이 폐 전문 의사인 회기를 찾아와 폐 수술을 해달라고 애원함
전개	회기는 인옥의 폐 상태가 수술이 불가능할 만큼 악화되었기에 인옥을 집으로 돌려보냄
절정	인옥의 남편 상현이 회기를 찾아와 수술비를 이유로 인옥을 수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함
하강	상현의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한 회기가 인옥의 수술을 결심함
대단원	회기는 간호사를 시켜 인옥에게 수술을 받으러 오라는 속달 우편을 보냄

전체 줄거리

주인공 양회기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폐 전문 의사이다. 어느 날 연초 공장 포장공으로 일한다는 인옥으로부터 폐 수술을 해줄 것을 요청받는다. 그러나 X-레이 검진 결과 인옥의 폐 상태는 수술을 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회기는 수술을 거부했지만, 인옥은 가족을 위해서도 꼭 살아야 한다고 하며 수술을 간청한다. 그러나 회기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옥을 돌려보낸다. 얼마 후 인옥의 남편 상현이 회기를 찾아온다. 상현은 회기를 만나 부인인 인옥의 폐 수술을 해주지 말 것을 주장한다. 이유 인즉, 없는 돈에 어떻게 폐 수술을 하겠냐는 것이다. 상현의 말을 들은 회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옥을 살려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회기는 간호사를 시켜 인옥에게 속달 우편을 보내도록 지시한다.

인물 분석

양회기	▪ 종합 병원 과장으로 폐 전문 외과 의사 ▪ 기계처럼 냉정하고 빈틈이 없음 ▪ 자신보다 더 비정한 상현의 모습을 보고 잠재된 인간성을 회복함
최상현	▪ 김인옥의 남편 ▪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며 돈 때문에 아내의 수술을 반대하는 이기적이고 비정한 인물
김인옥	▪ 최상현의 아내 ▪ 담배공장의 포장공 ▪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모욕도 감수하는 헌신적인 인물 ▪ 희생과 모욕을 감수하며 살아감
정금숙	▪ 양회기가 근무하는 병원 간호사 ▪ 양회기를 사모하며, 상사에게 충성스러운 인물



주인공 '회기'의 성격 변화

전반부	→	후반부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 인옥의 인간적인 호소에 대해 의사인 회기가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		인옥의 남편이 찾아와 아내를 죽게 내버려 달라는 비인간적인 요청을 하자 회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인간성이 회복됨
인옥의 인간적인 호소 회기의 기계적인 대응		상현의 비인간적인 처사 회기의 인간적인 분노
기계(인간성 상실)		성난 기계(잠재된 인간성 회복)

제목의 의미

전반부에서 금숙은 회기를 '기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미를 상실한 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회기의 비인간적 면모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하지만 후반부에서 상현에게 분노를 느끼며 인옥을 살려야겠다는 회기에게 금숙이 "기계가 노하셨네요……."라고 표현한 것은 '기계'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으로, "이제야 사람같이 보이네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성난 기계'는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작가 소개

차범석(1924~2006)은 전후 문학의 1세대로서 한국적 개성이 뚜렷한 사실주의 극을 확립하는 데 공헌하였다. 전후 사회의 부조리, 물질적 가치만 숭상하는 세대, 생존 위기가 초래한 인간성 파탄 등을 날카롭게 비판한 극작가이다. 특히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애욕과 갈등, 민족 분단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산불'은 전후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성난 기계'는 전후의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인간성의 회복을 보여 주는 결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작가로 읽어 읽기

태양을 향하여 / 차범석

경재 : 그럼, 춘자 누나도 우리와 함께 있겠단 말이군요, 네? 햇볕이 훈훈한 집에서 말이에요.

경수 : (빙그레 웃으며) 그래.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밝은 목소리(춘자와의 결혼 결심) 향해 다시 한 번 살아 보자, 경재야.

어머니 : (좋아서) 경수야!

최 노인 : (기쁨과 괴로움이 뒤범벅이 되어) 이려고 있을 게 아니라, 춘자는 어서 집에 가 봐야지. 어른들이 기다리실 텐데……. 경재야, 정류장까지 내려다 줘라…….

경수 : 제가 가겠어요! (하며 나간다.)

춘자 :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 (중략)

(두 사람이 대문을 향해 나가자 경운, 경재도 따라 나선다. 대문 밖에서 서로 작별하는 인사말이 들려 온다. 두 사람만 남게 되자 한층 쓸쓸해 보인다. 최 노인은 길게 한숨을 몰아쉬며 어머니와 시선을 마주친다.)

어머니 : (조용히) 경애는 갔지만, 두 사람이 경수, 춘자 살아났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우.

최 노인 : (눈을 감고서) 이사를 가려면 짐이 많을 거야……. 오십년 간 살아온 걸! 주요 갈등 확인

(거리의 소음이 멀어지고 애상적인 최 노인의 감정 음악이 흘러나온다.)

핵심 정리

갈래	희곡(상황극, 희비극), 장막극(4막)
성격	사실적, 세대 고발적
배경	1950년대의 서울 종로 한복판, 전후(戰後)의 사회 상황
주제	현대 문명 속에서 전통적 가정이 겪는 물질적, 정신적 갈등과 그 극복
특징	① 일상어의 압축적 구사 ② 밀도 있는 심리 묘사 중시

작품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 전환기를 맞이한 한 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적·심리적 고통과 파멸의 위기를 한국 가정 또는 가족의 노리로 극복하는 재생의 과정을 그린 희비극이다. 이 작품에서 최 노인의 고집과 집착은 무너져 가는 전통을 붙잡는 구세대의 안간힘을 의미하고, 고옥(古屋)에 대한 자녀들의 평가 절하는 곧 전통과 현대의 대립 갈등이라는 작품의 상황적 토대를 이룬다. 여기서 큰아들 경수는 각박하게 변하는 사회와 보수적인 부모의 틈바구니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가출하고, 큰딸 경애는 영화배우의 허황된 꿈이 산산조각 나자 자살하기에 이른다. 숨 막히는 비극이 한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을 때, 경수의 귀가와 취직, 경수와 춘자의 재결합, 최 노인의 이사 결정 등 일련의 사건 전개로 가정은 다시 회복된다.

제시된 지문은 극의 결말 부분으로, 현대 문명 속에서 전통적 가정이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화합하는 내용이다.



만상주: (문상객 1을 가리키며) 너 저놈하고 짜고 집 팔아넘기려 했지?

둘째 상주: 『이런 빌어먹을, 와 그리 머리통이 안 돌아가요? 상속세가 엄청난데 어떻게 하오? 그것
『』: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에 더 큰 관심이 있음이 드러남
도 겨우 사망 날짜 이틀 전으로 매매 계약서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

만상주: 에라, 이 후레자식아! (박치기)

최극적 상황으로 웃음 유발

둘째 상주: 아이, 코야!

만상주: (둘째 상주 먹살을 잡고) 말해! 누구 작품이야?

둘째 상주: 그거 나 혼자 한 거 아니오. 형수한테 결재받았소.

만상주: (사이) 세상 다 살았다. (벌떡 일어서며) 줄초상이다..

허위 매매 계약을 아내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만상주의 분노

▶ 노모의 재산을 놓고 다투는 만상주와 둘째 상주

만상주 달려가 처의 허리를 잡고 넘어진다. “아이고 사람 잡네!” 느린, 처의 비명을 신호로 저승
사자들과 둘째 상주를 제외한 무대 위의 모든 사람들 사이의 일대 활극이 슬로비디오로 펼쳐진다.
이때 한쪽에선 사인펜으로 ‘100,000원’이라고 쓰인 지전을 둘째 상주 코앞에 들이치는 사자 3.

둘째 상주: 이거 뭐꼬?

사자 3: 백지 수표라며? 우리 큰성님이 현금으로 바꿔 오래.

둘째 상주: 내가 은행이냐?

백지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라는 말에 불쾌함을 나타냄

석출: 빨랑 바꿔 주시오. 잘못 건드리면 개판 되오.

둘째 상주: 이거 순 날강도 아냐?

사자 1: (먼 산 불 보듯) 저네들 왜 저래?

사자 2: 인간 세상 개판이군. (기어 오는 사자 3을 보고) 넌 왜 그 모양이야?

사자 3: 인간 싸움에 사자 등 터졌소. 옛수! 현금 바꿔 왔소.

사자 2: 진작 그럴 것이지. 제법 신사적으로 노는군. 성님, 피리가 수금해 왔소.

사자 1: 가만있거라. 잘못하면 계획에 없는 저승길 동행 생기겠다. (만상주를 가리키며) 저네들
왜 저래?

사자 3: (둘째 상주를 가리키며) 저놈이 나쁜 놈이오! 죽은 할머니를 산 것처럼 속여서 가옥 토지
매매 계약서를 꾸뻘답니다.

둘째 상주가 채결함 - 노모가 죽은 후에 만들어 낸 위조문서임이 밝혀지고 있음

사자 1: 그래? (사자 2를 돌아보며) 그거 저승법 몇 조에 해당되냐?

사자 2: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 부분 제16장 4절에 해당되는 사문서 위조요.

사자 1: 확실하냐?

사자 2: 분명하오!

사자 1: 출동!



사자 2, 3: 출동! 출동!

처: 까악! (혼절)

『노모, 관 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난다. 통통 뛰어서, 옥신각신하는 만상주, 둘째 상주한테 가서
『』: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이숙과 저숙이 다르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뺨을 때린다. “엄마다!” 하고 놀라는 만상주, 둘째 상주. 나머지는 “할매다!” 하며 놀란다.』

사자 2: (관에서 뛰어나온 노모에게) 여노는 무슨 애로 사향이 있어 이렇게 반칙을 범하고 계시오?
죽은 자가 저숙에 가지 않고 돌아온 것 - 노모의 행위를 생사의 질서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함

『노모, 손가락질로 다가오라는 시늉. 사자 2, 노모에게 다가가 귀를 댄다. 알았다는 듯 끄덕거리
『』: 노모 대신 산 사람들에게 뜻을 전달하는 저숙사자 둘째 상주의 먹살을 잡아 올리라는 요청
는 시늉. 사자 2, 두뼉두뼉 걸어와 둘째 상주 먹살을 잡아든다. 번쩍 들리는 둘째 상주.』

둘째 상주: 살려 주!

사자 2: 안 되겠다. 어머니가 너하고 저승길 동행해야 되겠다.

정을 죽여 둘째 상주가 뺨돌린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망
둘째 상주: 아이고, 나는 상주지 저승 갈 사람이 아니오.

사자 1: 야, 이 후례자식아! 저승이 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여행 취소하는 온천장
배운 데 없이 재물로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낚잖아 부르는 말
인 줄 알아?

석출: 어떻게 편리 좀 봐줄 수 없겠소?

저숙사자와 상주 사이의 중재자 역할
사자 1: 무슨 편리?

석출, 사자 1에게 다가가 귀엣말. 사자 1, 눈을 끔벅이며 의미심장한 미소. 그리고 사자 2에게
놓아주라는 눈짓. 털썩 떨어지는 둘째 상주. 석출, 둘째 상주에게 다가가 귀엣말 “게워 내!” 둘째
상주, 강력한 저항. 석출, 알아서 하라는……. 『둘째 상주, 말없이 일어나 관으로 다가가 꿇어앉으
노모의 돈을 돌려줄 것을 권유함
『』: 해학과 풍자 둘째 상주가 노모에게 아이처럼 애교를 부리는 모습과 파렴치한 모습
며 애교 있게 “엄마아!”』 노모, 뺨부터 철썩 올려붙인다. 둘째 상주, 옷 속에 꽂쳐 둔 부조금을 하
간지질이나 상감질 등에 보내어 도와주는 돈
나들 끄집어내어 관 속에 넣으며, 애고애고 돈 잃어 원통한 곡. 둘째 상주 일어서려는데, 노모, 어
노모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돈을 돌려주어야 해서 원통함
깨를 찍어 꿇어앉힌다. 노모의 수화(마임).

『노모와 둘째 상주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 → 관객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효과를 높임
사자 2: (통역) 내 통장 내놔! — 아들이 재산부터 뺨돌린 것에 대한 서운함 표현
귀신인 노모가 직접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상주, 더욱 서러운 곡 놓으며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 속에 집어넣는다. 노모의 강력한 수화(마임)
돈을 잃는 것이 원동력

사자 2: (통역) 집문서도!

만상주: 『아이고, 집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입니까? 어머니가 떡장사해서
『』: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만상주의 반대
뻘 뻘지게 세운 우리 가문의 터전인데…….』
노모가 떡 장사를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마련하였음

노모의 수화(마임) — 저숙사자가 노모의 귓속말이나 수화(마임)의 의미를 등장인물들에게 전함
▶ 형제들이 노모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유산에만 관심 있자 형제들이 가진 유산을 모두 되찾아가는 노모



집과 땅에 대한 노모의 생각을 대신 전달하는 저승사자 2

사자 2: (통역) 집은 팔고 사는 부동산이 아니다. 『요새 인간들이 가옥과 토지를 무슨 증권 거래하듯이 굴리는데, 이거, 안 좋아요! 집은 그냥 집이야, 방구들에 눌러붙어 편하게 살자고 세우는 게 집이지 돈 놓고 돈 먹는 뽕뽕이 판이 아니잖아! 알겠냐!』 내가 떡장사해서 집 샀을 때, 너희들 부동산 투기하라고 헛지랄 했냐? 『새 새끼 둥지 틀 듯 자손이 이어지고, 중손이 집 지키고, 제삿밥 꼬박꼬박 얻어먹을 생각으로 집 세웠지.』 너희들이 집 팔고 아파트로 이사해 보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 찾아가냐? 서울 교통이 지옥인데 낯선 길 찾기 어렵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되고, 『이 나이에 그 높은 계단 걸어서 올라갈 군번이나, 내가!』

석출: 요새 아파트 엘리베이터 다 있어요, 복레 할머니.

노모, 짜증스러운 수화(마임).

사자 2: 흔백이 엘리베이터에 갇혀 보라. 쥐도 새도 모르게 구천 중음신 신세로 떨어진다. (둘째 상주에게) 빨리 집문서 내놔라!

둘째 상주, 하이고 자지러지며 집문서를 관 속에 던진다. 만상주와 처도 기절할 듯 곡소리. 노모, 관 속을 더듬어 다발을 꺼내어 확 뿌리며 이별의 수화(마임).

사자 2: 자, 용돈이다. 닭 울기 전까지 신나게 화투판이나 벌여 보라. 탁아, 나 진짜 간다!

자식들의 분란 때문에 관 속에 있다가 몸을 일으킨 노모가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저승으로 가는 부분

신나게 화투판을 벌여 보라는 것은 조상질을 놀이판으로 여겨 죽음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일상으로 끌어내리려는 의도

▶ 집과 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다시 떠나는 노모

핵심 정리

갈래	희곡, 장막극 (5막)
성격	풍자적, 해학적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현대인에 대한 비판과 장례식장에서 펼쳐지는 한바탕의 난장
특징	① 전통적인 장례절차를 희극적으로 재구성함 ② 논리적, 인과적 관계를 벗어난 열린 연극을 지향함 ③ 비현실적인 내용이 주를 이룸 ④ 모두 흥겹게 어울리는 축제 분위기를 통해 죽음의 의미를 재해석함 ⑤ 말, 노래, 춤, 동작, 이미지가 총체적으로 구성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오구굿 중에서 산오구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수용하고 있다. 죽음이라는 어두운 소재를 밝고 경쾌한 ‘굿’의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70년대부터 우리의 전통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연극에서도 한국적인 연극을 창조하려는 작업이 시도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작품이다. 서양의 사실주의 연극이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는 폐쇄적인 닫힌 구조라고 한다면, 「오구 - 죽음의 형식」은 배우와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개방적인 열린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산오구굿은 죽음을 앞둔 사람을 좋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굿으로, 이 작품의 사건은 노모가 산오구굿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에서 시작한다. 작가는 죽음과 관련된 의식인 오구굿과 장례 절차를 연극의 무대로 끌어올려 희화화하고 있다. 이는 죽음을 엄숙하고 비극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통념에 대한 반동적인 의식인 셈이다. 아울러 돈에 집착을 보이는 인물들을 통해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구조

발단	낮잠을 자던 노모가 어느 날 꿈속에서 온갖 저승 풍경들과 죽은 남편을 본 후 저승 갈 준비를 해야 겠다며 아들에게 굿을 해 달라고 조름
전개	무당 석출의 인도에 따라 굿판이 벌어지고 흥을 돋우던 중, 노모가 ‘나 갈란다.’라는 말을 남기고 쓰러짐
절정	온 집안이 장례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형제간 유산 상속 싸움이 나자 노모가 관을 열고 나와 두 아들을 혼내 줌
하강	초상집의 밤이 깊어 가면서 화투판은 난장판이 되고 손녀딸과 저승사자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대한 문답을 나눔
대단원	새벽닭이 우는 시각이 되자 노모는 산 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먼 길을 떠남

전체 줄거리

떡 장사를 하며 두 아들을 키운 팔순의 복레 할머니가 자다가 꿈에서 저승 풍경과 죽은 남편을 본다. 그 후 복레 할머니는 저승 갈 준비로 굿을 열어 달라고 말한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복레 할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무당 석출을 부려 굿판을 벌인다. 한바탕 신나게 춤을 추다가 복레 할머니는 쓰러진다.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하고 저승사자들이 초상집으로 온다. 자식들이 재산 다툼을 벌이자 복레 할머니가 관에서 일어나 자식들을 혼내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새벽닭이 울자 복레 할머니는 살아 있는 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저승으로 간다.



인물 분석

노모	- 저승사자를 보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아들에게 오구굿을 해 달라고 부탁함 - 사람들을 불러 굿판을 벌이고, 흥에 겨워 즐기는 중에 '나 갈란다.' 라며 죽음을 맞음
만아들	-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들 - 노모와 다투기도 하고 노모를 타박하기도 하지만 결국 노모의 청대로 굿판을 벌임 - 동생과 조의금을 두고 싸우고 곡을 하는 법을 친척들에게 묻기도 하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물
석출	- 굿과 장례를 주도하는 인물 - 임종에 대한 준비, 초혼, 시체 거두기, 상례 동안의 역할 분담, 관 준비, 부고 등에 대해 노모의 가족들과 관객들에게 설명해 줌
저승사자	- 귀엽고 친근한 형상의 저승사자(행동과 정서가 인간과 비슷함) - 근무 중에 술과 고기를 탐하고 뇌물을 받으며, 여자들과 놀아나기도 함

해학과 풍자를 통한 현실 비판

- 노모의 죽음이나 유산으로 인한 갈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상황에서 슬픔이나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웃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실적 욕망을 지닌 인물들로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싸우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등장시키고, 저승사자마저 잇속을 챙기는 인물로 제시하여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욕망을 비판함
-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죽음의 의미를 무겁게 다루기보다 삶이나 죽음과 같은 본질적 가치를 돌아보게 함



【앞부분의 줄거리】 산간벽촌의 동막골 부락민들은 국군인 현철과 상상이 전하는 전쟁 발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던 중 국군과 미군 조종사, 그리고 부락민이 함께 있는 촌장의 집으로 인민군 낙오병 치성, 영희, 택기가 들이닥친다.

S# 22. 조종사가 누워 있는 방 N. / INT. ^{실내 장면}
Scene Number: 장면 번호 방(Night) 장면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밖이 궁금한 조종사, 부상당한 몸을 간신히 움직여 머리로 문을 밀어낸다.

겨우 열려진 틈으로 밖을 내다본다. “저건 또 뭐하는 것들이지?”

평상 위에 부락민들이 죽 올라서 있는 이상한 행동을 보며 머리를 갸웃거리는 조종사.

^{밖의 상황에 대해 의아해 함}

S# 23. 다시 촌장 집 마당 N. / EXT. ^{실외 장면}

부락민들 사이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적군의 모습들. 짜늘한 기운이 흐르고…….
^{국군과 인민군의 대치 상황 - 팽팽한 긴장감}

영희: (겁에 질린 투로) 상위 동지. 아니 군대 없대서 왔는데 결정하는 것마다 와 이럽네까?

치성: (이를 악문다.) ……!

택기: 열 발 안쪽에 있습니다. 우린 셋이고 저게는 둘입니다. 확 까 치웁시다!

치성: 전사 동무, 그냥 내 뒤에 있으라우!

영희: 아새끼래 쫓랑거리며 일 맨들디 말구 가만 좀 있수라우.

상상: 수적으로 우리가 밀리는데 어떡해요? 그러게 그냥 지나쳐 가자니까 왜 여기까지 와 가지 구……. 난 되는 게 없어. 니미.

현철: (무섭게 인민군을 노려보다 소리 지른다.) 야!
^{인민군을 위협하기 위함}

인민군 셋 침묵.

마을 사람들 인민군과 국군을 번갈아 보다가…….

^{순수한 동막골 사람들 → 동막골: 평화가 보전되는 공간}
달수: (인민군들에게) 안 들려요? 부르는 거 같은데…….

^{현철이 인민군을 위협하기 위해 한 말의 의도를 알지 못함 → 동막골 사람들은 국군과 인민군의 대립 상황을 알지 못함}
달수 처: (현철에게) 우리한테 말해요. 전해 줄 테니.

치성: 와? 방아쇠에 손가락 집어넣었으면 땡겨야지. 다른 불일 있네?

영희: 상위 동지. 거 괜히 세게 나가디 마시랴요. 우린 총알도 없는데…….

현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제대로 한번 붙자!

상상: 미쳤어요? 수적으로 밀린다니까.

현철: 죄 없는 부락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일단 나가자!

석용: 우리 때문이면 괜찮아요.

^{국군과 인민군 사이의 대립을 이해하지 못함}

촌장: (지긋이) 석용아…….

^{동막골 사람들이 해를 입을까 봐 걱정되어 석용을 제지하려고 한 말}



치성, 자신의 빈총이 의식됐는지 고민하다 이를 악물고 수류탄을 빼 든다.

치성: 내 말 잘 딴으라우! 괴뢰군 아씨끼나 부락 사람이나 조금만 허튼짓했다 그 즉시 직살하는 거야! 지금한 말 허투루 딴디 말라!

영희와 택기도 눈치챘다. 옆으로 총을 집어 던지고 모두 수류탄을 꺼내 든다.

부락민들 치성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저 수군거리고만 있다.

치성: 뭐 이런 것들이…… 야 말 같디 않네! (버럭) 전체 손 버쩍 들라우!

부락민들 서로 눈치를 보다 하나들 손 올린다. 왼손을 드는 사람, 오른쪽 손을 드는 사람.

현철의 국인이 현철이 인민군인 치성을 폭으로 겨누고 있는 상황 소총 가늠자로 보이는 흥분한 치성의 얼굴. 옆으로 팬하면 손에 들린 수류탄이 보인다. 무
인민군에 대한 국군의 적대적 태도 PAN.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는 촬영 기법
슨 이유에선지 불안한 표정이 되는 현철.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연합군이 동막골을 적진으로 오인해 폭격하려 한다. 인민군과 국군은 동막골 주민들을 구 하고자 미군 스미스를 연합군 기지로 보내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짜 기지를 만들어 폭격을 유도하는 작 전을 펼친다. 이 작전이 성공하여 연합군은 가짜 기지에 폭격을 가하는데, 영희와 상상이 폭탄과 총에 맞아 죽는다.

「 」: S#122 ~ S#124(동막골을 보호하려는 국군과 인민군이 연합군의 폭격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 → 서로 다른 공간의 인물들이 보이는 상이한 반응을 장면으로 제시)
「S# 122. 산등성 N. / EXT.— 폭격을 맞은 공간에서 희생되는 군인들의 비장함

그들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거대한 포탄 밑에서 서로를 보는 세 사람. 치성, 현철, 택기.

그렇그렇 눈물 맺힌 눈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주인공들. “우리 잘한 거지?”

S# 123. 동막골 N. / EXT.— 동막골 주민들의 천진난만한 모습

산 너머 먼 하늘에 섬광이 일고 있다. 신비한 듯 보고 있는 동막골 사람들.
폭격으로 인한 성곽을 신비한 듯이 바라 봄 -전쟁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와 순진성 때문
멍한 표정의 김 선생. 뒤돌아서며 육지거리를 하는 노모. 표정 없이 보는 촌장.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평화로운 동막골.
폭격으로 인해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군인들이 희생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순진무구한 모습 → 동막골: 순수한 인간관계가 보존되어 있는 공간

S# 124. 숲 어딘가 N. / EXT.— 연합군 기지로 가고 있는 스미스의 슬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들풀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스미스.

그 모습을 보는 한국군 2.(F.O.)」
Fade Out: 화면이 차차 어두워지는 기법

S# 125. 산등성 아침 EXT. (눈이 내린)

시간의 경과(S#124: 밤 → S#125: 아침)
다음 날 아침.

간밤에 내린 눈으로 전날 밤의 치열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간혹 허수아비만이 비죽 튀어나와 있다.

질게 깔린 안개.

안개 속에서 점차로 드러나는 형태들. 수색 나온 토벌대다.



폭격 지점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군화발들.

문득, 그들 중 누군가의 시선. 『눈 속에 파묻힌 인민군 군복이 얼핏 보인다.

『』: 수색 중 국군과 인민군의 군복을 발견 -폭격에 국군과 인민군이 모두 희생된 불행한 사건의 발생

그런데 그 옆에는 국군의 군복도 보인다.』 알 수 없다는 듯 가웃거리는 그의 표정에서 카메라 서서히 빠져 공중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전쟁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우회적으로 고발} 나비 다섯 마리가 스윽 날아오른다.

민간인에 대한 국군과 인민군의 희생정신

(동막골 주민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치며 희생한 두 명의 국군과 세 명의 인민군을 상징하는 소재)

현철(소리): 우리가 이긴 거…… 맞죠?

치성(소리): 고럼. 완전히 대승이다. 하하하.

상상(소리): 나 솔직히 아까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노을이 딱 지는데 미치겠더라구.

택기(소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되지비?

상상(소리): 도망갔으면 자세 안 나오지.

영희(소리): 아새끼래, 아까 우는 거 다 봐서야…….

핵심 정리

갈래	시나리오
성격	환상적, 비극적
배경	6·25 전쟁 중의 강원도 산골 마을
제재	남한군과 북한군의 대치
주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간애 이념대립을 넘어서 순수한 인간애와 희생정신
특징	① 판타지적이며 만화적인 상상력으로 구성된 장면이 나옴 ②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③ 상징적인 이미지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④ 긴장과 이완의 연속으로 구성적인 재미를 줌

작품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의 소식을 모르는 한 두메산골에 국군, 인민군, 연합군이 한데 모여서 일어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서로 반목하던 국군과 인민군, 미군은 자신들을 감싸고 있던 이데올로기와 국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친구가 된다. 이들은 결국 ‘인류’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이다. 여기서 ‘휴머니즘(인간성)’과 ‘인류 공존’이라는 주제어를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는 ‘휴머니즘’보다 더 근원적인 단어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순수’이다. 동막골 사람들의 순수함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하게 서로를 향해 품고 있던 병사들의 증오심을 서서히 녹여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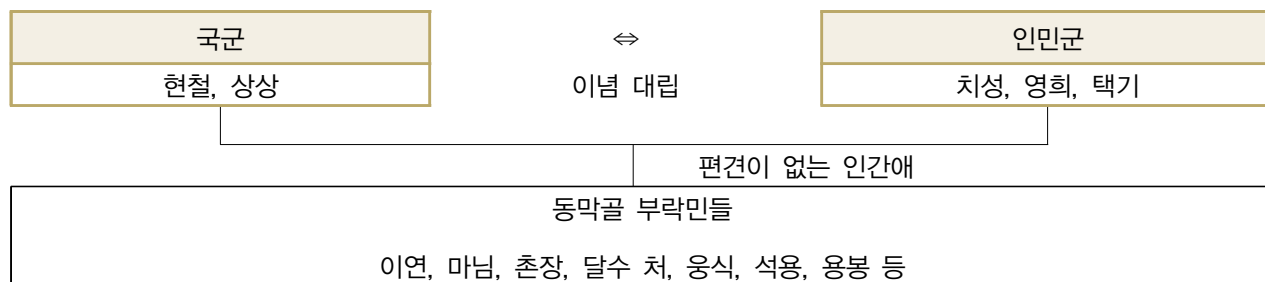


전체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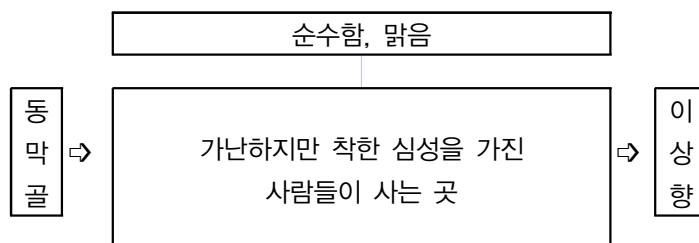
6·25 전쟁 중 강원도의 산골짜기인 동막골에 연합군의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한다. 추락한 전투기 안에는 연합군 병사 스미스가 있다. 동막골에 살고 있는 이연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마을에 소식을 전달하러 가던 중 인민군 일행을 만나게 되어 그들을 동막골로 데리고 온다. 그때, 부대에서 이탈해 길을 잃고 헤매던 국군 표현철과 문상상 일행도 동막골에 찾아온다. 동막골에서는 국군, 인민군, 연합군이 모이게 되면서 소동이 벌어진다.

이렇게 모이게 된 국군, 인민군, 연합군은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동막골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간다. 그러던 중 동막골에 추락한 미군기가 인민군에 의해 폭격됐다고 오인한 연합군이 마을을 집중 폭격 하기로 하면서 위기가 고조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군, 인민군, 스미스는 동막골을 지키기 위한 연합 공동 작전을 펼치기로 합한다. 국군, 인민군, 스미스는 추락한 미군 수송선에서 무기들과 장비들을 꺼내서 동막골과는 다른 위치에 동막골처럼 위장을 한 채 그곳에서 폭격에 대항해 싸우다가 죽는다.

인물 분석



‘동막골’의 상징성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동막골은 강원도의 두메산골이다. 동막골 사람들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어 전쟁 사실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부대에서 이탈한 국군과 인민군이 마을로 흘러 들어온다. 군인들이 긴장감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군인들이 대치하는 의미를 부락민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군인들이 대치하는 상황을 의아한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다.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부락민들은 멧돼지가 밭을 파헤친 일을 걱정하고, 손을 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다. 이를 통해 볼 때 ‘동막골’은 순수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공간적으로 구체화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평화를 추구하면서 순수하게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에 이데올로기의 갈등과 정치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배경으로 엮어 읽기****학 / 황순원**

삼팔 접경의 이 북쪽 마을은 드높이 갠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주인 없는 집 봉당(封堂)에 흰 박통만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뱃대부터 뒤로 돌렸다.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멀찍이서 미리 길을 비켰다. 모두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다. 동네 전체로는 이번 동란에 깨어진 자국이라곤 별로 없었다. 그러나 어쩐지 자기가 어려서 자란 옛 마을은 아닌 성싶었다. (생략)

핵심 정리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성격	휴머니즘적, 사실주의적
배경	① 시간: 1950년 6·25전쟁 당시 ② 공간: 삼팔선 부근의 마을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
주제	우정을 통한 이데올로기 극복 및 인간성 회복
특징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작품 비교

6·25 전쟁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우리나라의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학」이 황량한 마을 분위기와 겁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 등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마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 전쟁의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면, 「웰컴 투 동막골」은 마을 사람들이 수류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통해 드러나듯이 이념이나 전쟁과는 무관한 동막골이라는 배경을 통해 민족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나간 일을 날날이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몰라도 내일부터는 내남할 것 없이 살아갈 수가 없을
어른이 된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함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달아 올 날보다는 누구나 지나간 날에 자량이 더 많았던 까닭이다. 그것
 도 물질로는 바꾸지 못할 깨끗한 자량이었다면 그럴수록 오늘의 악착한 잡념이 머릿속에 떠돌 때
나와 남을 아울러 이르는 말 마다 저도 모르게 슬퍼지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일을 해 나가는 태도가 매우 모질고 끈덕진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현재에 대한 아쉬움

▶ 지나간 유년 시절에 대한 추억

(중략)

무서움을 느낄 만큼 깊숙하고 루미지고
 『밤이 으스스하고 깨끗이 개인 날이면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러 앉히고 별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
 『』: 여름밤에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별자리 이야기를 듣는 장면
 시는 것이었다. 저 별은 문청성이고 저 별은 남극노인성이고 또 저 별은 삼태성이고 이렇게 가르
 치시는데 삼태성이 우리 화단의 동편 옥해화 나무 위에 비칠 때는 여름밤이 뜻이 없어 첫닭이 울
고 별의 전설에 대한 강의도 끝이 나는 것이었다.』

밤이 새도록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음

그런데 한계 없이 넓은 창공에 어느 별이 얼마나 해도 처음에는 어느 별이 무슨 별인지 짐작할 수
 없기에 항상 은하수를 중심으로 이편의 몇 째 별은 무슨 별이고 저편의 몇 째 별은 무슨 별이란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때도 신기하게 들은 것은 『남강으로 가로질러 있는 은하수가 유월 유두절
 『』: 가을에 은하수의 위치가 바뀜
 을 지나면 차츰차츰 머리를 돌려서 팔월 추석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동서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
 다.』

▶ 어린 시절 들었던 별자리 이야기

이때가 되면 어느 사이에 들에는 오곡이 익고 동리 집 지붕마다, 고지박이 드렁드렁 굶어 가는 사
박의 종류 중 하나 박의 종류 중 하나 굶을 것거나 책을 읽는 모임을 마친
 이로 늦게 핀 박꽃이 한결 더 희게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오언 고풍을 짓던 것을 파접
 글 배우는 아이들이 대신이나 개살이 지나갈 때 길 앞에 책을 죽 펴 놓고 책 위로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 기개가 강하다며 종이, 붓, 먹 따위를 주던 일
 을 한다고 온 동리가 모여서 잔치를 하며 야단법석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칠월 칠석에는 견우

글 짓는 모임을 마치는 파접을 한다고 독네 사람들과 흥겨운 잔치를 함

성과 직녀성이 일 년에 한번 만나는 날인데 은하수가 가로막혀서 만날 수가 없기에 옥황상제가 인
 간 세상에 있는 까마귀와 까치를 불러서 다리를 놓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만나는 견우직녀는 서로
 붙잡고 가진 소회를 다하기도 전에 첫닭 소리를 들으면 울고 잡은 소매를 놓고 갈라서야만 한다는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것 까마귀와 까치들은 다리를 놓기 위하여 돌을 이고 은하수를 올라갔기에 칠석을 지나고 나면 모
 다 머리가 빨갛게 벗어진다는 것 이러한 얘기를 듣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재미였었다. 그래서 나
 는 어린 마음에도 지상에는 낙동강이 제일 좋은 강이었고 창공에는 아름다운 은하수가 있거니 하
낙동강이 흐르고 하늘에 은하수가 있는 고향을 자랑스러워 함
 면 형상할 수 없는 한 개의 자량을 느끼곤 했다.

▶ 고향에서 파접하던 풍경과 칠월 칠석에 관련한 풍경

그러나 숲 사이로 무수한 유성같이 흘러 다니던 그 고운 반딧불이 차츰 없어질 때에 가을벌레의
 찬 소리가 뜰로 하나 가득 차고 우리의 일과도 달라지는 것이었다. 여태까지 읽던 외집을 덮어 치
 우고 등잔불 밑에서 또다시 경서를 읽기 시작하는 것이었고 그 경서는 읽는 대로 연송을 해야만
옛 성현들이 유교의 사상과 교리를 써 놓은 책 책 한 권이나 글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읽
 시월 중순부터 매월 초하루보름으로 있는 강(講)을 낙제치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강이란 것도
경서를 암송하는 것
 벌써 경서를 읽는 처지면 중용이나 대학이면 단권책이니까 그다지 힘들지 않으나마 논어나 맹자나



시전 서전을 읽는 선비라면 어느 권에 무슨 장이 날는지 모르니까, 전질을 다 외우지 않으면 안
 『시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한 걸로 된 책의 전부
 되므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십여 세 남짓했을 때 이런 고역을 하느라고 장장추야
 에 책과 씨름을 하고 밤이 한 시나 넘게 되어』 기나긴 가을밤 영창을 열고 보면 하늘에는 무서리가 나리고 삼태성
 이 은하수를 막 건너선 때 먼 데 닭 우는 소리가 어즈러히 들리곤 했다. 유리창 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물은 서리

이렇게 나의 소년 시절에 정들인 그 은하수였건마는 오늘날 내 슬픔만이 헛되이 어른이 된 화자의 시선으로 과거 고향의 풍경을 회상 장성하는 동안에
 나는 그만 그 사랑하는 나의 순수함, 열정 은하수를 잃어버렸다. 자라서 어른이 됨

고향 마을에서 보냈던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상실감(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행복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서글픔)

▶ '나'를 준비하던 추억과 유년기의 즐거움을 상실한 아쉬움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성격	회고적, 서정적
주제	유년 시절의 추억과 아쉬움
특징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의 계절의 변화가 드러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이육사의 수필로, 안동 낙동강 변의 고향 마을에 대한 애정과 유년 시절의 추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이육사는 어린 시절 형제들과 함께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익혔다는 기록이 전해지는데, 이 작품에서는 할아버지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나 경서를 읽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느낀 순수함과 열정을 그때 보았던 '은하수'에 비유하며,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은하수'를 잃어버린 현재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주제로 엮어 읽기 -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

참새 / 윤오영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
 다. 다른 새와의 대조를 통해 참새의 특성을 설명함 피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
 도 모른다.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
 리지도 않는 새다.』 (중략) 즐거 구경하는 사람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
 다. 참새는 가을에는 농작물을 해치나 여름에는 해충을 잡아먹음

핵심 정리

갈래	수필
성격	성찰적, 비판적
주제	사라져 가는 옛것에 대한 그리움 삭막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



만 봄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논에 허수아비를 해 얹히고 새를 쫓아,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 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중략)

우리 민족의 너그러운 태도가 드러남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저서 천연기념물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참새들조차 : 참새조차 사라져 가는 삭막한 현대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의식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윤기 없는 세상이다.

자장면 / 정진권

「자장면은 좀 침침한 작은 중국집에서 먹어야 맛이 난다.」/ 「그 방은 펍 좋아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깨끗지 못해야 하고 칸막이에는 쿡알만한 구멍들이 몇 개 뚫려 있어야 어울린다.」 (중략)

해서, 「내가 처음으로 으리으리한 중국집을 보았을 때, 그리고 엄청난 중국 요리 앞에 앉았을 때, 나는 그것들이 온통 가짜처럼 보였고, 겁이 났고, 괜히 왔구나 했다.」 (중략)

「그러나 내 친애하는 자장면 장수 여러분도 자꾸만 집을 수리하고 늘리고 새 시설을 갖추는 모양이다.」 돈을 벌고 나보다 훌륭한 고객 : 현대적으로 변해 가고 여리를 추구하는 모습에 대한 거부감 을 벌고 싶은 것이야 물론 그분들의 정당한 소원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동네와 내 직장 근처에만은 : 소박하고 허름하지만 인정이 있는 중국집에 대한 그리움 -인정 말던 시대에 대한 그리움 좁고 깨끗지 못한 중국집과 내 어리던 날의 그 장쾌 같은 똥똥한 주인이 오래오래 몇만 남아 있었으면 한다.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후덕한 정서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참새에 대한 상념을 바탕으로 삭막해져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갈래	경수필, 서정적 수필
성격	회고적, 서정적
주제	훈훈한 인정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특징	①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추억을 회상함 ② 꾸밈없는 간결한 문체로 독자와 대화하듯 써 나감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자장면에 얹힌 추억과 현재의 느낌을 소재로 인정이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통해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자전거 여행 / 김훈



자전거를 타고 저어 갈 때, 세상의 길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 온다. 강물이 생사가 명멸하는 시간 속을 흐르면서 낡은 시간의 흔적을 물 위에 남기지 않듯이, 자전거를 저어 갈 때 25,000분의 1 지도 위에 머리카락처럼 표기된 지방도·우마차로·소로·임도·등산로 들은 몸속으로 흘러들어 오고 몸 밖으로 흘러 나간다. 흘러오고 흘러가는 길 위에서 몸은 한없이 열리고, 열린 몸이 다시 몸을 이끌고 나아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은 낡은 시간의 몸이 아니고 생사가 명멸하는 현재의 몸이다. 이끄는 몸과 이끌리는 몸이 현재의 몸속에서 합쳐지면서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고, 가려는 몸과 가지 못하는 몸이 화해하는 저녁 무렵의 산속 오르막길 위에서 자전거는 멈춘다. 그 나아감과 멈춤이 오직 한 몸의 일이어서, 자전거는 땅 위의 일엽편주처럼 외롭고 새롭다.

한 척의 조그마한 배

▶ 세상의 길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자전거 여행

『자전거를 타고 저어 갈 때, 몸은 세상의 길 위로 흘러 나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몸과 길은 순결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연결되는데, 몸과 길 사이에 엔진이 없는 것은 자전거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자전거는 몸이 확인할 수 없는 길을 가지 못하고, 몸이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없지만, 엔진이 갈 수 없는 모든 길을 간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바퀴를 굴리는 몸은 체인이 매개하는 구동축을 따라서 길 위로 퍼져 나간다. 몸 앞의 길이 몸 안의 길로 흘러들어 왔다가 몸 뒤의 길로 빠져나갈 때,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람은 몸이 곧 길임을 안다. 길은 저무는 산맥의 어둠 속으로 풀려서 사라지고, 기진한 몸을 길 위에 누일 때, 몸은 억압 없고 적의 없는 순결한 몸이다. 그 몸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길 앞에서 굳히 잠든다.』

갈 때의 오르막이 올 때는 내리막이다. 모든 오르막과 모든 내리막은 땅 위의 길에서 정확하게 비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비기면서, 다 가고 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 그래서 자전거는 내리막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도 오르막을 오를 수 있다. 오르막을 오를 때 기어를 낮추면 다리에 걸리는 힘은 잘게 쪼개져서 분산된다. 자전거는 힘을 집중시켜서 힘든 고개를 넘어가지 않고, 힘을 쪼개 가면서 힘든 고개를 넘어간다. 집중된 힘을 폭발시켜 가면서 고개를 넘지 못하고 분산된 힘을 겨우겨우 잇대어 가면서 고개를 넘는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

1단 기어는 고개의 가파름을 잘게 부수어 사람의 몸속으로 밀어 넣고, 바퀴를 굴려서 가는 사람의 몸이 그 쪼개진 힘들을 일련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길 위로 흘러보낸다. 1단 기어의 힘은 어린 바람에 의하여 오래 표면에 생기는 물결 모양의 무늬처럼 팔목처럼 부드럽고 연약해서 바퀴를 굴리는 다리는 헛발질하는 것처럼 안쓰럽고, 동력은 풍문처럼 아득히 멀어져서 목마른 바퀴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데, 가장 완강한 가파름을 가장 연약한 힘으로 쓰다듬어 가며 자전거는 굽이굽이 산맥 속을 돌아서 마루턱에 닿는다.

자전거 타기를 통해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를 때, 길이 몸 안으로 흘러들어 올 뿐 아니라 기어의 톱니



까지도 몸 안으로 흘러들어 온다. 내 몸이 나의 기어인 것이다. 오르막에서, 땀에 젖은 등판과 터질 듯한 심장과 허파는 바퀴와 길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다. 땅에 들러붙어서, 그것들은 함께 가거나, 함께 쓰러진다.

▶자전거와 몸이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된 자전거 여행

‘신비’라는 말은 머뭇거리지만 기진한 삶 속에도 신비는 있다.

기어가 다하여 힘이 없어짐 생의 신비 ①: 기진할 정도로 힘들게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을 오를 때 깨달음
오르막길 체인의 끊어질 듯한 마디마디에서, 기어의 톱니에서, 뒷바퀴 구동축 베어링에서, 생의
자전거를 타면서 글쓴이가 느끼는 것 회전 동력을 기계의 작동 기구에 전달하는 즉흥
신비는 반짝이면서 부서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흐르고 구른다. 땅 위의 모든 길을 다 갈 수 없고
생의 신비 ②: 바퀴를 타는 동안 생의 신비는 새롭게 태어난다
땅 위의 모든 산맥을 다 넘을 수 없다 해도, 살아서 몸으로 바퀴를 굴려 나가는 일은 복되다.

생의 신비 ③: 살아서 몸으로 바퀴를 굴릴 수 있기 때문

▶생의 신비를 느끼게 한 자전거 여행

핵심 정리

갈래	기행 수필
성격	경험적, 성찰적
주제	자전거 여행을 통해 얻은 세상과 인간 삶에 대한 깨달음
특징	① 글쓴이의 체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함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함 ③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가 전국 방방곡곡을 자전거로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서술한 기행 수필이다. 이 글에는 자전거 위에서 본 자연과 자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글쓴이의 애정이 잘 담겨 있다. 또한 글쓴이는 자전거라는 아날로그적 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세상과 힘든 자전거 타기를 통해 몸으로 직접 느끼는 삶에 대한 깨달음과 성찰의 내용도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이 본 세상의 모습을 명징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깨끗하고 맑음(=징명하다)



〔앞부분의 줄거리〕 음산한 토막에서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명서 가족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간 아들 명수에게 큰기대를 건다. 하지만 명수가 해방 운동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웃 여자: 왜 이렇게 사진이 희미해?

명수가 노동 운동을 하다가 종신 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기사가 난 신문지 조각을 이웃 여자에게 보여 줌

명서 처: 내가 늘 지니고 다녀서 손때가 묻어 그럴 거야.

이웃 여자: 내 눈으로두 어찌 보문 같은 피색이 있기도 한데, 어찌 보문 아주 다르기도 허구……

생긴 모양, 얼른 보아 알아볼 만한 구석
대체 이걸루는 이렇다 저렇단 말은…….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함

명서 처: 아, 그렇구말구! 나 역시 믿을 수 없어. 하늘이 무너진다는 소릴 믿으문 믿었지, 어떻게
신문 기사 속 사건의 주인공이 명수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믿는담. 머리끝이 바로 서는 이 무서운 사연을…….

명수가 종신 징역을 살게 되었다는 신문 기사 내용

이웃 여자: 무서운 사연이라니?

명서 처: 맙시사! 당치도 않은! 이 조선 천지에 그런 일이 있어서 어쩔려구.

이웃 여자: 어찌 됐어? 내게 좀 들려주구랴.

명서 처: ……뭐라던가? 에그 정신 봐! 애 금녀야, 그 뭐라더라, 네 오빠 했다는 것 말야.

금녀: 또 그런 얘길…….

이웃 여자: 한 이웃에 살면서, 피차에 기울 게 뭐냐?

저것과 이것을 아울러

명서 처: 애, 갑갑하다. 이 에미한테 한 번만 더 들려주렴. 그 구장이 하구 간 소리 말야.

터무니없이 마구

금녀: 그건 팽탕 거짓말이래두.

구장이 말한 해방 운동의 개념이 잘못된 것임 - 당시 사람들에게 해방 운동의 의미가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명서 처: 뭐?

금녀: 웃마을 오빠의 친구에게 알아봤더니, 오빠 한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래요. 우리두 『이런 토
해방 운동 』 『』: 금녀가 파악한 해방 운동의 개념

막살이에서 죽지 말구, 좀 더 잘살아 보자는…….』

알개의 수탈에 피해해진 우리 조국을 상징

명서 처: 그럼 그렇지. 그래 종신 징역을 산다는 건 정말이라디?

=무기징역

이웃 여자: 종신 징역?

명서 처: 거짓말야! 거짓말야! (미친 듯이 부르짖는다.)

금녀: 아, 거짓말이쥬!

명수가 무사히 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함

명서 처: 종신 징역이란 감옥에서 죽어 나온단 말 아냐? 젊어서 새파란 개가! 금지옥열 내 자식

명수의 죽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냄

금으로 된 가치와 옥으로 된 앞이라는 뜻으로, 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

이! 내 아무래도 믿을 수 없는 일야! 그런 청천에 벼락 같은 일이 우리 명수의 신상에 있

앞게 갠 하늘에 날벼락(뜻밖에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어 어쩔랴구! 신문에만 난 걸 보구 그걸 우리 명수라지만 그런 멸절한 소리가 어딴어? 『이

신문 기사 속 사건의 주인공이 명수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

넓은 팔도강산에 얼굴 같은 사람이 없구 최명수란 이름 석 자 가진 사람이, 어디 우리 자

『』: 얼굴과 이름이 같은데도(아들임이 거의 확실한 상황) 아들임을 부정하려 함 → 절망적 상황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희망을 지키려는 간절한 모성

식 하나뿐일 거라구?』 이건 누가 뭐래두 난 안 믿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함

금녀: 어머니, 이러시다가 병이나 나시문 어떻게 해유? 설사 오빠가 죽어 나온대두 조금도 서러울

어머니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



진 없어유. 외려 우리의 자랑이에유. 오빠는 우릴 위해서 싸웠어유. 이런 번듯한 일이 또 있
 겠수? 더구나 이런 토막에서 자란 오빠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우다 죽은 것이므로} 결단코 이 토막을 잊지 않을 거유. 병드신 아버질
 구하시려구 늙으신 아버질 섬기시려구, ^{명수에 대한 신뢰} 그리구 이 철부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빠는 장차
 큰 성공을 해 가지고 꼭 한번 이 토막에 찾아오셔요. 전보다 몇 배나 더 튼튼한 장부가 되어
 오실 거야. ^{명수네 집, 가난하고 비참한 삶의 현실을 의미} 여기를 떠날 때만 해두 오빠는 나무를 하거나 끝밭을 매거나 남의 두 몫은 했었
 는데, ^{나무 그루터기가 많은 밭} 지금쯤은 어머니, 오빠 얼마나 대장부가 됐겠수?

명서 처: ^{상식하고 험한 기운} 옳아! 그놈은 몸도 크구 기상도 좋았겠다! 그놈이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장굴이 됐겠니?
 제 어미도 몰라보게 됐을 거야 아아, 명수야! 이제 명수가 저 사립문에 나타나서
 장부다운 우렁찬 목소리로 이 어미를 부르고 떠벌떠벌 내 앞으로 걸어와서 그 억센 손으
 로 이 여윈 팔목을 덜커 붙잡을 것이다 그러면 이 토막에도 서기가 날 거야.

금녀: 아무렴, 서기가 나구말구! ^{상서로운 기운} 이 어두운 땅도 환해질 거예유..... 그러면 어머니는 딱히 파시노
 라구 거리거리로 떨고 다니실 필요두 없을 거구..... ^{조국의 광복을 상징}

이웃 여자: 나는 압탈 궁둥이만 들여다보구 맘을 조리잖아도 좋구..... ^{양털이 낡은 달걀을 팔아 생계를 유지함}

명서 처: 아이구 금녀야! ^{양털이 낡은 달걀을 팔아 생계를 유지함} 이런 형상으루 어떻게 우리 명수를 만나니? 이렇게 찌들어진 형상
 으루! 네 오빠를 맞이하기엔 이 집은 너무 누추하구나. 금녀야, 우리는 집 안을 치우구
 몸을 단속하자. 이런 꼬락서니로 우리 명수를 만나서는 안 된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빠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 애야, 이리 와서 머리를
빗어라. 기름두 남았지? 사립문에는 불을 켜구..... ^{귀한 사람} 귀한 사람이 들어올 때 집 안이 컴컴
 해선 못쓰느니라. ^{명수}

금녀: ^{명수가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명수는 백골로 돌아오게 됨} (어머니의 미친 듯이 서두는 양을 바라보고 있는 금녀의 눈에는 일종의 공포의 빛이 감돈다.)
^{앞으로 닥칠 불행한 사건을 예견하게 함}

(바람 소리!)

^{비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감을 주기 위한 효과음}

명서 처: ^{귀한 아들을 정성스럽게 맞고자 함} 금녀야, 빨리 머리를 풀어라. 에미는 불을 켜 테니까.

금녀: (불안한 듯이 어머니만 꼭 바라보고 섰다.)

이웃 여자: 좀 답답해서 저러겠니? 보고 있는 나까지 속이 졸이는구나. ^{명서 처의 이상 행동에 대한 불안감}

금녀: 오빠 생각만 나문 저러신대유. 그러던 중에두 오늘은 유달리 심허신 걸유. 난 어쩐지.....

이웃 여자: 당참어! 무슨 그런 엉뚱한 생각을! 그러지 말구 네가 어머니 위로를 잘 해 드러라. 위
 로해 드릴 사람이래야 너밖에 더 있냐?

금녀: 아무리 위로한댔자 소용없어유. 그리고 내게는 뭐라구 위로해 드릴 말두 없구. 다만, 이 증
 세가 속히 지나가기만 바랄 뿐이지.

이웃 여자: 하기가 그렇겠지. 무슨 말이 저 거친 마음에 위안이 되겠니. 마치 게 등에 소금 칠이지.

(사립문 등불을 다는 명서 처에게) 금녀네, ^{아무리 해도 쓸데없는 짓을 이르는 말} 과히 상심치 말게나. 아들 생각다가 지레 죽겠네. (퇴장)
^{명수의 부재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정선 이상 증세(명수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

**핵심 정리**

갈래	장막극, 사실극, 비극
성격	현실고발적, 비판적, 사실적
배경	1920년대, 어느 가난한 농촌
제재	일제 강점기 한국 농촌의 현실과 비참한 삶
주제	일제의 가혹한 억압과 수탈의 참상과 현실 고발
특징	① 사실주의 희곡의 전형임 ② 상징적인 배경을 설정함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상업주의적 대중적인 신파극에 맞서 리얼리즘을 최초로 시도한 창작 희곡이다. 따라서, 사실주의 희곡의 한 전형으로서 한국 근대극의 본격적 출발이며, 식민지 시대의 현실을 강렬하게 고발한 작품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 작품은 1920년대의 일제 강점하의 궁핍한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비참한 현실상과 모순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 암울한 현실 상황은 병자(명서), 정신 이상자(명서의 처), 고향을 떠나는 유랑민(경선), 민족적 저항의 희생자(명수)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한 가족이 파멸에 이르고 그로 인해 모든 희망이 좌절되는 사건의 귀결은 이러한 현실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퇴락한 토막의 음습하고 어두운 분위기와 철저하게 가난하고 병든 명서 가족의 삶은, 단순히 한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일제의 통치하에 있는 1920년대와 30년대의 식민지 조선의 생생한 모습이다. 이렇듯 가난한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부터가 식민지 정책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구조

제1막	도입	가난한 농부인 명서네 가족은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간 명수가 많은 돈을 부쳐 보내 주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상승	명수가 독립 운동을 하다 투옥되었다는 소식에 희망은 사라지고, 명서의 처는 정신 이상 증세를 일으킨다.
제2막	위기	명서네의 궁핍은 더욱 심해지고, 명서의 처는 아들 명수가 종신 징역을 살지도 모른다는 말에 거의 실성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강 파국	명수의 백골이 담긴 상자가 우송되어 오자 명서네 가족은 오열하며, 금녀가 부모를 위로하면서 막이 내린다.



전체 줄거리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간 아들 명수의 소식을 기다리는 최명서는 음산하고 눅눅한 토막에서 가난과 병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그의 이웃집 경선네는 쌀을 빌린 것을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기자 뛰쳐나간다. 이 때 신문에서 명수가 해방 운동을 하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듬해 돌아온 경선은 명서네 부엌에서 살면서 걸식을 하던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떠난다. 한편 명서 처는 명수가 종신 징역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 얼마 후, 우편배달부가 명수의 백골을 전달하자 명서와 그의 가족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 절망하며 절규한다. 이때 금녀는 이러한 비극적 현실 속에서도 부모를 위로한다.

‘토막’에 나타난 시대적 현실에 대한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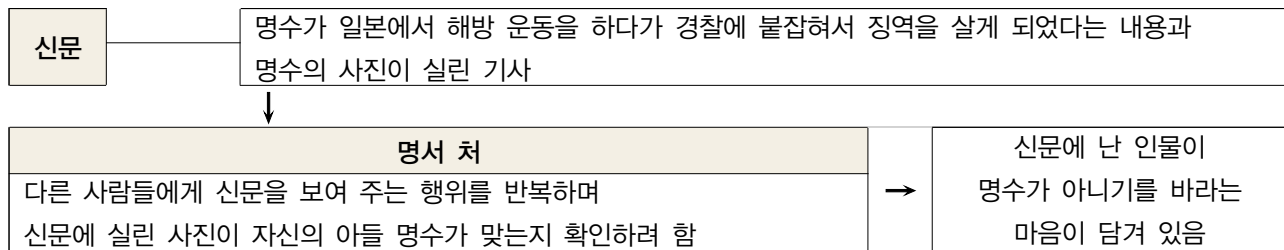
내용	시대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
다 기울어진 토막	일제의 수탈에 피폐해진 우리 조국
명서 일가의 비극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적 삶의 축소판
명수의 독립 운동	조선 민중의 일제에 대한 투쟁
명수의 죽음	조선 독립에 대한 희망의 좌절

인물 분석

인물	설명
명서	- 가난하고 병든 노인 - 생활 능력이 전혀 없지만 가장으로서의 체통과 위엄은 잃지 않음
명서 처	- 생활력이 강한 아낙네 -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망을 가지고 있음
금녀	- 최명서의 딸로 병약한 처녀 -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예지를 가진 인물
강경선과 아내	- 명서 내외의 친구 - 빈농이었으나 등짐장수로 전락함 - 빛에 물려 집을 빼앗기고 밤 사이에 도망가 버림
삼조	허황된 꿈을 안고 돈을 벌러 일본으로 건너가는 젊은이

‘명수’의 역할

명수는 무대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작품의 핵심이 되는 인물로 사건 진행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명서네에게 명수는 토막에 서기(瑞氣)를 불어넣어 줄 유일한 인물로, 가난하고 힘겹게 토막살이를 하는 명서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며 기둥이다. 또한 해방 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며 일제에 투쟁하는 지사적 인물이다.

**‘명서 처’가 신문을 보여 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명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물들의 태도**

명서	명수의 죽음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죽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명서 처	명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음
금녀	명수의 죽음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명수가 죽어서라도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점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음

‘명수’에 대한 ‘명서 처’와 ‘금녀’의 생각**배경의 기능**

작품 속 배경은 작품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주제 의식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토막’은 명서 일가가 살아가는 공간으로, 일제 강점 하에서 핍박받던 우리 농촌의 궁핍한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



‘등불’의 의미

‘등불’은 명서 처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서네 가족은 이미 명수가 일본에서 경찰에 구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등불을 달아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일일 뿐이다. 이로 보아 등불은 당시 우리 민중이 가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희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소재의 의미

토막	▪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암울한 현실을 가리키는 공간적 배경
백골	▪ 명수의 죽음을 의미하며 명수네 가족에게 비극적인 좌절을 안겨 주고 있음
사립문 등불	▪ 명서 처가 자신의 아들인 명수를 맞이하기 위한 도구 ▪ 명수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음
바람 소리	▪ 명수에 대한 불길한 소식, 즉 그의 죽음을 암시하여 긴장감을 유발함

1920년대의 시대적 배경

‘토막’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19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일제의 농촌 수탈 정책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비록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사회주의 해방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 등 일제에 대한 저항 운동이 지속되었다.



다: 저는 정말 망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나: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덧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 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떼가 없다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채재 논리를 그대로 믿고 있음

다: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엘 올라가면 이리 떼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파수꾼 '나'는 독재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무매한 인물

나: 『애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구.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구 그러니?』
『』: 오히려 경력이 짧다는 이유로 파수꾼 '다'의 의견을 무시함

가: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 북을 두드린다. '다'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리고 실제 이리 떼는 없으나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하는 행위 담요를 벗어 네모반듯하게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몸이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양철 북 소리에도 파수꾼 '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음 - 오히려 진실을 모르는 파수꾼 '나'에게 안타까움을 느낌 (중략)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인물』

춘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구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춘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춘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춘장 스스로 이리 떼가 없음을 시인하고 사람들을 속여 왔음을 인정함

다: 춘장님도 아시는군요?

춘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덧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춘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춘장의 생각(독단적인 성격이 드러남)

다: 거짓말 마세요, 춘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 이리 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이리 떼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두려움에 떠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함

망루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독재 정권 유지 위해 안보 정책을 펼쳤던 1970년대 암울한 사회상

춘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리 떼가 오히려 마을을 경색시킨다는 주장(자기 합리화된 발언) → 가상의 적을 설정하여 독재를 유지하고자 했던 1970년대 사회 현실을 보여줌
 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뭘지 넌 알기



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파수꾼 '가'와 '다' 중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덧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 거것으로 이리 때를 만든 것이 밝혀지자 파수꾼 '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하기 방법으로 파수꾼 '다'를 회유하고자 함 → 남북한의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과도하게 안보 논리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1970년대의 우리나라의 권력자들과 유사한 모습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이리 때'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함(의지를 굳히지 않음)」
 촌장: 뭐라구?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구, 마을엔 가지 율타리를 돌렸다. 망루도 세웠구, 양철 북도 두들기구,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러구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할 때 거짓말임
 다: 아, 이젠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구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허가 넌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구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구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인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살인이라구요?

촌장: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애,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아니예요, 그전!

촌장: 아니라구?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지?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 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구,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구,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
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이리 떼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약(교활함)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구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구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
 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구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
 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
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촌장의 위선적인 행동이 드러남
 마을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득하다가 동경에 호소하고 마침내 오늘날 양보하면 다음에는 진실을 밝혀겠다고 말함(촌장의 용의주도한 면모)
 (중략)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마을 사람들요?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촌장의 말에 회유당한 파수꾼 '다'가 진실을 숨기는 데 동조함
 → 결말의 내용: 결국 이리 떼가 없다는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파수꾼 '다'는 망루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촌장의 명령에 따라 양철북을 치게 됨

핵심 정리

갈래	단막극, 풍자극
성격	현실 풍자적, 교훈적, 상징적, 우화적
주제	진실을 향한 열망.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특징	①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우화적으로 그림 ② 상징성이 강한 인물과 소재 사용

작품 해제

이 작품은 우화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권력층의 위선을 간접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거짓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마을을 통제하는 촌장의 행동을 국가의 당면 과제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던 1970년대의 정치 상황에 빗대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망루에서 '이리 떼가 몰려온다!' 라고 외치며 양철 북을 두드리는 파수꾼 '가'와 '나'의 행동이 지속되고, 진실을 밝히려 했던 파수꾼 '다'마저 촌장의 회유와 계약에 말려들어 조용히 양철 북을 두드리게 된다.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 없이 나약하게 무너지는 파수꾼 '다'의 모습은 독자에게 연민과 함께 현실 상황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작품의 구조

발단	만남	책 너머에 이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년 파수꾼 '다'의 편지를 받고 촌장이 망루로 찾아온다.
전개	소년 파수꾼의 승리	소년 파수꾼이 말한 대로, 촌장은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게 된다.
위기	촌장의 설득	소년 파수꾼은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고, 촌장은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루 연기하도록 소년을 회유한다.
절정	촌장과 소년 파수꾼의 타협	소년 파수꾼이 회유를 당하고, 오늘 하루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대단원	촌장의 승리	촌장의 의도에 따라 소년 파수꾼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소년 파수꾼은 망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인물 분석

촌장	- 이리 떼가 존재한다는 진실 왜곡으로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위선적 인물 -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를 굴복시키는 과정에서 교묘하고 논리적인 면을 보여 줌
파수꾼 '가', '나'	촌장의 독재 권력의 지배 질서를 합리화하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권력의 하수인
파수꾼 '다'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실을 밝히려 하지만, 결국 촌장의 계략에 속아 그의 뜻에 따르는 인물
마을 사람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독재 권력에 의해 기만당하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민중을 상징

전체 줄거리

황야의 망루에서 파수꾼 세 명이 끊임없이 이리 떼의 습격을 감시한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가'가 이리 떼의 습격을 큰 소리로 외치면, 마을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다른 파수꾼이 양철북을 두드려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에선 겁을 먹은 사람들이 피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갓 파수꾼이 된 소년 파수꾼 '다' 역시 이리 떼가 온다는 외침에 항상 겁을 먹고 긴장한다. 이에 노인 파수꾼 '나'는 파수꾼 '다'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그러던 어느 날, 파수꾼 '다'는 다른 파수꾼들이 잠든 사이에 망루 위에 올라가게 되고, 파수꾼 '가'가 이리 떼라고 외치는 것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파수꾼 '다'는 그 사실을 촌장에게 알리고, 촌장이 망루에 찾아온다. 파수꾼 '다'는 진실을 말하고자 하나, 촌장은 이리떼에 대한 경계심으로 마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말자고 파수꾼 '다'를 회유한다. 결국 촌장의 설득에 넘어간 파수꾼 '다'는 몰려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 그리고 촌장의 계략에 빠져 평생 망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작품 속 갈등양상**

촌장	⇔	파수꾼 '다'
진실을 왜곡하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권력자		진실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굴복하는 나약한 지식인

‘늑대와 양치기 소년’과 ‘파수꾼’의 비교

인물	늑대와 양치기 소년	파수꾼
진실 왜곡의 주체	소년	촌장
진실 폭로의 노력과 갈등	없음	있음
진실 왜곡의 의도	소년의 심심풀이	촌장의 마을 통제
진실 왜곡의 결과	소년 자신(개인)의 피해	마을 사람(전체)의 피해

작품에 나타난 상징

파수꾼 가	지배 이념을 확산하는 자
파수꾼 나	지배 이념에 대한 회의 없이 이를 증폭 시키는 자
파수꾼 다	지배 이념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려려고 하는 소수
촌장	지배 이념을 생산하여 민중을 통제하려는 권력자
마을 사람들	지배 이념에 의해 통제되는 다수의 민중
이리 때	지배 이념
망루, 양철북	불안감을 조성하여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장치
흰 구름	진실
딸기	권력자가 민중의 공감을 얻기 위해 언급하는 회유책
도끼	권력자가 민중을 협박하기 위해 언급하는 대상

시대적 배경

이 작품은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1970년대 국가 안보를 내세웠던 당시의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사실주의 연극

사실주의 연극은 극에 대한 관객의 감정적 몰입을 중시하여 무대 위의 상황을 최대한 현실처럼 보이려 한다. 그래서 배우는 될 수 있는 한 극중 인물처럼 연기하고, 무대 장치는 현실감 있게 표현하며, 극중 상황은 철저히 관객과 분리된다. 하지만 서사극인 「파수꾼」은 관객의 몰입을 제한하여 극중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극중 상황을 통해 관객이 처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배우가 일인 다역을 하게 하고, 무대 장치를 현실감 없게 표현하고, 관객을 극중 상황에 참여시킨다.